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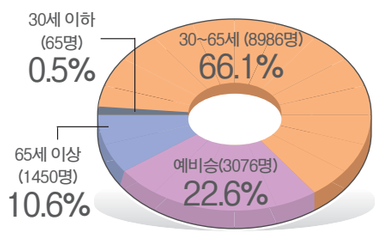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4월 23일(음력 3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676 호

사찰 1곳당 스님 3.7명

도심 포교인력 부족 심각…대책마련 절실

2007 통계로 보는 조계종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4월 15일 <불기2551년 통계자료집>을 통해 종단 승려 1만3576명과 사찰 2444곳 등 종단 내 주요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종단 승려 수는 전년대비 282명(2.1%), 사찰은 51곳(2.1%) 증가했다. 5년 전 통계와 비교해보면 승려는 1146명(9.2%), 사찰은 197곳(8.8%) 늘어나 자칫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웃종교의 통계치와 비교해보면 종단 인프라 현황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통계자료집을 근거로 조계종의 현황을 알아봤다.



조계종연령별 승려비율

2007년 현재 조계종 승려는 1만3576명. 이 중 65세 이상 스님(1450명)과 예비승(3075명)을 제외하면 일선 포교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스님은 9051명이다. 조계종 전체 사찰이 2444곳인 것과 비교하면 사찰 1곳당 3.7명의 스님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선원대중을 제외한다면 실제 포교활동을 펼치는 스님은 더욱 줄어든다.

더구나 이는 국내 불자수(1072만6000명)와 대비하면 스님 1명 당 신도 150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태고 · 천태 · 진각종 등 불교계 종단의 통계를 통합한 수치가 나온다면 비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현재 조계종의 입장에서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톨릭의 경우 성직자와 신도 수 비율은 약 1:410에 불과하다.(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참조)

스님·사찰수 5년간 9% 증가

도심사찰수 타종교 비해 열세

여(女) 행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초교육을 수료한 여행자는 110명으로, 2006년 134명 대비 18.6% 감소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가톨릭 · 개신교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인구대비 종교시설 수도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가톨릭은 본당 1447곳과 공소(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 교회) 1115곳을 합쳐 전국 2562곳의 교회가 있다. 개신교는 종파를 모두 합치면 4만191곳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대부분이 대도시나 도심에 위치한 것과 달리 도심에 위치한 사찰 수가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의 경우 조계종 사찰은 186곳인데 반해 개신교 교회는 7600여 곳으로 집계됐다. 특별시와 광역시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조계종 사찰은 600여 곳, 개신교 교회는 1만5500여 곳에 달한다.

이번 조계종 통계자료집 결과에 전문가들은 도심포교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포교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계종 기획실 김판동 팀장은 "가톨릭의 경우 전체 1만2000여 명의 성직자 중 8200여 명의 수녀와 수사가 신부를 도와 선교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계도 포교사를 좀 더 적극적인 포교주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교사 수는 2623명으로 작년대비 10.3% 증가했지만 일선 사찰에서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심포교의 해법이 포교사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포교 종책 분석 및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교역직스님은 "천주교는 1907년부터 매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내 선교정책에 반영해왔다"면서 "조계종도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종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통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부처님께 올릴 등 만들어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봉축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4월 16일 나눔의 등축제 '효로 가는 길'을 개최했다. 5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효 실천이벤트와 봉축행사로 진행된다. 축제 첫째 날인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중앙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부처님께 올릴 전통등을 손수 만들며 축제의 5월을 준비하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연등축제 문화재 지정 검토를"

지관 스님, 이건무 문화재청장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4월 16일 총무원을 예방한 이건무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문화재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뤄진 환담에서 지관 스님은 "연등축제는 1700년간 전승되어온 우리의 전통문화"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도 "이번 주에 연등축제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며 "문화재 지정에 필요한 내용을 문화재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관 스님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찰의 관람료 징수 문제는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에서도 문화재 보존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단계적이지만 목조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종단에서도 문화재 보존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는 재무부장 장적 스님, 문화부장 수경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과 송민선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장이 배석했다. 여수령 기자

경허·만공 스님 사상 조명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학술세미나

한말 격동기 속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간화선 중흥의 초석을 다진 경허 · 만공 스님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는 '경허 · 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주제로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학술세미나는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의 '경허 · 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최병헌 교수(서울대)의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과 덕숭총림', 고영섭 교수(동국대)의 '경허의 행장과 수행가풍', 변희욱(서울대 강사)씨의 '경허의 선사상에 대한 재조명', 김경집 교수(진각대)의 '근대 한국불교에서 만공의 활동', 황인규 교수(동국대)의 '근대 비구니의 동향과 덕숭총림 비구니들', 오경후 선임연구원(선리연구원)의 '경허 · 만공의 법맥과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 7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허 스님은 1899년 해인사 정혜결사를 필두로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등에서 수선결사를 조직해 영 · 호남 일대에 간화선풍을 드날린 선지식이다.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만공 스님 역시 40여년간 덕숭산에 주석하면서 수많은 납자를 길러낸 종장이다. 정혜사, 견성암, 간월암 중창과 1920년대 초 선학원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만공 스님은 선우공제회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과 간화선 중흥에 기여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재영 선임연구원은 "조사에 대한 연구지원이 부재한 현실에서 교구단위 본사가 조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경허 · 만공 스님의 행장과 업적을 한국불교사의 흐름 속에 종합적으로 회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홀로선 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억겁 세월 둘러매고
차옥 차옥 쌓던
걸음걸음 걸음
할 일 없어 우뚝 선자리
부처도 몰라보고
조사도 몰라보네.
어이하여 걸었던고
되물어보니
공연히 한 세월 걸었다 하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장애인의 날 특집 ▶9면
봄철 알레르기 비염 ▶18면

성스러워야 할 관불 관욕 의식에 ....

이제 향은 그만 부러뜨리십시오 !!



灌佛水香
관 불 수 향

청정수에 2~3방울만...
(불가 최초 물에 타서 쓰는 관불 관욕 전용 향수)



관불수향(약 20ml 50회 정도 사용량)
가격: 120,000원

관불수향은피부 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따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 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능인향당은...
인연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의 용화삼회에 최상의 공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여 연구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은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순수한 원향을 제조하여 2007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판하였으며 참다운 공양물의 으뜸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향을 원산지인 비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예품인 염주부터 복장공양물의 최고 결정체인 기남 등급까지 16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료 관련 국제특허 3종과 불교용품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인도와 캄보디아 등 불교의 성지를 돌며 구한 원자재로 불가의 최고 공양물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능인향당은 불교문화의 일환으로, 능인향당의 고도의 향료 기술이 축적된 7년간 연구의 산물입니다.
여러 불교성지를 돌면서 각 나라의 큰 스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불 의식의 재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부처님 재가시부터 내려오던 관불의 주 재료인 침향, 백단, 전단, 자단, 천단 등 불가의 오단향과 들장미와 백리향 등 5가지의 꽃에서 향료를 추출하여 국내 최초로 청정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오색, 오향의 관불, 관욕의식 전용 향수입니다.

불가의 원전을 바탕으로 최상의 공양물을 만들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능인향당의 임직원들은 오늘도 세계각국의 오지를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1〉
초파일 이전에 관불수향을 주문하시는 스님께는 능인향당의 대표향인 능인향(12,000원) 1통과 침향선향의 샘플을 더 보내드립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2〉
능인향의 시향행사를 실시합니다. 초파일 이전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 능인향의 샘플을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능인향당 龍仁香堂

본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홈페이지: www.nihwa.com
직영 매장: 서울 종로구 견지동 95-2 조계사앞 (02)730-6888

"권리제한 구제·불성실신고 대비 필요"

'포살결계법' 시행령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포살결계법 권리제한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불성실신고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하안거부터 시행하기로 한 '포살 및결계에관한법(포살결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선원과 강원, 율원, 교구본사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파계사 율주 철우 스님, 해인사 율원장 무관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계단위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선원수좌회 사무처장 강설 스님, 종회의원 성묵·성효 스님, 전국강원교직자회장 우진 스님 등 선원과 강원·율원·교구본사·중앙종회의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선원대표자회의는 ▲결계에 빠진 토굴 수선안거 수행자라도 전국선원수좌회가 인정할 시 결계록 등재를 추후 인정 ▲안거는 수선안거만 인정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포살참여 예외 대상으로 규정된 '연령 60세 이상' 조항은 법계제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강원교직자회장 우진 스님은 "군 입대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연수자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포살결계를 불성실 신고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원 승언 스님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연한 만큼 법계 품수 자격을 늦추는 등 합리적인 구제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포살이 되도록 권리제한 조항은 좀 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교구본사 사무장회의에서는 '결계록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살 시행일을 율장에 근거해 음력 14·15일, 29·30일로 정할 것 ▲공찰은 반드시 관할 교구본사로 신고할 것 ▲현직 주지는 가능한 포살에 참여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4월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선원·강원·율원 스님들이 '포살결계법'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시행령을 제정한 후 4월 넷째 주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계종 특위 활동 본격 시동

1차 회의 열고 위원장 호선·사업 논의

지난 176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7개 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는 4월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승가노후복지 실태조사 ▲공청회 등 여론수렴 ▲관련 법령 제정 ▲기금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올 한해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2009년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향적)는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와 관련한 16개 법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열린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간사에 장적스님(총무원 재무부장)과 범해 스님(종회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7일에는 종단법요집통일을위한위원회(위원장 일관)와 흥천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덕문)가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등을 선출했다. 법요집위원회는 연내 한글 통일법요집 발간 및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법요집 수록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흥천사문제특위는 실무자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5월 24일 현장답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열린 불교미디어관리위원회(위원장 일문) 1차 회의에서는 ▲미디어 현황 조사 ▲불교미디어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 등을 하기로 했다. 일문 스님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미디어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매체가 발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불교미디어의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열릴 예정이던 신흥불교군종장교파견관련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사찰등록 갱신 7월21일까지

종무원장 회의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4월 14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사찰등록 갱신과 승려 분한신고 일정을 4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확정했다.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종단 조직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찰등록 갱신 및 승려 분한신고 신청 서류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종단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5월 23일 경남 통영시 한산도 일원에서 봉행되는 '임진왜란 전몰 순국선열 천도 영산대재'에 전국 종무원이 적극 동참하는 한편, 종단 내부문제를 언론 광고를 통해 공표한 자는 종헌종법에 의거 조치할 것을 결의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승가 '부정비리 의혹' 보도 잇달아

MBC '뉴스후' 등 방영 후 큰 파장… 조계종 "감사기능 강화" 논평

MBC '뉴스후'와 대구MBC '뉴스데스크'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12일과 16일 각각 조계종 스님들의 호화생활과 금권선거 의혹을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14일 "종단의 자정성 강화를 위해 호법·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뉴스후'는 4월 12일 방영한 '사찰살림 빠듯하다면서'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스님들의 외제차 및 골프회원 소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통행료'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과 문화재보수비를 유용해 수배 중인 스님의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스님들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실태도 방영됐다.

방송 후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뉴스후의 방송 내용이 문화재에 대한 낮은 인식에서 기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보수와 활용을 위해 사용하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며 "그럼에도 '뉴스후'는 정부의 문화재 정책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공공적 가치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정에 대한 다짐도 이어졌다. 조계종은 "상반기 중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교역직 스님들의 고급승용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살과 결계를 통해 대중 원융살림과 전통복원에 힘쓰는 한편, 종단 자정성을 높이기 위해 호법·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계종의 논평이 발표된 이틀 뒤인 16일, 대구MBC '뉴스데스크'는 동화사에서 금권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은 "2006년 4월 치러진 주지선출 산중총회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재 조계종 총무원이 감찰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제 당사자로 지목된 스님은 이달 초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두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과 관련한 내사를 시작한 가운데, 조계종의 '호법·감사 기능 강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4월 17일 서울 기업은행 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기업은행 윤용로 행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자비복지카드 사업을 협약했다.

신도증·신용카드가 하나로

천태종 복지재단-IBK기업은행 '천태자비카드' 발행

천태종 복지재단(상임이사 경천)이 종단복지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천태자비카드'를 발행한다.

천태자비카드는 천태종 복지재단과 IBK기업은행이 함께 손잡고 만든 것으로 천태종 신도증을 겸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다. 즉, 신용카드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도카드로서의 기능까지 더해진 셈이다. 종단복지기금은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이 공익기금으로 적립되면 은행에서 천태종 복지재단으로 다시 기부하는 형식으로 전달된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천태자비카드의 발행으로 ▲신도관리 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도 소속감 자부심 부여 ▲천태종 복지사업 기금 조성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종단 발전 도모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기념관 건립·평전 출간 주력”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이해찬 회장



“운암 선생은 혁신적으로 독립운동, 정치하신 분입니다. 그런 혁신적 인사들이 해방 이후 가장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운암 선생과 같은 분들을 제대로 발굴함으로써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4월의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법호 태허)을 선양하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 이해찬 신임회장(前 국무총리·사진)이 4월 14일 오후 1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운암사업회가 펼칠 사업방향을 밝혔다.

운암사업회 이해찬 회장이 이 자리에서 말한 사업은 크게 ▲봉선문중 운암선생기념관 건립 ▲운암 선생 평전 출간 ▲운암청년단 활동 독려 ▲강연회 등 지속적 기념사업 진행 등이다.

우선 봉선문중 운암선생기념관 건립 건은 운암 선생이 봉선문중 출신 스님이었다는 점, 봉선문중의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기념관에는 운암 선생을 필두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봉선문중 스님들의 유품 및 기록이 전시될 예정이다.

운암 선생 평전의 경우, 님 웨일즈의 <아리랑>을 펴낸 한 출판사와 현재 협의 중이다. <아리랑>은 좌파 독립운동가 김산 선생(본명 장지락)의 일대기를 그려낸 책인데 여기 운암 선생은 ‘붉은 승려’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한다.

한편 운암사업회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대문 독립관 무궁화홀에서 ‘4월의 독립운동가 김성숙선생 공훈선양학술강연회’를 연다.(02)391-9100

김강진 기자

황룡사지 출토 부처님 진신사리 공개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시회

28일 ‘법보展’ 개막…6월 29일까지 개최



황룡사 사리.



황룡사 청동팔각사리함.

신라 천년의 비밀을 담은 경주 황룡사지 출토 사리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 개관1주년을 맞아 일반에 공개된다.

황룡사지 출토 사리는 자장 법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가져온 역사적 근거가 명확한 불사리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이 문화재적 가치 중심의 접근에서 사리기 등은 유물로 취급하지만 신앙 대상인 사리는 유물로 취급하지 않아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있었다. 황룡사 사리는 2006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 ‘불교미술’ 테마기획전을 통해 일반에 첫 공개된 후 이번이 두 번째로 선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1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전은 사리, 복장품과 경전미술 등 ‘법보’를 주제로 한 전시로 국보 9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총 162건 197점의 성보를 선보인다.

전시는 4개 전시실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앙전시실에는 경주 황룡사지 출토 진신사리를 전시해 부처님의 실재를 증명하며, 제1전시실에는 <초조대장경> 중 국내 소재 <대방광불화엄경> <아비달마비바사론> <십주비바사론> 등 5점과 <화엄경> <예수시왕칠생경> 등의 변상이 담긴 ‘해인사 사간판’이 해인사 외부에서는 처음 전시된다. 제2전시실에는 <화엄경> <법화경> 중심의 경전미술을 주제로 불상, 회화, 장엄품 등 다양한 불교미술품이 전시된다. 특히 ‘송광사 경패(경을 분류할 목적으로 상아·목재 등으로 경 이름을 적은 패)’가 눈길을 끈다. 제3전시실에는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오구라 컬렉션 사리장엄구 3점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 강점기 때 국내에서 수집해 간 문화재 1100여점을 말한다.

불교중앙박물관 ‘법보’ 전은 4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앞서 4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황룡사 사리 이운 고불식 및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법보의 의미를 성보를 통해 재해석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一卽多多卽一)인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마련한 특별전이다. 특히 황룡사지 사리 친견을 통해 황룡사 복원에 교계의 염원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3월 개관 기념 ‘불보’전에 이어 올해 ‘법보’전을 여는 불교중앙박물관은 내년에는 ‘승보’를 주제로 삼보시리즈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일연·오현 스님 시비 ‘나란히’

5월 3일 유가사서 제막

<삼국유사>를 남긴 일연 스님과 현대 시조시인 오현 스님(신흥사 회주) 시비가 같은 날 제막된다. 5월 3일 오후 2시 시간을 초월해 두 스님의 시비를 함께 제막할 곳은 대구 비슬산 유가사(주지 계성)다. 유가사는 두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절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 비슬산을 소재로 한 작품 2점을 남기고 있고 오현 스님 역시 ‘비슬산 가는 길’이란 시를 발표한 바 있다.

두 스님의 시비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번)는 1997년에 구성된 이래 꾸준히 관련 작업을 해 왔다.

당초 오현 스님의 시비건립을 추진하던 위원회가 일연 스님의 자료를 확보한 뒤 두 스님의 시비를 함께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시간이 길어졌다. 일연 스님의 시비는 비슬산에서 난 화강석으로 썼으며 세로 4m 가로 4m에 중량은 약60톤 규모다. 오현 스님의 시비 역시 비슬산에서 난 화강석으로 높이 3.5m 가로 3m 중량 약 30톤 규모다. 글씨는 김양동 교수(계명대 미술대)가 썼다.

제막식에서는 두 스님의 시가 노래로도 발표된다. 일연 스님의 시는 이달철씨가, 오현 스님의 시는 한지영씨가 각각 작곡했다. 제막식에서 성악가 허철영씨가 노래를 부른다.(053)614-5115

임연태 기자

조계사 불교꽃꽂이 대회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불교 꽃꽂이 경연대회를 5월 10일 개최한다.

작품 주제는 ‘부처님 찬탄’이며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m 내외로 높이 제한은 없다. 참가신청서는 4월 30일까지, 작품은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상 100만원, 포교원장상 70만원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02)732-2183

여수령 기자

동국대 불교대-호두마을 산학협약

안국선원 이어 두번째 체결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혜원)은 4월 17일 (사)호두마을(지도법사 능혜)과 산학협동교육을 협약했다. 3월 17일 안국선원(선원장 수불)과의 산학협동교육 협약에 이은 두 번째로, 보다 내실 있는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 불교대 학생 중 선포교사·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호두마을에서 수행하게 된다. 호두마을은 연수생의 현장연수 후 평가내용 및 출석 등을 학교에 통보한다. 연수 후에는 호두마을에서 통보된 수행실적 및 출석상황 등을 평가해 전문 3학점을 부여한다.

종호 스님(선학전공 주임교수)은 “선 심리상담사와 선포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수행 전문선원인 호두마을에 학생들을 파견키로 했다. 동국대 학생들에게 부족한 실수행 부분의 해소를 위해 선수행 연수 등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사진 오른쪽)과 호두마을 지도법사 능혜 스님이 4월 17일 산학협동교육을 협약했다.



기독교방송 중계소 설치 서명운동 물의

경남일보, 불교계에 사과

특정 종교 방송국의 중계소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던 경남일보가 4월 17일 공개 사과했다.

경남일보는 최근 진주기독교협의회와 공동으로 ‘극동방송 진주중계소 설치 10만 서명운동’을 주최했다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경남불교협의회와 경남불교신도회 등 지역 불교계는 4월 3일 경남일보구독거부대책위원회(위원장 혜일)를 결성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6일 경남일보 사옥 앞에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경남일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영진 사퇴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집회에 이어 경남일보 김흥치 회장, 황인태 사장과 면담을 진행해 황 사장의 사직서 제출과 경남일보 17일자 1면에 사과문 게재 등에 합의했다.

경남일보는 다음 날인 17일 “경남일보가 특정종교 방송국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 지역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이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홍보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고(社告)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수령 기자

청주불교방송 ‘古지도’ 전시

청주불교방송이 개국 11주년을 맞아 ‘아! 동해 그리고 간도’ 전시회를 연다.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청주 문화산업재단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미공개 국·내외 고지도 100여점을 비롯한 청주시 옛 사진 자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는 독도 영유권과 동해의 명칭,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등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꾸며진다.(043)294-5114

손효선 기자



봉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 행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



모시는 글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자비로운 5월에 원만 회향을 축하하는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천문사 주지 진성 합장

법회안내

- 일시 : 불기 2552(2008)년 5월 3일(음,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천문사 극락보전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000-7번지)
- 문의 : 02)936-9736 / 011-307-3130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

대구·경북불교합창제

대구광역봉축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구광역시봉축위원회(위원장 허운)는 4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9회 대구 · 경북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진각종 금강합창단 외 13개 사찰 합창단의 500여 회원이 대회에 참가했고,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공연을 보기 위해 합창제를 찾았다.

허운 스님은 "단위 사찰 소속 불교합창단의 단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전법활동을 펼치는 포교사"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널리 알리는 불교합창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동종 조사 다례재

도선사서 봉행

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4월 13일 도선사에서 종조 동산양개 대화상 다례재를 봉행했다.

종정 덕찬 스님, 승정원장 지운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덕우 스님은 "올해부터 종조이신 동산양개 대선사 다례재를 음력 3월 8일에 봉행하게 됐다"며 "다례재를 계기로 종풍을 진작하고 종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또한 덕우 스님은 "사단법인 설립과 원사 건립 불사의 원만 회향에도 종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

응공사 보살수계 봉행

대구 응공사(주지 도경)는 4월 13일 보살수계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했다.

도경 스님은 이날 보살수계자 300여 명에게 "함께 살아가는 나와 이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보살의 덕목"이라며 "삼독 · 삼업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인연으로 걸림 없이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응공사는 2005년부터 학인스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혜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불사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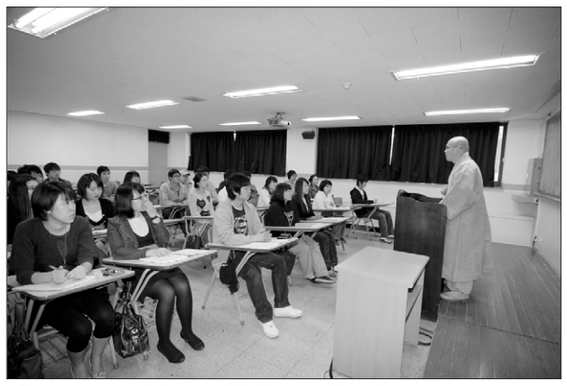
손법천 대구지사장

最古 금속활자본 가치 '공감'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 서원大서 '직지심체요절' 강의

"<직지심체요절>에 실린 307편의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의 근원과 실존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문, 치인리 십번지> <삭발하는 날> 등의 수필집을 통해 담백하고 위트 넘치는 문장을 선보였던 현진 스님(청주 관음사 주지)이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들고 대학 강단에 섰다. 2년 전부터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직지를 통한 불교이야기' 강의를 맡고 있는 스님은 "<직지>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의를 시작한 후 학생들이 강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보인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였다고 스님은 말한다.



4월 3일 서원대 강단에서 '직지'를 주제로 강의하는 현진 스님.

현진 스님이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직지>의 판각처인 흥덕사가 위치한 청주시와 청주시 소재 서원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2년 전, 충북교수불자회장 성기서 교수(서원대)가 <직지> 강의를 제안했을 때 현진 스님은 "학생들이 <직지>와 부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줄까 걱정을 했다"

현진 스님의 강의는 <직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그 속에 담긴 '사상성'을 더 주목한다.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역사적 의의에 가려져 있는 <직지>의 참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지에는 '불법(佛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무심(無心)하여야 한다'는 법어가 있습니다. '무심'은 사량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신의 편견과 잣대로 판단하면 본질과 멀어지기 마련이므로 불법을 지식과 상식으로서 이해하고 접근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알음알이로 헤아리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고요히 맑게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스님이 강의 중간 중간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강생 전유미(의류학과 4) 학생은 "<직지>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며 "특히 수업 중간에 배우는 명상은 집중력 향상과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희(의류학과 4) 학생은 "스님의 강의는 공부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대신 오직 <직지>와 나(自)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강의를 듣다 보니 모든 구절들이 마음에 새겨놔야할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승복을 입고 강단에 선지 벌써 2년. 수강생 중에서는 강의가 끝난 후 관음사로 찾아와 더 큰 가르침을 구하는 학생도 있다. 현진 스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찰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강의를 통해 불교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그것이 학생들의 마음에 긍정적으로 와 닿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지>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손효선 기자

원담 스님 선묵 유작展

예산 수덕사, 5월 3일까지 수덕여관서 개최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3월 18일 입적한 원담 스님의 선묵(禪墨) 유작 전시회 '원담 대종사 추모 작품전'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수덕사 앞 수덕여관에서 연다. 추모 작품전에는 총 20여점의 유작들이 전시된다.

이 전시회는 원담 스님이 1987년 '천안 독립기념관 건립 서예전'을 열고 독립기념관측에 성품으로 기증했던 수십여 점의 작품 중 독립기념관이 판매 · 성금화하고 남은 13점을 재기증 받아 열린 것이다. 재기증은 3월 10일 이뤄졌으며, 작품은 8폭 마하반야경 병풍과 10폭 금강경 병풍 외 선묵 11점 등 총 13점이다. 또한 수덕사는 수덕사 소유의 원담 스님의 유작 6폭 병풍과 선묵 5점도 함께 전시한다.

한편, 14일에는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 향춘사 주지 법정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날 옹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원담 큰스님의 작품을 보니 큰스님의 법과 사상과 살아오셨던 행적이 그리워진다"며 "이 전시를 통해 큰 스님의 채취와 법력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수덕사는 수덕사 미술전시관이 완공되면 원담 스님의 유작을 상설 전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041)337-6565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오른쪽)과 수덕사 스님들이 '원담 스님 선묵 유작전'을 둘러보고 있다.

손효선 기자

충청지역 봉축행사 풍성

中 사절단 공연· 불교 미술및 사진전 등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충청지역 사찰 및 사암연합회들이 다양한 봉축행사를 마련한다.

충청지역 봉축 행사는 각 지역마다 공원, 대운동장,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점등식 및 봉축대법회, 제등 행렬 등을 봉행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4월 27일 공주 마곡사 '제4회 신록 축제'를 시작으로 ▲5월 3일 옥천체육센터에서 중국 사절단의 '천진불세상' 공연 ▲5월 9일 온양온천역광장에서 중국 사절단의 '천주천안관세음보살' 공연이 열린다.

이밖에 5월 4일 청주 무심천에서 '제8회 청소년 문화 예술제'가,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불교 미술 및 사진 전시회'가 진행된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5월 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주 마곡사는 5월 12일 법요식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을 열어 수익금을 사곡면에 기부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 행사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청주 봉축탑 점등식	4월 25일 오후 7시	청주 무심천 분수대공원
공주 제4회 신록 축제	4월 27일 오전 10시	공주 마곡사
당진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4월 27일 오후 3시	당진 문예의 전당
서산 봉축탑 점등식	4월 30일 오후 7시	서산 시청 앞 로터리
예산 봉축탑 점등식	5월 2일 오후 6시	예산 경찰서
옥천 법요식 및 '천진불세상' 공연	5월 5일 오후 3시	옥천 체육센터
청주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5월 4일 오후 6시	청주 무심천
청주 제8회 청소년 문화예술제	5월 4일 오전 10시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천안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	5월 7일 오후 5시	천안 삼거리 공원
공주 부처님오신날 특집 제등행렬	5월 7일 오후 7시	공주 공주고 운동장
청주 청주여자교도소위문	5월 8일 오후 1시	청주 여자 교도소
예산 봉축 대법회 및 제등행렬	5월 9일 오후 5시	예산 공설운동장
아산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공연	5월 9일 오후 6시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
청주 불교미술 및 사진 전시회	5월9일부터 14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대전 합동 법요식 및 제등행렬	5월 10일 오후 5시	대전 보문고 운동장
공주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5월 12일	공주 마곡사
예산 산등제등행렬	5월 12일 오후 7시	예산 수덕사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5월 12일	각 사암

무심천 정화로 마음도 청정하게

청주청원 연합봉사단 봉사활동 팔 걷어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연합봉사단(단장 현진)이 4월 12일 청주 무심천 정화 봉사를 시작으로 첫 활동에 나섰다.

현진 스님과 진천 도솔암 회주 회정 스님을 비롯한 봉사단원 120여 명은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제2운천교 및 수영교까지 총 4시간에 걸쳐 정화활동을 펼쳤다. 현진 스님은 "무심천이 불교와 수행을 상징하는 곳이기에 첫 봉사활동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다"며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한 법이니 마음을 정화한다고 생각하고 봉사 활동에 임하길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손효선 기자

기사 제보 | 충청지사 (043)732-5560

중국 명청대 인물화 특별전
통도사 성보박물관 4월 10일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북촌미술관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기념 '중국 명청대 인물화 특별전'을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기증실에서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전시 중인 중국 명청대 인물화는 유교에 기초한 충효사상 및 조상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양과는 전혀 다른 초상화 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중국의 초상화는 우리나라 초상화와는 달리 개인뿐 만 아니라 부부, 가족, 선대 조상을 한 장면으로 묘사한 초상화 등 여러 종류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관계자는 "중국 초상화를 만남으로서 중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봉축을 맞아 통도사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들꽃 향기가 솔솔~"
통도사 서운암 제7회 들꽃축제 개최

양산 통도사 서운암(암주 성파)은 4월 25~30일 서운암 일대에서 제7회 들꽃축제를 개최한다. 4월 25일 개막법회를 시작으로 들꽃사랑 콘서트, 차와 사찰음식의 날, 들꽃사랑 시 축제 등으로 이어진 서운암 들꽃축제는 일주일간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전시는 들꽃 시화전, 연꽃사진전, 신홍직과 김형률 화백작품전, 우리차시연회, 전통염색공예전 등이 있다.

하성미 기자

"저희도 정진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투어'가 부산 범어사 해운대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에서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됐다. 이와 함께 반야원 신도들이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에서 3000배 철야정진, 예불, 정근을 통해 24시간 끊이지 않는 정진기도가 이어져 사리친견법회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벤트로 마련되는 사리친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리를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은 고양되고 마음은 평정을 찾고 고요를 얻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사리를 놓고 정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이벤트로 펼치는 일회성 친견 자리가 아닌 진심으로 수행을 점검하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반야원 신도들이 두 팀으로 나눠 하루에 500배씩, 새벽에는 철야정진, 예불 그리고 친견 마지막 날 23일에는 지장재일에 맞춰 천도재를 봉행했습니다. 정진하는 분들을 배려해 특별히 사리친견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요. 꽃이 있는 곳에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가득한 곳에 머물면 향기는 저절로 스며들게 되지요.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를 모시고 정진하는 신도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깨끗하고 맑은 향기가 스며들었을 꺼라 믿습니다."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과 신도들은 17일부터 23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해 수행과 정진하는 사리친견 문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7일 오후 3시 열린 진신사리친견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및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부산불교거사림회 배호암 회장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이 주관하는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투어'는 2001년 3월부터 세계 각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사리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 중인 사리들은 투어가 끝나는 대로 인도 쿠시나가르에 조성될 152m 높이의 미륵불상 심장에 안치될 예정이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에서 전시 중인 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400여과를 비롯해 10대 제자와 500아라한의 사리 2000여과, 한국 성철 스님을 포함한 세계 고승 총 39위의 사리 3000여과이다. 사리 투어는 부산에 이어 4월 29일~5월 4일 대구 시민회관, 18~19일 전남 보성 대원사, 23~25일 서울 상원사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사리친견 자리에서 정진의 열정 펼친 반야원



부산 반야원에서 열린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투어'를 둘러보는 스님들.

울산 동구 사회 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사장 보연)은 4월 16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활안) 개관식을 개최했다. 원각선원은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1일 울산동구사회복지관을 수탁했다.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면적 4533.21㎡,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경로식당, 조리 실습실, 체조실, 건강관리실, 취업훈련교실 등 울산 시내 종합사회복지관 중 최고 규모의 시설을 자랑한다.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 문화, 가족복지, 저소득층 지원 사업, 자활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 재가복지 봉사 센터 등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활안 스님은 "복지법인 원각선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설립됐다"며 "설립 의도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 광고 · 구독문의
(051)632-4440

합천 금강선원 내나무 심기 템플스테이 개최
"내 나무 한 그루 심어요"



합천 금강선원(주지 초중)은 4월 12~13일 양일간 내나무 심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느티나무, 단풍나무, 소나무를 심으며 자연과 하나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참선체험, 명상의 시간을 통해 초중 스님으로부터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 세상의 사물을 관찰하는 법, 짧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법 등을 배웠다.

초중 스님은 "자기 이름표가 달린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일상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산사 도량에 심은 한 그루 나무를 생각하면 삶이 보다 더 여유로워 지겠다는 생각에 지난해에 이어 '내나무 심기'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산사체험에 동참한 김덕순(50 · 대구 수성구)씨는 "앞으로 자주 찾아 수행도 하고, 내가 심은 나무를 꾸준히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총재 취임 및 신입생 환영회



부산파라미타(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4월 13일 총재 취임 및 신입생 800여명을 위한 환영회를 개최했다. 신임 총재 정여 스님은 "어린 학생들이 참된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명숙 회장은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이어 총재 정여 스님은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을 부총재로, 각 학교 교사 13명을 파라미타 지도교사로 위촉했다.

하성미 기자

동행취재-부산 홍법사 108산사 순례

부처님 닮고 싶은 불자들의 구도행

부처님 마음 깨닫고 싶어 참선을 익히고, 부처님 마음 행하고 싶어 경전을 배우며, 부처님 미소 머금고 싶어 자비를 행하는 걸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순례, 부처님 모습 찾아서 가는 구도행이라네.

홍법사(주지 심산)가 매달 음력 10일이면 '걸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순례'라는 주제로 성지순례를 간다. 15일 화순 운주사, 나주 불회사, 보성 대원사 순례에 동행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아침 6시. 23대의 대형버스에 1000여명의 회원들이 나뉘어 타고 새벽공기를 가르며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순례길에 올랐다.

108산사 순례를 목적으로 2007년 음력 1월 동화사, 파계사, 제2석굴암으로 시작한 산사순례는 벌써 15회를 맞았다. 회향은 2010년 음력 1월이며 금강산에 있는 사찰을 순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수행과 신행을 목적으로 여유롭게 기도하고 순례하는 것이다. 세군데 사찰 중 한 곳에서 108배를 하고 주지스님으로부터 사찰 설명을 듣고, 공양도 야외에서 하며, 스님들이 걸망 메고 다니는 마음으로 불자들이 오늘 하루라도 출가의 정신으로 살았으며 한다"고 108산사순례의 취지를 밝혔다.

운주사에 도착하여 곳곳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 야외법당을 마련하고 <천수경> 봉독, 백팔대참회, 축원, 운주사 주지스님의 사찰소개로 마무리했다.

108산사순례회 회장 곽영자(반야심) 보살은 "108순례 사찰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1000명의 불자들이 움직이다 보니 2개월 전부터 주지스님과 함께 선발대를 구성해 사찰 주차장부터 108배가 가능한지 등 제반 상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순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찰을 질문했다. "장육사 가는 길은 부산에서 거리도 멀고 사찰 진입하는 길도 협소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관세음보살 건칠이윤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기 어려운 자리였는데 인상이 깊었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점심공양 후 주지스님이 염주 알을 나눠주고 있었다.

세알의 염주 알에는 오늘 순례할 사찰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용도에 의문이 생겨 스님께 여쭈어 보았다. "염주 알을 다 모으면 108개가 된다. 기념되는 것뿐 아니라 108배 사찰순례로 기도 원력도 성취될 것"이라며 말없이 웃음 지었다.

6월 산사순례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관음사와 약천사이다. 벌써 1000여명이 등록했다고 한다. '걸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순례'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듯 부처님 닮아가고자 하는 불자의 구도행으로 자리매김했다. (051)508-0345

오세룡 부산지사장

수행과 신행을 목적으로 순례
1000여명의 회원 불심 가득



대운하 반대 물결 남도 왔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 영산강 맞이 법회 봉행

2월 12일 겨울바람 속에 김포 애기봉을 출발한 한반도대운하반대 순례모임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영산강 어귀에 도착해 이들을 맞는 행사가 열렸다.

4월 15일 광주전남교구본사협의회(회장 성오)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는 영산강 상류 담양습지 옆 태암그린 공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례단 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성오 스님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을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며, 힘든 긴 여정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스님은 "광주 전남 불자들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계획임을 지적하며, 대운하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순례단의 지관 스님(용화사 주지)은 "한국 역사상 100일 동안 종교인들이 함께 노숙하며 순례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강물은 그냥 강물이 아니라, 생명줄이고 마음의 고향"이라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말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은 한국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김포 애기봉을 출발해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65일간 1700리 길을 도보로 순례중이다. 순례단은 65일 순례기간 동안 위기에 처한 생명의 강을 위해 참회와 성찰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평일에는 50여명 이상, 주말에는 수백 명의 순례 동참자가 순례단의 길에 동참해 연인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대 안전기원 및 장병 수계법회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재곤, 관음사 주지)와 공군 38전대(전대장 하성룡 대령)는 4월 13일 부대내 호국 군성사에서 무사고 안전기원 및 불자장병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재곤 스님과 송월 스님(성월사), 법희 스님(흥천사)과 법운 스님, 무진 스님(수도암), 정안 스님(정안사), 20B 정범 군법사, 김진수 단장(전북포교사단), 안근 회장(군산불교신도연합회) 외 군산지역 신도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불자장병 100여명이 계를 받았다.

전계사 재곤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은 악업을 소멸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다. 이제 계를 받았으니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삼보에 의지해 군복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국 군성사는 미군 기지내에 위치한 특성상 법회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아 1982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비·꽃이 우리의 선지식"

법전 스님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함평나비곤충엑스포에서 법문을 하고있다.

"함평나비곤충엑스포는 무정물(無情物) 역시 불성(佛性)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제다. 친환경축제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나비곤충엑스포에서 법문을 했다.

2008년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4월 18일 전남 함평에서 2008 함평세계나비 · 곤충엑스포 성공기원대법회 및 방생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종전 법전 스님은 고향 함평에서 열리는 함평엑스포에 각별한 관심으로 법문을 했다. 법전 스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연기의 세계 속에서 산다. 즉 꽃과 나비와 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면 인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이다. '일체중생 실유불성'라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함평 땅에서 벌과 나비 꽃이 우리의 선지식임을 다시금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지종 스님,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범만 스님(대흥사 주지)과 지선 스님(백양사 고불선원 유나),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김의정 회장(중앙신도회),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석현 함평군수와 도선사 108순례단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함평엑스포성공기원 대법회 후에는 3만3000㎡여에 조성된 습지에서 방생법회가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등 밝혀"

전북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개막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리고 전북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원등이 불을 밝혔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 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12일 전주 서신동 롯데 백화점 사거리에서 봉축 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봉축행사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전북 지역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등 대표적인 불교종단 스님들과 전북신도회, 전북 포교사단 등 포교 신도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기원등 점등식은 바라밀 합창단의 축가와 봉축 불꽃놀이 탑돌이 등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봉축위 부위원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화해와 이해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며 "전북 도민들 모두에게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마음모아 기원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곧 부처님 나라"라고 강조하며, "전라북도를 도솔천의 세계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인 위한 茶문화강좌

지친 현대인들에게 한 잔의 차로 여유를 일깨우는 "향기로운 차 생활" 문화강좌가 열린다. 사단법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 서남대 교수)은 오는 4월부터 한국차문화협회 사범 한운스님(약사사 주지)과 함께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는 한국차의 개요와 현대인을 위한 다도법 등 월 2회의 강의와 2회의 다도실습으로 이뤄진다.

한편 광주불교교육원은 4월 27일 '영산강과 나주 문화유적을 찾아 떠나는 광주 어린이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어린이 역사탐방은 영산강 체험활동과 심향사, 나주목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228-909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달래향이 나요~"

김제 금산사, 화전놀이 템플스테이



금산사(주지 원행)는 4월11~13일, 봄꽃 가득한 서래선원에서 '새봄맞이 화전놀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화전놀이 템플스테이는 108배, 참선, 예불 등 전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화전놀이를 추가한 것.

대부분이 가족단위였던 참가자들은 산사를 붉게 물들인 진달래꽃을 즐기며 상춘객들과 함께 화전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최백송 명창의 판소리 공연 등 가무를 즐겼다.

지도법사 일감 스님은 "새봄 산야의 꽃향기가 널리 퍼지듯 지혜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전놀이를 마련했다"면서 "꽃향기처럼 생활의 지혜를 피우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광주파라미타 이동배 교법사

"청소년 포교 '눈높이'가 중요"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포교사를 꼽으라면 단연 정광고등학교 이동배 교법사(법명 진상)다. 그는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교법사이면서, 불교청소년단체인 광주파라미타의 실무를 맡는 등 활발한 청소년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이라 학교가 조용합니다"라며 반갑게 맞는 이동배 교법사. 그에게 청소년포교에 대해 물었다.



이동배 교법사는 "청소년포교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불교환경을 접하게 하고, 불교가 청소년에게 친숙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 교법사는 대학 졸업 후 10여 년 동안 군법사로 활동했다. 이 교법사는 "군법사로 재직하면서 비로소 불교의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역 후 정광고 교법사로 부임해 청소년포교에 매진하기 시작한 이동배 교법사는 파라미타광주지부를 만들었고, 매년 광주에서 가장 큰 광주청소년음악놀이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런 이동배 교법사의 원력 덕분일까? 7월 25일에는 파라미타전국대회가 광주 · 화순 일원에서 열린다. 이동배 교법사는 "불청대회와 파라미타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호남불교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문화 접하는데 부모역할 중요
매년 광주청소년음악놀이대회 개최

법사는 "사찰 내 아이들이 즐길 공간 마련은 물론 사찰에 머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 이동배 교법사는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사찰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성인이 되면 본인 스스로 선택하겠지만,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며, 공덕을 짓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동배 교법사가 처음 불교를 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절에 갔다. 단청이 무섭고, 신장이 무서웠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그 때 이 교법사가 찾은 절은 완도 신흥사로 청파 스님이 주석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전북지사 : (063)910-5199

제2회 어린이 방생법회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안성 도피안사에서는 해마다 '어린이 날'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방생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생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생명존엄의 자비체험을 갖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어린이들 자신의 수명과 복덕이 늘어나고 지혜와 자비가 자라게 됩니다. 이 뜻 깊은 방생법회에 두루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방생장소 : 안성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경내 연못 4곳,
「환희지(歡喜池),이구지(離垢池),선혜지(善慧池),법운지(法雲池」

◎ 때 : **1차 –** 2008년 5월 4일(일) 10시 30분
2차 – 2008년 5월12일(월) 부처님오신날 오후 1시 30분

◎ 참가비 : 한 가족당 5,000원
(참가하시는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점심공양과 선물을 드립니다. 다만 장소관계로 순서에 의해 50가족만 접수하오니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생공양금 : 물고기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공양금이 다릅니다.
(오천원에서 부터…)

1. 어린이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2. 어항이나 집에서 기르던 물고기는 방생할 수 없고, 또한 서로 잡아먹는 외래종 물고기들도 방생할 수 없습니다.
(방생 물고기는 절에서 준비함 – 미꾸라지, 잉어, 참붕어)

※ 어린 시절에 방생을 하면 어른이 되어 사냥이나 낚시 등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주소 _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456-893)
전화 _ 031-676-8700 | **전송** _ 031-676-8704
Home Page _ http://www.dopiansa.or.kr
E-mail _ dopiansa@kornet.net

주최 _ 안성 도피안사 · (사)사찰생태연구소
후원 _ (재)한택식물원 · 서일농원





불상,석탑,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절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연등제의 행렬과 욕불은 우리것"

미등 스님, '연등제의 역사와 전통' 학술토론회서 주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에 봉축 연등이 하나 둘 점등되면서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스럽게 등 하나를 공양한 우화(貧者一燈)처럼 탐 · 진 · 치 삼독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은 그 수가 많고 적음과 화려함보다 등 밝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연등축제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려 연등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미등 스님(불교의례연구소 소장)은 "연등제의 행렬과 욕불은 일제강점기의 잔영이 아닌 전통적인 연등놀이였다"고 주장해 교계의 이목을 끈다.



조계종 문화부와 봉축위원회 행사기획단이 공동 마련한 학술토론회는 '연등제의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미등 스님은 '일제강점기 연등제 고찰'에서 "일본식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하나마쯔리가 일제 강점기때 도입돼 오늘날 연등제 기원을 이룬다는 종래의 학설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2002년 편무영은 <초파일민속론>에서 손에 등을 들고 행진하는 것이 일제 잔재라 했고, 진철승은 '부처님오신날, 그리고 연등축제의 과제'에서 제등행렬과 관불은 일본식 풍속으로 일본 하나마쯔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었다.

미등 스님은 "전통문화는 일시적인 급조와 왜곡이 있어도 문화원형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등(提燈)의 '제'는 '손에 들다' '손으로 끌다' '걸다'의 의미로 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제등의 기원은 인도에서 부처님오신날이면 장식한 수레를 준비해 불상을 안치하고 성내를 돌며 연희를 열고 꽃과 향을 공양하던 행상공양(行像供養)에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불교에서는 고려 의종(1147~1170) 때 정비된 법가위장과 연등위장에 연등제 행진, 행렬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등위장은 연등회에서 왕이 거둥할 때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등장했던 의장대열을 말한다.

> '남해기귀내법전'과 '고승전'을 근거로 제시
> 인도, 중국, 한국 전통사회에서 전통적인 축제

미등 스님은 "욕불은 <과거현재인과경>에 룸비니에서 탄생한 태자를 난타용왕과 우파난타용왕이 입에서 청정수를 뿜어 태자를 목욕시킨 것에 근거한다. 욕불의식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나란다 사원에 10년간 머물렀던 당나라 승려 의정이 <남해기귀내법전>에 남긴 기록과, 중국 <고승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스님은 "한국에서의 욕불의식은 통일시라시대 유물인 '금동탄생불'과 고려시대 관불의식 때 사용되던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공동체 놀이나 풍속이 금지 또는 변질되는 등 시대적 아픔이 있었고, 연등놀이 역시 같았다. 하지만 관 주도의 연등행사와 별도로 대중들은 형형색색의 등을 밝히며 관등놀이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전경욱 교수(고려대)가 '연등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양상'을 통해 인도, 중국, 한국 전통사회에서 연등놀이가 대표적 축제였다는 주장을 했다. 전 교수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한시를 예로 들며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 전기에도 민간에는 연등풍속이 활발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자 교수(안동대)는 '세시풍속으로서 연등회와 관등놀이'에서 "연등회 등에는 불교법회와 민속의례 어우러져있다"는 요지의 주제문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종교권력에 대한 '자성'과 '자제' 필요

한국 불자 · 기독자 교수협의회 제3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MB정부의 특정 종교인 편중 인사는 '고소영' 라인이라는 신조어로 극명히 표현된다. '소망교회' 신도의 잦은 등용은 종교권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또 18대 총선에서는 통일교의 가정당과 기독교의 기독당이 후보를 내며 정치일선에 나섰지만, 종교 권력을 경계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화된 종교의 권력화 움직임에 불자 · 기독자 교수들이 모여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 중 불자 교수들의 발표를 간추려 소개한다.



4월 18일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제3회 '불자 · 기독자 교수 공동 학술대회'는 제1부 역사를 통해 본 종교권력과 제2부 한국사회와 종교권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역사상의 불교권력'에서 불교권력 현상을 불교와 정치권력의 관계라는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추적했다. 유 교수는 세속권력에 대한 교리적 원칙에 따른 초기불교의 태도, 정치현실과 타협했던 대승불교, 정치세력화의 유혹이 강했던 호국불교, 고려불교권력 등 불교사 전반에 걸친 통시적 접근을 시도했다.

'현대불교와 종교권력'을 발표한 김경집 교수(진각대 · 사진)는 "불교의 권력화는 세속화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자정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비구 · 대처 분쟁에서 벗어난 교단에 종권다툼이 일면서 총무원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이후 서의현 등 총무원장의 3선 감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권력화가 가속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앙종회의 불징계 특권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승려가 종회의원이어서 징계를 피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종회의 권력화 원인을 인적 · 물적 · 조직적 자원의 증가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교구본사 주지도 과거 중앙 임명제가 아닌 직선제 선출로 바뀌면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중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 의원 선출로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 조직 구성원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은 심각한 권력화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불교의 금권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 교수는 "불교계 금권화의 근본문제는 사원경제의 운영"이라 진단하며, 사찰재정 비공개를 문제 삼았다.

김경집 교수는 "사찰 재정의 비공개는 사회로부터 불교가 불신 받는 원인이며, 사찰 재정의 불균형으로 사찰 경제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다. 사원경제는 공유와 평등의 정신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운영원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성스러운 것이 타락할 때 종교적 본질로 돌아가려는 역동적 움직임이 일었다"는 김용표 교수(한국교수불자협의회 회장, 동국대)의 말처럼 참석자들은 종교의 정치화, 상업화, 금권화, 대형화, 성직계급의 권력화 등을 비판하며 자성과 자제의 목소리를 키웠다.

조동섭 기자

미륵전 공사 중 후령통 발견

금산사 보살상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17일,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소조미륵좌협시보살상(비지정문화재)' 복원 공사 중 복장(腹藏)에서 후령통(侯鈴筒)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원통 모양의 후령통은 복장을 담는 통으로 지름 11cm, 높이 20cm로 황초폭자(비단)에 싸여있었다. 문화재청은 X-ray 검사 결과 후령통안에 유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추가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금산사 미륵전은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돼, 통일신라 때(776)에 중건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때 재건한 건물이다.

소조미륵좌협시보살상은 17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7월부터 습기로 흙의 점력이 약해져 붕괴된 것을 복원해 왔다.

조동섭 기자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이라 불러주세요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칭 변경

천연기념물과 명승 31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이 정비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15일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표기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일제 정비된 명칭을 발표했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등 지정명칭에는 통일된 표기원칙이 없어 문화재 특성, 소재지 등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때 지정된 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사 '의'가 사용돼 다른 문화재 종별과 차별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명칭 정비는 일반인들의 쉬운 이해와 통일된 명칭에 중점을 뒀다.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가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으로 변경돼 군락, 군락지, 군생지의 용어가 군락으로 통일되는 등 일관성 있는 단어 사용을 비롯해 '대구면의 푸조나무'가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로 바뀌는 것처럼 소재지 등을 명확히 하고 조사 '의'도 삭제됐다.

조동섭 기자

목조여래좌상 및 목조보살좌상' 유형 문화재 지정

영동 중화사

4월 11일 영동 중화사(주지 현구) 소재, 목조여래좌상 및 목조보살좌상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됐다.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은 조선 숙종 12(1686)년에 조성된 불상으로 해당 시기와 불상 제작 편년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금 과정과 소속 사원 등 연혁이 적혀 있는 복장 묵기(墨記) 등이 함께 발견됐다.

손효선 기자

왕흥사지 사리 뚜껑서 진사문양 발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결과 발표

2007년 출토된 왕흥사지 목탑터 석제 사리장치 뚜껑 보존처리 결과 진사(辰砂) 문양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화강암 재질의 왕흥사지 목탑터 석제 사리장치 뚜껑 오염이 심해 지난해 10월부터 보존처리를 실시했었다. 표면 상태 확인을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뚜껑 윗면에서 주칠(朱漆) 흔적이 확인됐고, 주칠이 고착된 흙덩어리의 성분분석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진사(辰砂) 또는 주(朱)로 밝혀졌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일러스트 처리한 진사문양.

연구소 측은 "석제뚜껑에서 확인된 주칠과 문양은 절대연대를 가진 국내 최초 사례다. 붉은색 안료를 사용해 나타낸 문양은 안료의 재료적인 측면과 문양의 도상면 등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 연구에 일조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알립니다] 이번주 '우리학회는' 쉽니다

성인병 (당뇨 · 고혈압) 예방

9번찌고 말린 첫서리맞은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증구포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스님께서 수제로 정성들여 만든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안 내

◆일 시 : 불기 2552(2008)년 5월 1일(음 3.26) ~ 2일(음 3.27) 2일간
◆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참 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 · 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농협 615107-51-021671 (예금주 : 송광사)
◆문 의 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9 / FAX 061)755-0408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일주문



연꽃 사진전 개최

대구 법성사 주지 부용 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처럼상정'을 주제로 연꽃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02)2011-1700



청주불교방송 '불교포커스' 진행

옥천사암연합회장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은 4월 29일부터 청주불교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불교포커스' 진행자로 활동한다.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특별상 수상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회장이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특별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공불련 성지순례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은 4월 19~20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임원단 회의 및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삼보사 후불탱화 점안 법회 봉행



군산 오성산 삼보사(주지 법송)는 4월 12일 대웅전 삼존불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전주 보문사 혜월 스님을 증명법사로 회주 지환 스님,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백운사 지향 스님, 내원암 지인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 수계법회 봉행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재곤, 관음사 주지)와 공군 38전대(전대장 하성룡 대령)는 4월 13일 부대 내 호국 군성사에서 '무사고 안전기원 및 불자장병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1982년 개원한 호국 군성사는 미군 기지 내 위치한 특성상 법회 활성화가 어려워 이날 수계법회도 개원 후 처음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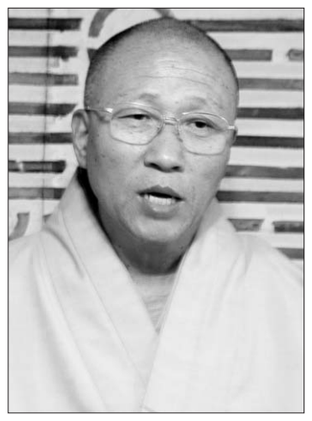
전남 파라미타 발대식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의 14번째 지부인 전남파라미타(회장 종삼 스님, 회엄사 주지) 발대식이 4월 12일 구례 회엄사에서 열렸다. 전남파라미타는 1월 30일 회엄사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바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의 운율 墨의 향기로 읊었다

'한글 서예전' 여는 효림 스님



시인 효림 스님(성남 봉국사 주지)이 오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인사동 하나로 갤러리에서 한글로 담은 우리 시 서예전을 연다. <법구경>의 구절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 시를 중심으로 평소 함께 해온 시우(詩友, 시를 함께 쓰는 도반)들의 애송시를 묵향에 담아 한글로 썼다.

"저는 그동안 글을 제대로 쓰는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서툴러서 드러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자에 와서 설악산 백담사와 보광사 수구암에 기거하면서 한가로움을 즐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4년여 간 나름대로 열심히 글을 써왔는데 좋은 인연으로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총 100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지난 겨울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며 사찰에 들어 앉아 시를 그려봤습니다. 한문 글씨만 써오다가 어느 날부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의 글인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차등 없이 모두에게 쉽게 다가가고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언어입니다. 우리 시를 한글로 씀으로써 시인의 생각을 참답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의 운율을 묵향으로 느끼며 하나의 획마다 담긴 먹의 조율을 읽어보자. 그러다보면 절로 환희심이 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02)720-4646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불교언론인 위상 강화에 최선 다할 것"

불기협 15대 회장에 안직수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 제15대 회장에 불교신문 안직수 차장이 선출됐다. 불기협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에 안직수 차장을, 부회장에 불교TV 조용수 PD를 각각 선출했다.

안직수 회장은 "지난 2년 사이 불교언론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불기협 회장으로서 불교언론인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회장은 ▲경제학 관련 초청강연 ▲불교계 큰 일꾼 체육대회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제안했다. 1999년 불교신문사에 입사한 안직수 회장은 수원불교학생회장과 단국대 불교학생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불교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한국 선풍 널리 알리는 계기 될 터"

독일에 포교원 여는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



"독일 사람들이 한국 선(禪)에 대해 관심이 많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독일포교당에서는 현지인들에게 최대한 쉽게 한국 불교를 알릴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시애틀, LA 등 3개 지역에서 해외포교를 전개해온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이 해외에 또 다른 동산포교당을 개원했다. 이번에는 독일, 즉 유럽이다. 이름도 '독일동산유럽포교원(이하 독일포교당)'이다.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에 전법의 법륜을 굴리겠다는 뜻이다.

독일포교원 개원식이 있었던 4월 19일 김 이사장은 직접 개원식에 참석했다. 개원식에서는 불상 점안식과 김 이사장의 특별법회 등이 진행됐다.

이번 독일포교원 개원에는 사실 동산불교대학 동문인 독일 현지 한의사 나진오(65)씨의 원력이 컸다. 나씨 개인 소유 건물에 독일포교원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이 약 8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법사 과정까지 모두 졸업했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만 직접 참석하고 수업은 모두 인터넷으로 수강했어요. 본인이 동산에서 느낀 게 많다며 그것을 현지에서 풀어내고 싶다는 뜻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이름도 '동산 한의원'이다. 김 회장은 "나씨는 1년 전부터 독일포교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동산불교대학에 모시고 있던 불상을 독일로 이운하는 등 포교원을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독일인들에게 '메디테이션(명상)'과 명상음악을 소개하는 열성도 보여 왔다.

"독일포교원 개원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유럽 불자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도 될 것이라 보입니다. 독일포교원을 통해 동산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독일포교원에서는 앞으로 명상과 염불선 수행 등을 중심으로 한 현지 맞춤 포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충남지방청 불교회 임연빈 회장



"회원들이 신행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에 취임한 임연빈(51 · 경리계장) 회장은 회원들의 신행활동과 화합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기법회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고 이웃종교 모임과도 교류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경승도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 충남청 불교회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시절 불교와 인연을 맺은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당진경찰서에 불교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 포교에 힘써왔다. **혜철 충청지사장**

[바로잡습니다] 675호 대구 청량선원 관련 기사 중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특강을 연다' 에서 '비구니 스님'을 '비구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허운 스님 초청 법회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회장 정일태)는 4월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허운 스님은 "불자언론인은 목탁과도 같아 지역 포교와 불교 언론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언론인 스스로 수행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진흥원 조계종에 봉축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4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는 "올 부처님오신날은 종교를 떠나 나눔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충북 조계종비구니회 공주 금강원 방문



충북 조계종비구니회(회장 묘정)는 4월 10일 노인요양시설인 공주 금강원(관장 정관)에 지원금과 간식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묘정 스님은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무량종 창종 9주년 및 본산 창건 기념법회



대한불교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4월 13일 총본산인 하동 칠보정사에서 창종 9주년 및 본산 창건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대행 총무원장인 혜안스님과 종단 임원 및 각 종단 지도자 등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했다.

동대사 개원 및 관음존상 봉안 법요식



대구 동대사(주지 도산)는 4월 15일 관음전에서 사찰 개원식과 관음존상 봉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천태종은 대구 만촌동 우암사를 인수해 동대사로 재개원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디지털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각종 마이크 시스템(에코가능)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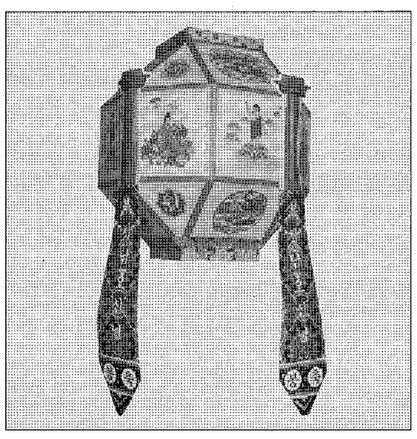
투원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2275-8079 H·P 010-8705-4288

Fax 02)2275-1242 [계좌 : 신한 110-229-849384 예금주: 최유창]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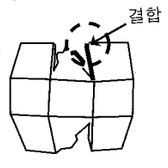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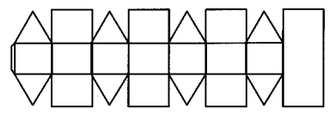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 (043)877-6464 팩스 : (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043)877-8236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장애인의 날 특집 **불교계 장애인복지관 활동현장을 가다**

사회적으로 '차별'은 늘 소외를 만든다. 장애인에게도 그 차별적 시선은 늘 있어왔다. 사회가 발전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 4월 20일은 제28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은 법적 제제를 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이 좋아져도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함께 행복한' 사회는 꿈에 불과할 것이다. 인식의 변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불교계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활동현장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의 노력으로 뜨겁다.

"'지하철 혼자 타기' 어렵지 않아요"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탐방·안전교육

"여러분도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몇 가지만 알아두면 말이에요."

4월 16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역장 김재신).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몇 무리를 지어 역사로 들어서자 역무원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이날 상월곡역을 찾은 '빨간 옷 군단'은 상월곡역 인근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의 직업재활 훈련생을 비롯한 이용자 50여 명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4월 14~22일 장애인 주간으로 선언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행사가 4월 14~17일 상월곡역에서 진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탐방 및 안전교육'이었다. 교육은 역무원들이 직접 나와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형식으로, 10분 내외로 진행됐다. 짧은 교육이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인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일단 장애인들이 선로에 떨어진다면? 지하철이 다니는 철로 안쪽 옆을 살펴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쪽으로 먼저 피했다가 지하철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역무원 또는 다른 승객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또 만약 보호자를 잃어버리거나 길을 못 찾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 역내를 살펴보면 빨간 'SOS' 간판을 볼 수 있다. 이 표지판을 찾으면 그 밑에 긴급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서 역무원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미아가 됐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역무원을 찾아 신고하면 역무원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역에 연락을 해서 인상착의를 설명, 보호자를 찾아준다. 보호자가 장애인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무원에게 바로 신고하면 된다.

이날 딸 정아(28 · 가명)씨와 함께 온 김명숙(56 · 가명)씨는 교육을 들으며 "항상 딸을 잃어버리게 될까 노심초사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육을 맡은 상월곡역 이병돈 선임주임은 "지체장애인들은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기계에 끼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적장애인들은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 또는 도우미들의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실 이날 교육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관계자들은 "이번이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 이동 교육을 처음한 것이라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병돈 선임주임은 "상월곡역 주변에는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몇몇 있어 장애인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 중 하나지만 아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게 사실이다"며 "2017년까지 우리 역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모든 역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동교육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휠체어리프트 사용법'이 담긴 매뉴얼도 함께 배부됐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을 오갈 때 필요한 내용인데, 기존 매뉴얼이 없어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이날 행사 의미는 '일회용'이 아니라는데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지만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이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 스스로도 계속 부딪쳐보고 어떤 점을 사회에 요구해야 할지 찾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하철 안전교육부터 받는 것이 장애인들 스스로 바로 서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직접 사회를 체험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성북장애인복지관 방수정 팀장은 "우리 복지관에서는 앞으로 상월곡역과 협약을 맺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지하철역을 작업재활반 장애인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 역에서 진행된 지하철 안전교육에 참여한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 이날 교육을 통해 이들은 사회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장애인들도 우리 이웃이에요"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 개선 교육

"휠체어가 지나다니는 것은 많이 봤지만 직접 앉아보기는 처음이에요."

"막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기만 하다 직접 앉아보니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다. 어깨동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지역 복지관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천태종 복지재단 산하 충북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시용)도 4월 15일 단양 매포초등학교 강당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들이 장애인에게 가진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터. 그래서 이날 교육은 장애체험을 위주로 진행됐다. 즉,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불편함에 대해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경험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말이 맞았다. 아이들은 장애인들도 휠체어와 같은 보조장비들만 있으면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편 같은 날,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제로 한 학부모 강의가 열렸다. 강연 강사는 영주초등학교 권오중 교장이었다.

권 교장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애를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도 될 수 있다는 의식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말고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개관 10주년 맞은 강북장애인복지관

'맞춤형 복지'로 내실 키워

불교계 대표 장애인복지기관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성산)이 10주년을 맞았다. 요즘 10주년 행사와 함께 장애인의날 '특집' 행사를 진행하느라 복지관 직원 38명 모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4월 15일부터 10주년 기념 주간 '더불어 행복하게'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 첫 무대는 청와대였다. 이어 16일에는 체육대회, 17일에는 기념세미나 '뇌졸중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접근방안'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4월 22~24일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멀지 않은 롯데백화점 미아점을 찾아 '나눔의 바자회'에 참여, 장애인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펼쳤다. 사진은 4월 17일 10주년 기념식 모습.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998년 3월 구립시설로 설립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했다(현재는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운영지원사찰이다). 교계에 벤치마킹 사례가 없었음에도 개관 첫 해부터 심리·물리치료 등을 비롯해 실직가정지원사업, 장애·비장애인 청소년 통합 여름방학 프로그램, 직업재활사업 등을 실시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사실 장애인복지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 정신지체장애와 지체장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각각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복지영역이다. 이 부분을 강북장애인복지관은 놓치지 않았다. 즉,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놀이·음악·미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어나가고 있고 성인 및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바깥나들이와 함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살맛나는 댄스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왔다. 더 나아가 요즘은 장애인 영역 중에도 다소 관심이 덜한 여성장애인과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이용자'에 충실했다는데 있다. 강북지역에 1만 2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복지관 자체에서 꾸준히 욕구조사를 실시, 어떤 것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한지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200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성산 스님은 "앞으로도 사람사이의 따뜻한 정이 흐를 수 있도록 성심껏 일해 지역사회 모두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불자의 채식은 '의무' 아닌 '선택'

해외불교칼럼

'불자는 반드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의 여성전문사이트 벨라온라인의 편집장인 제닛트 스털링 보살님이 지난 4월초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 글을 소개한다. 한국불교와 정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진솔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채식과 육식이라는 분별적 사고에 대해 미국인 제닛트 스털링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사진은 한국의 사찰음식 재료. <현대불교자료사진>

우리 불자들은 하나같이 어느 생물도 해쳐선 안 된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불자라면 이미 채식주의자거나, 또는 이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스님들과 많은 불자들이 채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자들이 무조건 고기는 먹지 말고 푸성귀만 먹어야 한다고 우기는 건 현실을 외면한 아둔함일 수도 있어요. 저는 신체조건상 땅콩,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를 전혀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채식만으론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가 어렵고 건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잘 아시듯, 고기든 푸성귀든 모두 소중한 먹을거리죠.

어떤 이들은 모든 생물도 우리 인간처럼 당당히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므로 절대 해쳐선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동물이 그러하듯, 풀이나 뿌리, 열매 등 식물 역시 살아 숨쉬는 생명체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먹을 수도 있도록 그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이처럼 우리에게 내어준 동물과 식물에 대해 우리는 늘 경건한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룩한 희생으로부터 얻어 받은 우리의 건강과 풍요를 또 다른 생명체들에게 두루 나눠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나눔과 보살핌의 마음을 지닌다면 그 누가 육식이 오계(五戒)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단언하겠어요? 소승불교에선 스님은 자신을 위해 도살되는 동물의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봐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건 그 분들에게 몹시 가혹한 카르마가 아닐 수 없어요. 기원전 1세기 경 팔리어로 쓰인 소승장경은 붓다께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바친 육류를 더러 섭취하셨다고 전하죠. 그런데 팔리어 대승경전에는 그런 사실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듣기론 소승보다는 대승불자 중에 채식주의자가 더 많다더군요.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불교에선 채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마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아닐까요?

소승, 대승과 더불어 불교의 세 개의 큰 줄기로도 알려진 금강승(金剛乘), 곧 티베트불교는 희생의례를 포함해서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선지 그곳의 법우들은 채식의 강박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요. 아잔 자가로 스님께선 '불교와 채식주의'라는 주제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채식의 여부보다 더 우려되는 건 지나친 고정관념이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죠. "어떠한 사안이든 그에 대해 극심한 고정관념의 틀을 짜고 우리 스스로 그 속에 갇히는 건 매우 염려스럽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더욱 굳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처럼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는 일반사물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내 뜻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으면 내 뜻을 거스르는 적으로 여기는 바와 같다." 참 옳은 말씀이죠? 그럼 마저 들어보세요. "무조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의 적이라 여기는 것이 바로 흑백논리다. 그건 이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극단적 사고로 치닫는다. 이는 우리 불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경계해야 할 그릇된 심성이다.

일찍이 붓다세존께서는 그 어떠한 견해와 관점에도 매달리지 말라 이르셨다. 모든 번뇌와 고통은 그러한 집착에서 비롯한다." 이제 끝으로 우리 불자님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채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뜻대로 하세요. 그건 사람마다 알아서 선택할 일이니 옳고 그른 게 따로 없겠지요."

출처: Buddhism and Vegetarianism
편역: 성휴 스님

"스타의 행동은 곧 전법공덕"

얼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 시걸 ❶



"할리우드 유명 불자(Hollywood Buddhist Biggies)라 불리는 거물급 인사들이 특히 최근 들어 줄을 잇는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저기서 자주 물어오는 똑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똑같을 수 없다.

그들의 성장배경과 교육 정도, 그리고 품성과 재능 등이 손가락의 지문처럼 각각 다를뿐더러, 불연(佛緣)으로 이어진 카르마의 실마리도 형형색색 다를 터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할리우드 스타들 역시 여느 중생처럼 내면에 불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자신의 불성을 찾게 된 계기가 다를 뿐이다. 합기도 등 각종 동양무술의 달인인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은 16세때 일본으로 떠날 즈음에 거의 불자였고, 영화 '쿤둔'의 스콜세지 감독은 작품에 몰두하던 중 '물질을 넘어선 불교의 정신세계'에 감화되어 뒤늦게 불문에 들어섰다.

영화 '리틀 부다'의 베르톨루치 감독은 기독교적 독선과 물질문명의 한계를 불교철학을 통해 극복했다고 술회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 전법사인 조지 루커스 감독과 올리버 스톤 감독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처럼 어떤 이는 번뇌의 먼지를 떨어내고서 여태 자신 속에 감춰져 온 불성을 찾아내고, 또 다른 이는 탐욕과 망상의 진창 속을 허우적대다 어느 순간 자신이 붓다임(Buddhahood)을 문득 깨우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방편과 과정으로든 제도(濟度)가 되어진 그들을 '길벗', 불가에서 쓰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인 도반(道伴)이라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탐진치 삼독이 온몸에 퍼지도록 미망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무명의 중생도 있다.

그들 또한 길벗들이 등에 업고 가야 할 '어려운 벗들'이다. 여러 갈래의 길을 따로 걷던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제 하나둘 한길로 들어서 길벗이 되어 가는바, 그들이 하는 일 또한 하나다. 즉, 어려운 벗들을 올곧고 고운 길로 함께 데려가는 중생제도다. 영화감독, 배우, 가수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듯 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하는 대중전법의 파장 또한 강력하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법공덕이다.

배우를 그만 두고 출가까지 생각하는 '할리우드의 대법사' 리처드 기어는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에 출연했던 여배우 골디 혼 보살과 함께 달라이 라마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개최된 '과학과 현대가치체계'란 불교적 주제의 국제세미나에도 참석하는 등 지극한 불심을 보인다.

여배우 샤론 스톤 보살은 자신의 저택을 불화와 불상으로 장엄하여 평안함을 구하며, 올랜도 블룸 거사는 자신의 빌라에 모신 불단 앞에서 매일 명상과 염불을 한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키아누 리브스, 텔레비전 드라마 '댈러스'의 배우 패트릭 더피, 그리고 스티븐 시걸에 못잖은 액션스타인 장 클로드 반담과 제트 리(李連杰) 거사 등도 불교도반들이다. 그런가 하면 그룹 '비스티 보이스'는 불교의 고매한 이상을 찬양하는 보살의 서약(Bodhisattva Vow)이란 랩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티나 터너 보살, 제니퍼 로페스 보살을 비롯해 제시카 랭, 조디 포스터, 산드라 블록, 수잔 서랜든 여류 메가 스타들도 불연을 맺었으나 더 이상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다.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막판뗄이 장터에 벌려두고 소란을 피우는 따위의 초조함을 지닐 까닭이 없다. 다만 할리우드의 메가 스타들이 어느 미개인의 땅에선 '악마의 저주'라 일컫는 불교에 왜 다가서는지? 명예와 재산 등 부러울 게 없는 그들이 왜 이른바 '불신지옥행 이교도'가 되어 가는지? 그들의 담담하고 고운 불연을 한 올 한 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할리우드 도반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무조건적이며 무한대의 자비공덕을 소상히 알리고 싶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절이며, 나의 자비가 곧 나의 종교'임을 나 또한 그들처럼 굳게 믿기 때문이다.

성휴 스님

中 "티베트독립군 자살테러 모의" 발표

티베트 정부 "사실무근" 반박

4월 1일 중국공안부장 우허핑은 "티베트독립군'이 티베트분리 독립투쟁의 일환으로 자살테러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동 자살공격대가 유혈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극렬폭력집단으로 티베트망명정부가 베이징 올림픽과 때맞춰 배후조종하는 '티베트인민 봉기운동'의 일환이라 주장, 최근 공안당국이 수색 압수한 총기 176정, 폭약 3만 5000 kg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3월 10일부터 티베트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여 티베트인 등 14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소요사태도 '달라이 라마 도당의 사주'라는 그의 발표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 즉각 반박했다. 이어 4월 12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현 티베트 사태는 종교와 인권이 아니라 통일된 주권국가의 분열위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BBC, 신화통신, NBC

英 사이먼 거사 런던마라톤 출전

런던 불교센터는 4월 13일 동 센터의 시갤러와 사이먼 거사가 '숨 쉬는 공간 프로젝트' 및 정신치료 자선단체인 '마인드'의 설립 기금을 마련하고자 런던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거사는 수년전 독거정진을 할 때 40세 이전에 마라톤을 뛰려했던 꿈을 이루게 됐다며 기뻐했다. "우리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를 위한 휴게실, 독서실, 식당 등을 갖춘 건강복지센터도 런던 불교센터 설립 30주년인 금년 말까지 확장 완공할 겁니다."

출처: LBN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f anything goes wrong, shout Buddha!"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부처님!"을 외쳐라



A rookie paratrooper 'Pumpkin' was deadly scared to jump. His instructor 'Asura' assured him, "If anything goes wrong, shout aloud, Buddha ! Oh, my Lord Buddha' and you will get saved, got it?!" "Yes, sir!" And 'Pumpkin' jumped out, but got so scared and forgot to pull his rip-cord. So he yelled out, "Buddha! Oh, my Lord Buddha!" And a hand came out and saved him. Safely dropped on the ground, he smiled, "Oh, thanks God!" Having heard this later, Asura chuckled, "Haha, good enough! You got saved anyway."

고공낙하훈련의 신병 '호박'이 겁을 잔뜩 먹고 못 뛰어내리자 '아수라' 조교가 안심을 시켰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이라고 힘껏 외쳐라! 그러면 안 죽는다, 알겠나?!" "네!" 호박이 뛰어내리긴 했는데 너무 무서워 낙하산 방출 끈을 잡아당기지 못한 채 마구 소리를 질렀다,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그러자 어디선가 손이 나타나 그를 구해줬다. 안전하게 땅에 내려온 호박이 씩 웃었다.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중에 그 얘길 들은 아수라조교가 껄껄댔다. "하하, 거 좋지! 어쨌거나 살아났잖아!"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구화산 지장도량, 보타산 관음도량 에서

기도의 원만성취! 5박 6일의 일정으로 최저의 경비로!!
가장 큰 기도성취를 이루고자 목탁 큰스님과 함께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보타산 → 상해 → 인천

▸행사 특별경비 : 99만원 ▸일시 : 5월 17일 출발 선착순 여분 9명





예스 굿 투어는 미안마를 비롯하여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저의 부모님을 모시듯이 효도하겠습니다.

최상의 불교전문 여행사 예스 굿 투어 02-365-7747. 011-9039-1239





쿨런그린마라톤 대회 참가한
한국불자마라톤 동호회 표정

禪과 달리기는 하나! 한마음으로 달려요~

2005년 불교와 뛰는것 좋아하는 이들이 함께하기 시작
'수행 열심히 한다' 소문에 몇몇 회원들 TV에 소개도 돼

"가만히 서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출발 직전까지 계속 움직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진행자의 준비운동 구령에 노랑, 빨강, 파랑 형형색색 복장의 인파가 일렁인다. 제자리 뛰기를 하는 사람, 목과 어깨를 돌리는 사람, 팔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통통 튀는 사람 등 옷색깔 만큼이나 움직이는 모습도 가지각색이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완연한 봄날, 파주 임진각에 1만2000여명이 모였다. 4월 13일 열린 제1회 쿨런그린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마라토너들. 그 중 한 무리의 등판에 쓰인 '주선일미(走禪一味)'와 동자승 캐릭터가 눈에 띈다. 한국불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 회원 20여명이다.

한국불교마라톤동호회(이하 한불마)는 2005년 3월 5일 창립됐다. 이용권, 이재정, 공훈배 등 마라톤을 좋아하는 불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던 것. 창립 후 2005년 3월 13일 동아국제마라톤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곳이면 한불마 회원들은 달렸다.

한불마는 현재 70여명 회원이 다음 까페(cafe.daum.net/hsjung1959)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선 회장(50 · 관세사무소 근무)은 "한불마는 불교를 좋아하고 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한불마 회원들은 대회마다 평균 20여명 회원들이 참가하며, 매주 수요일 저녁 남산에서 훈련을 한다. 달리기 힘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사찰에서 철야정진을 하며 신심도 다져왔다.

한불마 회원들의 등마다 쓰인 '주선일미'는 '선과 달리기가 하나'라는 뜻. 창립법회 때 총무원장이던 故 법장 스님이 준 문구다. 정해선 회장은 "깨달음을 목표로 힘든 고비를 넘기는 참선이나 숨이 넘어갈듯 한 고통을 참고 도착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이나 매한가지 아니겠냐"며 웃는다.

취미 삼아 참가하는 마라톤이지만 수준급 실력을 갖춘 회원들도 많다.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3시간 이내 완주하는 '서브3'급 회원만 4명이다. 하지만 달릴 때는 모두가 하나다. 초심자와 4시간이내 완주하는 '서브4'급 회원 등 각자 근기는 달라도 모두 한마음으로 달린다.



한불마 회원들은 신행생활도 열심이다. '자비도량참법기도' 등을 1년에 2~3회씩 한다. 열심히 수행한다는 소문에 SBS에서 '108배, 0.2평의 기적' 촬영 당시 몇몇 회원의 절수행이 소개되기도 했다.

김희춘(51 · 개인택시업) 회원은 차량에 금동불상을 모시고 다니며 포교활동을 한다. "개신교인이었지만 우연한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김씨는 홀로 불교공부를 하다 정법의 목마름에 조계사 사이버대학까지 다닌다. BBS 등에 한불마 홍보도 열심인 김씨는 "마라톤은 자기 고행이며 수행이다. 부처님을 스승 삼아 일생을 멋있게 살고 싶어 불교를 배웠고, 달리는 것을 수행인줄 알고 뛴다"고 말했다.

한불마 창립멤버인 윤정열(55 · 대한케이블 전무) 회원은 고교시절부터 사찰 청년회 활동을 해온 불자다. 하루 세 번씩 <반야심경> 사경을 10여년 가까이 해온 윤씨는 마라톤으로 자신을 다지며, 1만일 회향을 목표로 정진 중이다.

이선주(42 · LG전자 근무) 회원은 다이어트 삼아 뛰기 시작한지 2년여만인 올해 3월 16일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머리를 올렸다'(마라톤 풀코스 첫완주에 대한 표현.) "힘들었지만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어준 연태흠, 유청열 회원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밝게 웃는 이씨의 모습은 한불마 회원들의 캐릭터인 동자승을 닮아 있었다.

진행자의 선창에 맞춰 1만2000여명이 한목소리로 외친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탕!" 소리와 함께 봇물 터지듯 출발선을 박차고 달려 나가는 사람들 속에 동자승이 환하게 웃는다. '주선일미'를 실천하며 신심으로 하나된 불자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인들의 발걸음은 더없이 경쾌하다.

한국마라톤불자동호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해선 회장(010-5398-1279)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열심히
신축불사상담 1588-1936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제4회 경기북부사암 음악예술제

화암사지 화상의 화현 축제



경기북부사암 음악예술제가 양주시에 위치한 지장사 반야보탑 특설무대에서 4월 25일 열린다. 봉축 법요식을 시작으로 마당극, 합창, 무용 등의 음악극이 어우러진다. 고양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의 불교연합 합창단 공연이 펼쳐질 이번 예술제는 제4회를 맞이하는 지역 문화 축제이다.

눈에 띄는 점은 양주시 대표 유적지인 화암사지(禾巖寺址 사적 제128호)의 3대화상인 '지공' '나옹' '무학' 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사암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직접 출연하여 음악극의 형태로 선보인다고 한다. 귀중한 문화사적에 대한 인식과 복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다. 마당극의 1인자인 김성녀씨와 김종엽씨가 특별출연 하여 관객과 하나 되는 무대를 연출한다. 또한 비보이 그룹 '올스타브레이크스' 팀이 청소년과 어울림 한마당을 펼친다. (031)866-1888

가연숙 기자

해탈로 향하는 관문서 마음 담아

'山門에 서다' 展 4월 18일 부터



'입차문래(入此門來) 막존지혜(莫存知解)'

세간의 알음알이를 내려놓는 관문인 '山門'에 들어설 때의 마음가짐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사진이라는 시각언어로 전달하는 보운산 석왕사 사진포교예술단체 심상(心像)이 제19회 회원전을 연다. '공문(空門)' '무상문(無相門)' '무작문(無作門)'이라 불리는 진속(眞俗)의 경계에서 카메라 렌즈는 작가의 마음을 대신해 근원적 존재의 물음을 포착한다.

'山門에 서다' 展은 4월 18일 부천시청 아트센터를 시작으로 하여 23일까지 1차 전시를 갖는다.(032)320-2456. 5월 11일부터 12일 양 이틀간 석왕사(부천) 전시실에서 2차 전시를 갖는다.(032)663-7771. 5월 26일부터 31일 까지 싸이드림 포토갤러리에서 3차 전시를 갖는다.(02)2266-5923

가연숙 기자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인도문화와 불교가 활짝 피었다. 서울대미술관MoA에서 '인도 현대 미술:일상에서 상상까지 展'이 열리고 있고, 서울대박물관에서는 수요교양강좌 '불교미술-붓다의 세계를 보다, 그리다'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大서 만난 인도문화와 불교

인도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A. 라마찬드란' 'K.G. 수브라마니안' 'M.F. 후세인' 'S.H. 라자' 등의 작품이 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과 싱가포르 미술관이 공동 주최하여 이 달 25일까지 일정으로,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의 현대미술을 조명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인도의 전통과 모던적 이상들이 함께한 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상호작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림 위> 아추탄 라마찬드란(A.Ramachandran) 팔라쉬나무의 탄생, 캔버스에 유채, 1992.
<그림 아래> 아추탄 라마찬드란(A.Ramachandran) 색채3부작 2_오후, 캔버스에 유채, 2006.

더구나 실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은 아시아 철학과 미술의 주요 소재가 된다. 라마찬드란(A. Ramachandran)의 '팔라쉬 나무의 탄생'은 신화와 현실의 요소가 중심을 이루는 작품. 화폭에 구현된 자연은,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 무대 혹은 피난처가 되고, 신화적 세계는 작가의 모습으로 대변된다. 팔레트용 그릇과 붓을 들고 한참 작업 중인, 불꽃 모양의 오렌지 빛 머리카락을 지닌 상상속의 새는 작가 자신이다. 창조신(간다바, Gandarva)으로 표현된 신화 속 상상의 현실화는 한국 불교미술의 정토만다라에 나오는 가릉빈가(迦陵頻伽, 범어 kalavinka의 음역)와 흡사하다. 신화적 캐릭터는 일상과 신화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두 세계 사이에서 버팀목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경계 없는 소통은 소용돌이 형상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의해 강화된다.

라마찬드란의 '색채3부작' 중 두 번째 작품 '오후'는 연꽃을 소재로 했다. 연꽃은 인도 미술의 고전적인 모티브로 연꽃이 갖는 의미 또한 매우 풍부하다. 정신적인 순수, 초월, 깨달음, 여성적 법칙(陰), 수많은 꽃잎들이 서서히 개화하는 복잡한 구조, 지혜(Prajna), 자비(Karuna), 신들의 좌석 등의 의미는 연꽃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내 마음의 연꽃을 형상화하며 자연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구체화 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는, 생명과 그 근원의 뿌리가 되는 신화적 상상으로 확대 된다. 신화에 비추어 현재의 일상은 문화적 욕망이 되어 그림 속에 녹아 투영된다. (02)880-9504

1993년부터 시작된 서울대 박물관 수요교양강좌가 27회를 맞이하며 전통미술부 주관으로 불교미술관련 주제의 강좌를 처음 열었다.<도표참조> 일반 관람객의 호기심은 물론 학계에 전문 지식 전달을 위한 강좌로 총11회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서울대 출판부가 단행본으로 묶을 예정이다.

서울대 박물관 이주형(고고미술사학과 교수)부장은 수요교양강좌의 주제인 '붓다의 세계를 보다, 그리다'에 대해 "붓다의 세계를 '보다'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된 것이기에 종교가 형이상학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은 욕구 충족의 재현의 개념으로 다가갑니다. '그리다'란, 재현품으로써 물질성을 띄며 앞에 있지만 단순 그림(Painting)의 의미가 아닌 붓다의 가르침과 그 이상으로 현실 너머의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02)880-5333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일시	강좌명	교수
4월 23일	불화 속의 지옥	김정희(원광대학교)
4월 30일	임진왜란의 참화와 불교건축의 재건	이강근(경주대학교)
5월 7일	불화로 읽는 불교	정우택(동국대학교)
5월 14일	고려시대 불상과 중국 불상	정은우(동아대학교)
5월 21일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건축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5월 28일	임진왜란 이후의 불교조각	송은석(삼성리움박물관)
6월 4일	현세구복의 불교미술	강희정(서울대학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㊱ 머위무침



이른 봄 작고 부드러운 잎을 틔우는 머위는 더운 물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봄에 좋은 강장식이 됩니다. 봄철 나른한 몸과 식욕 부진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머위는 전국 각지에 자생하는 야생종으로 다년생의 숙근성 식물로 겨울철 지면에 꽃봉오리가 발생해서 초여름에 추대하여 꽃이 핍니다. 주로 잎자루를 식용으로 쓰며,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봄과 초여름에 이용되는 계절 채소입니다.

또한 머위의 크산신, 콜린 등의 성분은 각종 염증을 진정시키고 약품의 독과 식중독을 다스리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머위를 해독제로 널리 사용해왔습니다.

머위에는 갈변물질인 폴리페놀화합물이 있어 쓴맛이 강하므로, 요리에 앞서 물에 담가두어 쓴맛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해독효과가 가장 높아질 뿐만 아니라 들깨가 머위의 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을 곁들여 먹어도 해독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봄철 머위는 새순을 먹는 것이 가장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머위대가 크면 억세기 때문에 씹을 때 부담스럽고 흡수가 잘되지 않습니다. 조리할 때 반드시 겉껍질을 벗겨야 흡수가 잘 됩니다. 데친 뒤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물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연령 · 성별 · 체질 상관없이 감기 염증에 효과
약품의 독과 식중독 다스리는 탁월한 효능있어

연령과 성별, 체질에 상관없이 약효가 좋고 감기나 염증, 기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요법에서는 생선 중독에는 머위 잎과 줄기를 짠 즙을 마시면 효과가 있고, 벌레에 물렸을 때 머위 즙을 바르면 좋다고 합니다. 약재로 쓰기에는 머위의 꽃이 절반쯤 핀 것이 좋습니다.

머위 잎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한 비타민이 골고루 함유돼 있으며 칼슘 성분이 많은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머위무침 재료: 머위,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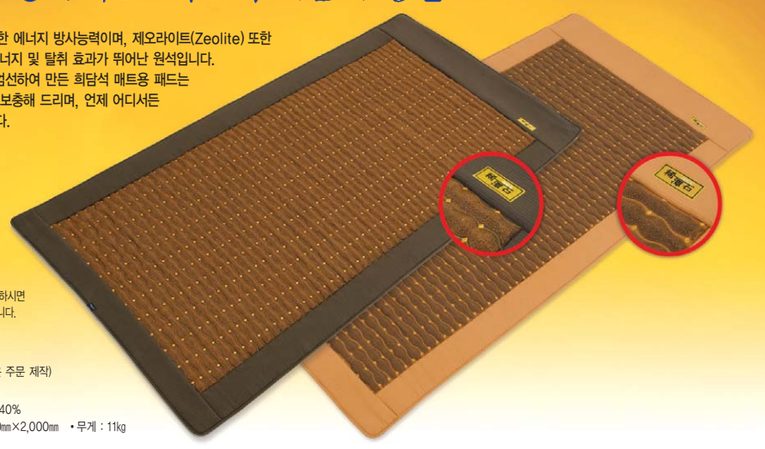
만드는 법

① 머위의 어리고 연한 줄기를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삶는다.
② 삶은 머위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꽉 짠다.
③ 고춧가루, 깨소금, 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④ 양념장에 머위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 후 참기름을 넣어 완성한다.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황토면 • 크기 : 1,000㎜×2,000㎜ •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45㎜

사용처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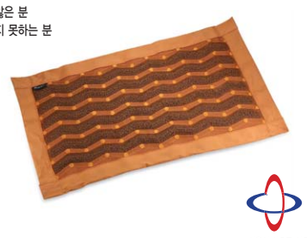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제품문의 011-9230-2335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페: 다음[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뒤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타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극단적 쾌락과 학대 사이 조화로운 중심점 '발견'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③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강사 : 황순일(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4월 16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첫 시간에는 붓다의 탄생에 관한 인도 문화와 환경이 지닌 다양성을,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가능했던 붓다의 탄생에 관한 강연이었다. 이번 강의는 붓다의 생애 세 번째 시간. 붓다의 출가와 수행을 주제로 한다. 강연을 맡은 황순일 교수는 초기 부파 불교를 전공했으며, 최초 불교가 어떻게 인도에서 발전되어 나왔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Noting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창조란 없다는 견해로 인도의 저변에 깔린 인도 종교의 세계관과 정신세계 그리고 브라만과 힌두의 전통 또는 육사외도(六師外道)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신흥 종교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 네가 흘리는 눈물은 인생 전체의 눈물을 바다에 비유했을 때 그 바다에 던져진 조약돌의 파장에 불과하다.' <쌍윳다니까야(잡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붓다는 왜 출가를 했으며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한문 텍스트의 전통에서 거론되는 붓다 출가의 원인은 '사문유관(四門遊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 보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한 교육 환경에서 자란 붓다가 19세에 이르도록 생로병사를 교육받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엔 억지가 있습니다. 히나야나(Hinayana, 대승에 대한 소승불교)에서는 불교적인 세계관과 가르침을 일반 신도에게 가르치는 도구로 붓다의 일생을 활용합니다. 붓다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체계로 완성되는데는 700여 년이 걸렸습니다. 기원전 480년을 붓다의 열반이라고 했을 때 완벽한 결말로 완성된 것이 기원 후 약 200년경입니다. 그 사이의 기나긴 시간의 터울 동안 각고의 윤색이 이뤄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붓다의 탄생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당시 뛰어난 브라만이 말하길 '이 사람은 인생이 둘 중 하나인데, 32相의 기호(mark)를 지니게 되며, 뛰어난 전륜성왕이 되거나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숫도다나왕은 아들이 종교인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갖은 방법을 모색하며 최고의 행복만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왕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보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을 보고 사람은 탄생과 동시에 모두 늙으며, 시체를 보고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을 알게 되며, 출가 수행자를 보고 인생의 방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인도와 같이 철저한 교육을 하는 문화권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과정이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나의 가슴으로 나의 일로 느끼는 계기인 것입니다. 실존의 자각을 느끼는 시점의 충격이 바로 '사문유관'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함도 괴로움의 일부입니다. 이 행복이 순간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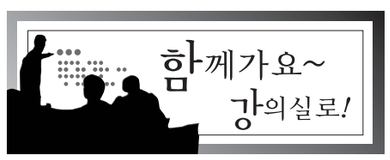
가장으로서의 책임문제는 어떠합니까. 혹자는 붓다가 그 책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 이상으로 궁극의 더 큰 실존의 자각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함이 더 큰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붓다는 확신합니다.붓다의 명확한 목표 의식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출가의 길을 떠나면서 붓다는 신흥 강국인 마가다국(왕사성)의 라자그라하에서 빔비사라왕을 만납니다. 붓다와 빔비사라왕은 협력의 약속을 하고 후에 샤르나트에서 죽림정사를 기증받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거처가 마련되면서 불교가 발전하는 초석이 마련됩니다.

자그마한 부족 국가에서 출가하여 홀로 도시로 나온 붓다는 직접적인 괴로움을 체험합니다. 사람은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서만 괴로움을 겪는 줄 알았는데 삶의 도처는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음을 자각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보여 지는 붓다의 인생을 무불상시대(無佛像時代)라고 합니다. 붓다의 탄생은 코끼리, 보리수, 설법은 법륜, 열반은 스투파(stupa, 塔)로써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인도 산치(Sanchi)에 가면 동서남북의 문에 우리나라 사찰의 일주문과 같은 '토라나(Torana)'가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경에 표현된 붓다의 출가 부조입니다.

붓다는 아쉬람(수행 공동체) 전통에 따라 최고의 스승을 찾기 시작했고 '알라라깔라마'와 '웃따까라마뿟다'를 만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집중 될 때 의식 상태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주의 최상으로 올라가는 의식수행 방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끝없는 윤회를 결코 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출가할 때 목표로 삼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지 우리 생애 주변에 만연한 괴로움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정각산으로 향합니다.



사문유관, 충격적 실존 자각·출가 계기
당시의 수행법 벗어나 깨달음 얻어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걸은 붓다는 호흡을 억제하는 수행을 합니다.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수행방식입니다. 고행자들에게 신체란 정신적 자유를 얻는데 방해물이었습니다. 우리 신체에 매달린 정신을 벗어나게 해 궁극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붓다의 고행을 <쌍윳다니까야>에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매번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신체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나의 팔 다리는 말라붙은 대나무 마디 같았고, 나의 엉덩이는 황소의 발굽 같았으며, 나의 돌출한 등뼈는 유리알 목걸이 같았고, 나의 갈비뼈는 스러져가는 움막의 서까래 같았다. 하지만 깊은 우물에서 반짝이는 물처럼, 나의 눈동자만은 안구 깊숙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6년간 궁극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붓다는 극단적인 쾌락과 학대 사이의 조화로운 중심점이 있음을 느낍니다.

초기불교 경전은 붓다 당시의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을 육사외도라는 이름으로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이나교'와 '아지비까(ajivika)'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이나교를 대성시킨 인물인 니간타 나따붓따(Nigantha Nataputta)는 극단적인 고행과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강조했습니다. 자이나교는 인도 이슬람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종교입니다. 자이나교는 일체에는 영혼이 있다고 여깁니다. 까르마(Karman)는 윤리적 개념이 아닌 물질적 개념입니다. 인간은 까르마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영혼에 달라붙은 먼지의 행위 입자들을 제거할 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자이나에 의하면 선하거나 악한 모든 행위는 필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해탈로 이르기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굶어 죽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언급합니다.

주로 크샤트리아 계급에게 선호됐던 '아지비까'의 창시자는 막깔리 고살라(Makkhali Gosala)입니다. 숙명론자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항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는 까르마의 개념이 있어서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와 같은 업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지비까'는 윤회는 믿지만 까르마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괴로움이 번갈아 오는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살아가는 나체 수행 집단입니다. 불교는 '아지삐까'를 부정합니다. 까르마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에 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불교 경전의 도처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악역으로 '아지비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윤회와 행위에 대한 관념이 명확히 확립된 인도에서 붓다는 실존의 자각을 위해 출가했습니다. 붓다는 우리 의식의 변형 상태에서 최상의 우주를 체험했습니다. 육체야 말로 깨달음의 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고행의 길도 걸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윤회의 원동력인 번뇌를 잠재우는 수행으로써의 불교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본지 674호와 675호의 본 지면에 소개된 권기현 교수(위덕대)의 강연 내용은 녹취를 기본으로 압축·재구성 과정에 현장 강의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은 2006년 4월 4일 부로
사용한 총무원장 직인과 종단직인을
공증받아 공고합니다.


종단직인


총무원장직인

현재까지 공증된 도장으로 모든 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갱신기간이 경과하여도 갱신을 하지 아니하셨거나 승려증, 사원등록증, 임명장에 현재 공고하는 도장이 날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아래 갱신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갱신기간 : 2008. 4. 21 – 2008. 5. 21
문 의 처 : 총무원 (02)735-0501~2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총무원장 향운

봉인사 사마타 위빠사나 5월 집중수행

"왜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왜 가르치셨는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열반)을 얻는것이며, 생로병사의 고통인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 시 : 1차 : 5월 1일 ~ 5월 10일
2차 : 5월 13일 ~ 5월 22일
3차 : 5월 25일 ~ 6월 3일
(입실 오후 5시, 퇴실 오후 1시까지)
■동참금 : 10일, 30만원
(환불은 프로그램 시작 3일전까지 가능)
■준비물 : 좌선하기 적합한 편안한 옷, 슬리퍼,
우산, 개인용컵, 개인 세면용품및 필기도구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봉인사 홈페이지(www.bonginsa.net)
접속 후 명상코너 템플스테이 예약게시판 이용 전화 접수합니다.
■연락처 : 031)574-5585, 528-558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봉 인 사 한 길 정 진 원



행 자
모 집 (예비스님)

◆자 격 : 건강한 남자 50세 이하
학력제한 없음
◆수행공부 모든지원
◆6개월 교육 후 수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1통
· 신원확인서 1통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
· 부모, 형제 동의서 1통

경북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 17-1
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종 무 소 054)541-6753,541-6750
회주스님 010-8819-8988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계환 스님 지음|민족사 펴냄|9500원
불자들이 흔히 접하는 경전들의 기본 구조와 내용 등을 아주 쉽게 요약했다. <화엄경> <금강경> 등 48가지 경전의 성립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된 경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경전을 해설한 글들이 갖는 한계는 속맛을 보여주지 않고 겉모양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국대 교수로서 강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온 계환 스님이라면 그런 단점에 대한 걱정을 놓아도 된다. 2000년 <경전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냈던 책을 새롭게 수정 보완했다.

인물불교사 김정빈 글|최병용 그림|솔바람 펴냄|9600원
만화책이다. 부처님과 한 시대를 살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0대 제자를 비롯해 중국의 고승들과 한국의 선지식까지. 불교를 이끌어 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림과 간결한 글로 구성했다. 위대한 스승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들의 전기를 통해 감동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일화를 보며 가르침을 받는 일도 즐겁다. 불교사를 지탱해 온 인물들의 생을 들여다보는 재미는 만화라는 방법에 의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성경에도 색즉시공이 있다 박규현 지음|열린길 펴냄|1만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가 <반야심경>을 해석한 책을 냈다. 그리고 제목에는 '성경'이란 단어가 들어 있다. 언뜻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책을 접하지 않으면 영영 답을 얻지 못할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책은 <반야심경>의 대의를 설명한 것이 줄거리다. 거기에 성경과 비교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반야심경>과 성경이 갖는 문자의 공통성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눈으로 본 우주와 인생을 얘기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기도의 비밀 정담 스님 지음 |수미산 펴냄|1만 5000원
북한산 관음정사 주지 정담 스님이 수행하며 느낀 기도의 '비밀'을 담았다. 행복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정담 스님은 현재의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은 미래의 행복을 차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스님은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바로 집착을 놓아 버리고 "부처님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당부한다.

새싹 불자 눈높이 동화로 바른 마음 키워가요

조계종출판사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外 3종
교계 최초 유아용 동화 경전 시리즈 선보여



"중도(中道)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고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게 된다. 적당하게 넣어야 음식 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중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조계종 출판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 3권을 선보였다. 아이들을 위한 부처님 이야기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과 어린이 백유경 시리즈 1 <광대와 화가>(최가민 글 · 박지매 그림) 그리고 어린이 백유경 시리즈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최가민 글 · 혜경 그림)다.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작가인 이슬기씨가 재구성한 부처님의 일생이다. 그동안 어린이 불자들에게 위대하고 거룩한 분으로만 여겨진 탓에 막연하고 어려웠던 부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그렸다. 부처님의 전생을 시작으로 하여 탄생, 출가,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행로를 안내한다.

특히 싯다르타 왕자가 진리를 찾아 떠나는 길의 대목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 더 큰 사랑의 구현을 위한 왕자의 다짐이 조리있고 진실되게 구성된다. 읽는 어린이들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왕자의 결심에 자연스럽게 공감하도록 한다. 부러울 것 없는 왕자에서 평범한 수도자의 신분으로 스스로 낮음을 선택했던 부처님인 것이다. 수행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도 어린독자에게는 흥미진진하게 다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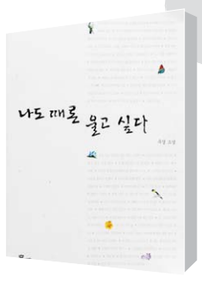
<광대와 화가>는 좋은 생각을 하면 실제로 좋게 보인다는 교훈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왕의 비단 옷을 훔친 도둑을 현명하게 재판한 왕의 이야기를 부처님의 대기 설법 일화를 빌어 재미나게 그려냈다. 5세기경 인도의 경전 <백유경>의 98개 우화 중 하나를 동화책으로 역은 것이다. 읽는 재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질감의 오브제 기법으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어린이 창의력 향상에 도움은 물론 왕의 지혜와 도둑의 어리석음은 큰 교훈을 안겨준다.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부처님. 우리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이란, 모두가 행복하게 착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부처님의 자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게 된다. 더불어 부처님의 의지를 본받아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는다.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부처님의 지혜로움에는 선생님의 마음도 스며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스님과 재가자 간 간격 좁히고 소통하고 싶어"

'나도 때론 울고 싶다' 펴낸 주경 스님



나도 때론 울고 싶다
주경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1만 2000원

"임제 스님이 황벽 스님 입적 때 너무나 펑펑 우니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제 스님이 그랬지요, '눈물이 나는데 낸들 어떡하냐' 고요."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주경 스님이 최근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써내려간 글을 묶어 <나도 때론 울고 싶다>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그야말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제목이다. '우는 것'이야 말로 가장 자유로운 감정 표출. '스님도 외롭고, 울고 싶은 때가 있구나' 싶어 제목을 접함과 동시에 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일들이 스님을 그리 울고 싶게 만드는지 궁금했다. 스님은 "종단의 변화가 느릴 때, 그리고 수행에 진전이 없을 때" 가장 울고 싶다고 한다.

책장을 열어 보니 총 4장으로 구성돼있다. 1장 '나는 행복한 수행자'에서는 강원 · 선방 · 성지순례길 만행 수행 이야기를, 2장 '사랑, 아름다운 인연'에서는 속가 가족과 부석사에서 키우는 4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3장 '그리운 도반이야기'에서는 수덕사 행자 도반 · 해인강원 도반 · 동국대 불교학과 도반들의 일화를, 4장 '더불어 함께'에서는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를 각각 담고 있다. 특히 2장의 내용이 감동적이다. 종단일로 바쁜 종회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의,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형으로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은 '울고 싶다'지만 책 내용은 사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에 가깝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엿볼 수 있으니.



스님은 1993년 월간 <불광>지에 '물처럼 바람처럼'을 연재하면서 '글'과의 인연을 맺었다.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에도 연재글을 썼다. 끊임없이 대사회 활동을 하고, 포교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글과 공부에 대한 끈은 결코 놓지 않은 스님의 첫 번째 결실이 바로 <나도 때론 울고 싶다>다.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또 종단의 중책을 맡고 있는 스님으로서 이 책을 쓴 주경 스님은 글로써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다 말한다.

"세간과 출세간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스님과 재가자 간의 벽이 참 두텁더라고요. 스님과 때로는 자장면도 함께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과의 거리감을 확실히 좁혀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주경 스님은 <나도 때론 울고 싶다>를 통해 한 걸음 더 대중에게 다가간 것 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님이 어떤 활동을 할지, 또 어떤 글을 쓸지 기대되는 것이 아닐까.

김강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8	돈오선	월암	클리어마인드
9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10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반야심경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금강경 / 신심명 / 증도가 / 반야심경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환단고기 전5권
선가귀감 /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한글한문 (겸 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충원미[illegible]지


제천 청풍호 정방사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출판 기념 사찰문화답사

책향기를 따라가니

우리는 사찰에서 무엇을 보는가

정방사 절벽 딛고 선 탁트인 곳서 여유만끽
미륵사지 석등·석불 등 마음으로 살펴보기

4월 13일 충북 제천 정방사로 가는 길. 청풍호반(淸風湖畔)이라 불리는 이 풍경 좋은 길에는 춘풍가객들이 가득 하다. 이미 만춘(晩春)이라는 것을 알리는 듯 벚꽃은 가지에 그득하다. 꽃향기가 이끄는 대로, 책향기를 따르는 한 무리가 이 길 위에서 봄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계종출판사가 근래 내 놓은 책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의 저자 목경찬 불광담임교수와 그를 따르는 사찰문화답사단이었다. 이들의 이날 목적지는 제천 정방사와 충주 중원미륵사지였다.

정방사로 가려면 산길을 약 40분 남짓 걸어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는 힘차게 생장하고 있는 나무와 꽃, 들풀이 있다. 이런 산길, 이런 여유를 언제 느껴보았던가.

신라 의상대사의 제자 정원 스님이 창건했다는 정방사는 탁 트인 풍광이 멋진 곳이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좁은 터라 경내를 둘러보는데는 크게 시간이 필요치 않다.

정방사는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는 관음도량이다. 원통보전 옆으로 '유구필응(有求必應)'이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구하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지만 어딘가에 기대고픈 중생들에게 관음신앙은 포근한 안식처가 돼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절은 또 지장전이 특이하다. 지장보살상과 마애불 모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상의 모습도 여느 절 지장보살들보다 젊어 보인다.

전통 사찰은 대부분 산에 있다. 그래서 '산사(山寺)'라 한다. 산에 있는 절을 찾다보면 각박한 현대인, 다음 날 출근이 신경 쓰여 그저 빨리빨리 가고자하는 마음뿐이다. 이는 사찰을 찾아서도 마찬가지다. 쫓기듯 고개를 돌려가며 대웅전을 찾아 '삼배'를 올리면 임무 완수다. 우리는 '사찰'이라는 공간을 찾으면서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지도 모른다.

정방사를 둘러 보면서 잃어버렸던 '여유'에 대해 생각했다면 충주 중원미륵사지에서는 잃어버린 절터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된다. 교통 요충지인 하늘재에 자리한 탓에 여관으로 쓰였느니 병참 기지로 쓰였느니 아직 설이 분분하다.

이곳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미륵불. 6개의 돌 조각으로 이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이 미륵불의 얼굴에만 돌이끼가 끼지 않았다. 멀리서 보면 얼굴만 하얀 돌 색깔 그대로다. 또 미륵불의 '손'도 재밌다. 돌 덩어리가 이어지는 사이에 손이 있는데 손이 두 돌 조각 사이를 이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중원미륵사지를 찾으면 흥미로운 것이 꽤 많다. 거북바위, 온달장군 공기돌 등도 그렇지만 하늘재 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칠레 이스터섬에 있는 '모아이'를 연상케 하는 '미륵리 불두'를 볼 수 있다. 보는 순간 웃음이 나는 문화재다.

사실 중원미륵사지는 이제 거의 관광지로 개발되어, 옛 절터 특유의 고즈넉한 맛은 사라진 듯하다. 그래도 사람이 덜 붐빌 때 가보면 혼자서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는 '꺼리'가 많다. 때로는 미륵사지에서 뛰어노는 다람쥐 한 마리만 봐도 감동적이니.

답사를 마무리하며 목 교수가 말한다.

"사찰은 갈 때 마다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적어도 3~4번은 가 봐야 그 사찰을 진짜 봤다고 할 수 있지요. 사찰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이날 답사를 함께 하며 목 교수가 <사찰…>을 펴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사찰을 둘러볼 여유도 없는 불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다른 하나는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불자들에게 각 사찰 고유의 문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찰들에 대한 아쉬움. 그렇기 때문에 목 교수와 같이 '친절하게' 사찰을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절이나 절터를 찾을 때는 몸과 마음을 모두 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저 '어디 들렀다'는 만족감만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사찰을 찾을 때 좀 더 천천히 살펴보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저자 목경찬 교수가 추천하는 서울 근교 경치 좋은 사찰

은평구 진관사 행정구역상은 서울이지만 서울의 느낌은 거의 없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좋다. 그러나 등산로와 연결돼 있어 번잡함을 피하려면 평일 오후 4~5시경에 찾는 것이 좋다. 목 교수는 "조그만 계곡이 끝내준다"고 말한다. 마치 설악산의 한 부분을 옮겨 놓은 것 같다고. 또 하나, 진관사는 옛집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찻집도 좋다.

남양주 수종사 목 교수는 수종사를 '동방 제일의 풍광'이라 극찬한다.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이 사찰은 정방사처럼 걸어가야 참 느낌을 알 수 있는 사찰이다. 목 교수는 특히 "양수리쪽 부분이 정말 좋으니 놓치지 말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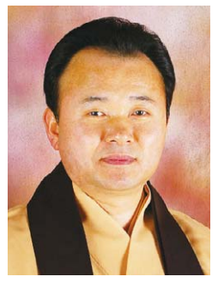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 불서 읽기 캠페인

실천보현행원
이종린 | 불광출판부 | 2003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호당 정사

"마음 바꾸면 부처님 삶 깨달아"

일상사를 성실히 사는것도 보현행원
진정한 대승보살 삶이 무엇인지 제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수식어를 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그 능력을 10퍼센트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니 말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진정 부처님의 삶이요 보살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책이란 우리들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가장 참다운 인위적인 도구요, 유위법을 깨우치는 가장 기초적인 방편이다. 모방은 창조를 열어가는 최고의 인연이다. 문자의 경(經)은 성현이 걸으신 발자취라고 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과 다름 아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면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난 듯 반갑고 감사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시공의 동질감, 즉 동업의 인연이 아니라면 감동을 주기가 어려운 것 같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만사천의 경전보다 더 좋은 책을 어찌 말할 수 있을까. 불서라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실천 보현행원>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낀 만큼, 다른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간을 떠나 출세간을 설하지 않았으며, 현실을 떠나 이상을 설하시지 않았다. <실천 보현행원>의 저자이면서 소아과의원의 원장인 이종린 선생은 이 책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생적인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이 시대의 유마거사처럼.

책에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그대로 수행이며 그 정점이 보현행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에만 집중하여 현실을 떠나 있었던 불교의 수행을 비판하고 출가하지 않아도 깨닫지 않아도 온갖 사연 가득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보리를 이루고 해탈을 이루는 모습을 말한다.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중생을 향해 일상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보현행원'이라 말하고 있는 저자…. 진정 동업중생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담아 독자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전달한다.

중생생활 속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삶이란 바로 마음을 바꾸면 되는 일! 재가불자로서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직장의 동료 등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하나 바꾸면 그것이 진정 은혜로운 관계로 만나 살아가는 부처님의 삶이다.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점을 일깨워 준다.

<실천 보현행원>은 이렇게 재가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대승보살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수리,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작명,법명,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타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수 비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정
• 정가 : 2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 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 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4장 조화(調和)④

면면밀밀하게 호흡해야 심신안정

初至繩床 卽須先安坐處 每令安穩 久久無妨 次當正脚 若半跏坐 以左脚置右脚上 牽來近身 令左脚指與右陛齊 右脚指與左陛齊 若欲全跏 卽正右脚置左脚上 次解寬衣帶周正 不令坐時脫落 次當安手 以左手掌置右手上 重累手相對 頓置左脚上 牽來近身 當心而安 次當正身 先當挺動其身 竝諸支節 作七八反 如似按摩法 勿令手足差異 如是已則端直 令脊骨勿曲勿聳 次正頭頸 令鼻與臍相對 不偏不斜 不低不昂 平面正住 次當口吐濁氣 吐氣之法 開口放氣 不可令麤急 以之綿綿 恣氣而出 想身分中百脈不通處 放息隨氣而出 閉口鼻納淸氣 如是至三 若身息調和 但一亦足 次當閉口 脣齒纔相拄著 舌向上齶 次當閉眼 纔令斷外光而已 當瑞身正坐 猶如龕石 無得身首四肢切爾搖動 是爲初入禪定調身之法 擧要言之 不寬不急 是身調相

처음 좌선하는 곳에 당도하면 우선 앉는 처소를 편안하고 안온하게 하여 그 처소가 오랫동안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리를 올바로 해야만 한다. 가령 반가부좌를 할 경우 좌측다리를 우측다리 위에 올리고 두 다리를 몸에 가깝게 끌어당겨 좌측다리의 발가락이 우측 넓적다리와 나란히 하게하고, 우측다리 발가락은 좌측 넓적다리와 가지런히 해야 한다. 완전한 가부좌를 하려고 할 경우엔 우측다리를 좌측다리 위에 올려야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옷과 띠를 느슨하게 풀고 자세를 두루 올바르게 하여 앉아있을 때 옷이 벗겨지거나 띠가 풀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손을 안정되게 놓아야 하는데, 좌측 손바닥을 우측 손위에 올려 두 손이 겹으로 포개진 상태에서 손을 마주하면서 좌측 다리 위에다 안치하여 몸 가까이로 이끌어 들여 심장과 일치하도록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몸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우선 앉은 자세에서 몸과 모든 사지 마디마디를 가볍게 움직여 주어야 한다. 대략 일곱, 여덟 번을 반복적으로 하되 안마하는 것처럼 하여 손과 발이 서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하고나면 자세가 단정하고 곧게 되는데, 척추는 앞으로 굽어서도 안 되고 너무 꼿꼿이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머리와 목인데, 콧구멍은 배꼽과 서로 일치시켜 좌, 우로 몸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머리는 앞으로 숙이지도 말고 또 위로 쳐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평면으로 올바른 자세로 안주해야만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입을 통해서 탁한 기운을 토해내야 한다. 탁한 기운을 토해내는 법은 입을 열고 기운을 방출할 때 거칠고 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일이 면면히 이어지면서 자연스런 상태로 토해 내되 상상 속에서 몸속의 모든 맥이 통하지 않은 곳이 내품는 호흡을 따라서 입 밖으로 나간다고 여겨야 한다.

그런 후에는 입을 다물고 콧구멍으로 맑은 기운을 들여 마셔야 한다. 이 같은 일을 세 차례 정도 반복한다. 만일 몸과 호흡이 조화를 이루었다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으로 입을 다물고 입술과 이가 서로 맞부딪혀야만 하며 혀는 윗잇몸을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는 눈을 감아야 되는데, 겨우 외부의 광선만 차단시킬 정도면 된다. 몸을 단정히 하고 올바로 앉은 자세는 마치 무덤 앞에 제물을 차리는 제석상과 같아야만 되며, 몸과 머리와 사지가 요동한 일이 없어야만 한다.

이것이 처음으로 선정에 들어갈 때 몸을 조화하는 법이다.

요점을 말하면 느긋하게도 말고 그렇다고 급하게 하지도 않는 것이 몸을 조화하는 모습이다.

四初入禪調息法者 息有四種相 一風・二喘・三氣・四息 前三爲不調相 後一爲調相 云何爲風相 坐時則鼻中息出入覺有聲 是風也 云何喘相 坐時息雖無聲 而出入結滯不通 是喘相也 云何氣相 坐時息雖無聲 亦不結滯 而出入不細 是氣相也 云何息相 不聲不結不麤 出入綿綿 若存若亡 資神安穩 情抱悅豫 此是息相也 守風則散 守喘則結 守氣則勞 守息卽定 坐時有風喘氣三相 是名不調 而用心者 復爲心患 心亦難定

수행인이 좌선할 때 몸을 조화한 뒤 호흡을 조화하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호흡은 콧구멍을 통해서 면면히 이어지면서 출입하는데, 여기에는 네 종류의 동일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풍(風)·천(喘)·기(氣)·식(息)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는 거칠고 미세하고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있다.

가령 수행인이 분명하게 분별해서 호흡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질없이 수고만 할 뿐 수행공부가 진전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친 호흡은 가려내고 미세한 호흡을 지켜야만 한다.

좌선 시 호흡에는 풍·천·기 등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호흡이 알맞게 조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만일 세 가지의 거친 호흡으로써 마음을 쓴다면 단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까지도 입게 된다.

수행인이 좌선할 때 가슴에 통증을 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은 모두가 호흡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도 안정되기가 어렵다.

若欲調之 當依三法 一者下著安心 二者寬放身體 三者想氣遍毛孔出入 通同無障 若細其心令息微微然 息調則衆患不生 其心易定 是名行者初入定時調息方法 擧要言之 不?不滑 是調息相也

좌선을 할 때 풍·천·기 등 세 종류의 거친 호흡상을 버리고 식(息)의 미세한 모습을 지키려면 마땅히 호흡을 흘륭하게 조화해야만 하는데, 이럴 경우 세 가지의 법을 의지해서 성취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몸 아래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수행자가 상상으로 모든 일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밖으로 치구하면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일심으로 하단전에 의식을 전일하게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신체를 느슨하게 하여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나치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상상으로 호흡의 기운이 전신에 두루 퍼지도록 몸에 있는 팔만사천 털구멍을 따라서 들이쉬기도 하고 혹은 내쉬기도 하면서 호흡과 몸 전체가 하나의 호흡으로 통하여 장애가 없다고 여겨야만 한다.

이상의 세 가지가 만족하게 갖추어진다면 거친 호흡으로부터 미세한 호흡으로 들어가 자연히 심신이 안정되게 된다.

가령 풍·천·기 등 세 가지의 거친 호흡의 모습이 없고 그 마음을 미세하게 하여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면면밀밀하게 이어지면서 거칠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다면 이것을 호흡이 조화된 모습이라고 한다.

호흡이 조화되면 일체 병환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도 안정을 얻기가 쉽다. 이것을 두고 수행자가 최초로 입선할 때 호흡의 기운을 조화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좌선때 호흡은 거칠거나 매끄럽지 않게 하고 몸의 자세는 느긋하거나 급하게 하지 말아야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선심소(善心所)

③무진심(無瞋心)

무진심(無瞋心), 즉 '증오 없는 마음'은 그동안 상대방을 증오하고 한스러워 했던 습기를 평소에 철저하게 살핌으로써 다시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고 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서로 간에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증오심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처음 싹틀 때 즉시 본심으로 되돌아가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김으로써 다시는 상대방을 상대적인 이해관계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은 자타의 차별을 떠나서 모든 사물들의 근본 주체가 되어 그 이치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고 발현하지 않는 것이 없어, 천하의 모든 사물들이 동일한 절대의 대아(大我)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습기 증오없는 마음 의지
우리의 본성인 자비 잃어선 안돼

그러나 평소 증오심이 지나치게 발동하는 중생의 경우에는 설사 자신의 증오심을 상대방에게 숨기려 해도 자신의 미혹한 증오심은 더욱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범부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성과 욕구가 끝없이 교전하게 되는데, 이럴 때를 당해선 반드시 '증오 없는 자비의 마음'을 의지해야만 미혹의 증오심을 이기고 서로가 다 함께 화평해 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본심은 천연적으로 밝은 이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밝은 마음의 이치는 반드시 청정한 습기를 의지해야만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평소생활에서 청정한 습기인 '증오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따라야 하며, 외부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증오심 때문에 우리 본성의 자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나와 하나의 자체로 평등시 하여 그 본성의 진실함을 끝까지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증오심이 없다면 그동안 대립관계를 이루었던 모든 낱낱의 사물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한 모습으로 자기화 할 경우 자기의 본성에 모든 공덕법을 갖추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동안 잘못되었던 무진심에 대치되는 세 종류의 진심, 즉 유정진(有情瞋) 경계진(境界瞋) 견진(見瞋) 등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자광 스님(용인 반야선원 조실)

몸은 바쁘더라도 마음은 한가해지세요

이 세상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으면서,
어쩌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온갖 것을 다 가지려 하는가?
혼신을 다하여 쌓아놓았던 것이 천만년 내 것인줄 알았는데
새 연이 다해감에 이 모두가 헛일인줄 알았네
무엇을 가져 갈고
무엇을 두고 갈고
생각 좀 해보세
참된 내 것이 무엇인지…"?"

-자광 스님 오도송 중에서-

"저는 포교형 인간입니다."

자광 스님은 자신을 이렇게 규정짓는다. 은사스님이 인정해주신 말씀이기도 하다. 자광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리산 화엄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경산 스님이 은사다. 은사스님의 포교 잘한다는 칭찬과 함께 군포교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스님은 1970년 군종 장교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종비생 1기이자 대령으로 예편해 스님으로 종단에 복귀한 희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군승장교들은 1983년 종헌종법상 취처가 허락돼 비구로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탐욕에 빠진 중생제도' 는 불교의 존재 이유
타인의 허점 들추기 전에 내 허물부터 봐야

25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종단에 하자점검을 요청했다. 비구승으로 오점이 없으면 총무원장스님이 상징적으로 재삭발 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렇게 하자점검이 끝나고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으로부터 재삭발 의식을 치르고 종단에 복귀했다.

자광 스님의 일주일은 바쁘다. 반야선원에 머무르는 날보다 외부 법회에서 법문하는 날이 더 많다. 군포교에 매진했던 경험을 되살려 경찰청 교도소 공무원불자회 등에서 지도법사 경승 등을 맡아 활동 중이다. 스님은 군포교에 대한 조언도 마다 않는다. 군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장병들을 돕고 마음의 양식을 주고, 어려운 일을 상담해주고 그 경험들이 축적된 경험자가 종단 내 군포교를 이끌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스님이 군대에 있는 동안 인연 맺은 이들이 반야선원을 찾아 참선을 지도 받고 있다. 예비역 장군, 前 시장, 국회의원 등 20~30명이 모여 매달 스님과 함께 참선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교는 모든 스님의 기본이자 사명"이라는 자광 스님은 요즘 종단이 수행만 강조하는 풍토로 치우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

"포교가 없으면 불교도 없습니다. 온갖 시련 헤치면서 포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마음공부도 더 잘 되고 수행도 되는 것이지요. 포교와 수행은 둘이 아니고 포교는 즉 수행입니다. 포교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자, 불교의 존재가치인 중생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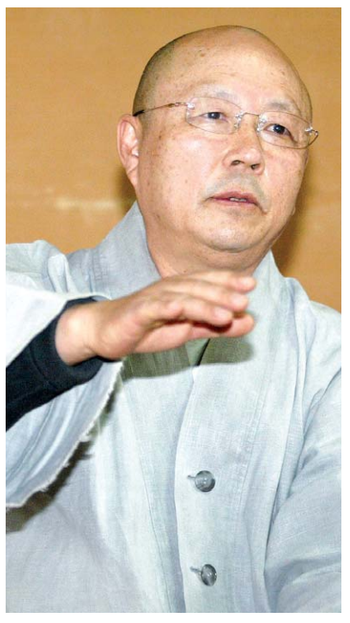
깨침의 세계가 좋다면 모든 중생에게 알려서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자광 스님의 포교원력이다. 중생들이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탐욕의 불길을 잠재워주는 것은 불교 밖에 할 수 없기에 스님은 포교에 더욱 힘을 낸다.

"스님들이 탐욕의 불길을 꺼줘야지 누가 끕니까. 중생들과 대화해봐야 어떤 불길에 휩싸여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45년간 팔만사천법문을 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에서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말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끊어진 자리, 문자가 끊어진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님이 포교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다. 틈틈이 참선도 한다. 외부 행사가 길어지지 않으면 하루 8시간씩 참선하는 것은 스님의 일상이다.

조계종에서 포살결계법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자광 스님은 더욱 철저해질 것을 요구했다. "계율이 망가져서 살다보니 포살결계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계율을 지키는데 거기에 무슨 방편을 둡니까? 행정승이든 선승이든 계율은 수행자의 기본이자 깨침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스님은 대승 소승계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인들의 근기에 맞도록 지혜롭게 계율을 활용해 포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불자들이 오계와 보살계를 잘 안 지키는 것은 모범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모두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 신도들이 왜 계율을 무시하겠습니까."

자광 스님의 설법은 계율에서 인연으로 이어진다. "인연법을 소중히 알아야 합니다. 인연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인연부터 돌아보십시오. 가족 일가친척 이웃 이 가까운 인연들에게 죄를 지으면 불행해집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삶 자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배려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끝까지 싸우면 해결될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면 문제는 끝나요. 간단합니다. 감정을 왜 얽히고 삽니까. 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갈등 속에서 사냐 말입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이 더 많은 법입니다. 자기 허물부터 생각하세요. 남의 허점 보이면 내 허물이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쁘게 허덕이며 사는 우리들에게 스님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몸은 바빠도 마음은 한가해지라"고.

자광 스님에게 틈틈이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일단 호흡을 제대로 해보세요. 한마디 할 때 생각 없이 내뱉으면 독화살이 나가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 호흡하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호흡이 잘 되면 몸이 심심하니 절을 하세요. 요즘 유행하잖아요. 절을 왜 해야 합니까. 내 업장 소멸입니다. 과거 다겁생에 걸쳐 지은 업들이 들은 똥주머니 쓰레기통이 이 몸입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몸속의 더러운 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야 이 몸뚱이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절을 하면서 입은 놀아 뭐합니까. 염불을 하세요. 한마디에 천 냥 빚 갚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실천을 함축하고 있고, 아미타불은 미래 행복을 기약합니다. 지장보살은 업보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호흡하고 매일 108배를 생활하고, 염불하세요. 이보다 좋은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광 스님의 다음 단계 포교 계획이 궁금했다. "난 이대로 살다 죽을거야. 지금처럼 포교하고 참선하고 사는 삶이 큰 계획이지, 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자광 스님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연신 발밑을 살핀다. "개미 죽이겠다"고 이리 저리 움직이던 스님은 결국 자리를 옮기고서야 사진촬영에 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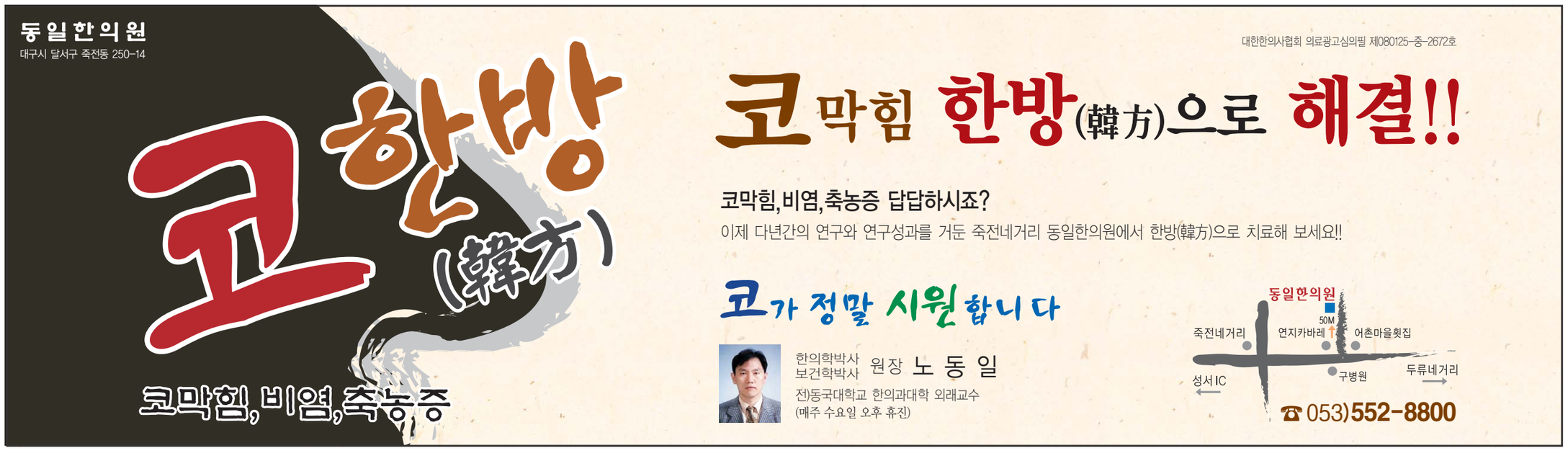
작은 것 하나 하나 세심하게 챙기면서도 소탈하게 신도들을 대하는 스님이 있어 반야선원은 더 좋은 참선터로 거듭나고 있었다.

글=강지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자광 스님은

1957년 화엄사로 입산해 1959년 손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화엄사 해인사 건봉사 상원사 등에서 참선 수행했다. 1963년 해인사 강원에서 사집을 수료하고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종비생 1기로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청소년 포교활동을 하다가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해 군포교에 임했다. 1977년 동국대에서 계율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 1980년 군승단장에 취임 군 포교예산 획득 및 포교 실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기독교 위주 예산 배정의 부당함을 시정했다. 1990년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1992년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1993년 국방부 군종실장에 취임해 군종장교 정원을 조정, 군승을 100여명 증원했다. 1995년 군승 대령으로 예편해 용인에 반야선원을 개원했다. 현재 반야선원 조실이자 용인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경기지방경찰청 지도법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 <신라 자장율사연구> <멍텅구리 부처님> 등이 있다.





에취~, 훌쩍훌쩍, 긁적긁적…

봄바람 타고 온 불청객 미워요~

봄철 알레르기 질환 원인과 예방법

모두들 꽃구경에 들뜨는 때, 봄꽃만 생각하면 흘릴 눈물과 콧물에 덜컥 겁부터 나는 사람들이 있다. 꽃가루는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예민한 사람에게 꽃가루는 눈이 붓고 눈물, 콧물과 함께 재채기를 유발한다. 피부에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킨다. 황사가 봄철 불청객이라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은 봄철 복병이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이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과 접촉할 때 나타난다.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포자, 약물, 음식물 등이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만 개인에 따라 원인물질이 다르다.
꽃가루가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꽃가루 알레르기라 한다. 꽃가루에 반응하는 신체기관에 따라 기관지가 반응하면 기관지천식, 코 점막이면 알레르기 비염, 눈 결막일 때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나타난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풍매화 때문

나무, 화초, 잡초 등 봄에 피는 꽃 가운데 나무 꽃이 가장 많다. 흔히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벚나무, 개나리, 진달래 등을 의심하지만 이것들은 벌 · 나비가 꽃가루를 나르는 충매화(蟲媒花)로 공기 중에 많은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다.

반면 바람에 의해 수정하는 풍매화(風媒花)는 꽃가루가 공중으로 날려 코와 기관지로 들어오기 쉬워 알레르기성 질환의 중요 원인이 된다. 풍매화는 소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참나무 등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장 흔해

꽃가루 알레르기는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 증상은 반복적인 재채기와 쉼 없이 흐르는 맑은 콧물, 코막힘 증상 등이다. 초기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세수할 때까지 증세가 심하지만 중증이 되면 하루 종일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악화되면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코가 가렵기도 하며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해 주의를 요한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코가 간질간질하고 갑자기 재채기를 한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코감기는 콧물과 코막힘, 가래, 기침, 두통 등의 증상과 열을 동반하는 것이 다르다.

비염 증세 악화땐 천식·아토피 동반하기도
수분·비타민 섭취 중요…면역치료도 효과

손성욱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알레르기내과)는 "알레르기 비염은 ▲회피요법 ▲대증요법 ▲면역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호흡 때마다 항원에 노출되므로 항원 침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되도록 꽃가루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증요법은 약물치료를 말한다. 생활 중 꽃가루를 피하기 어려워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로 효과가 좋아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약물 부작용은 주의! 재채기, 콧물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입마름증, 졸림 등 부작용이 있고 장기간 투여시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코막힘 증상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도 약물성 비만증, 소화기 궤양 등 부작용이 있다.

원인물질을 찾아 면역력을 기르는 면역치료는 치료효과가 가장 좋지만 2~3년여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주사를 맞거나 자주 내원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손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비염이 되기 쉽고, 천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조기 진료를 권했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한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여동현 원장(소중한몸한의원)은 "한방에서 비염은 폐의 기운이 허해서 찬 기운이 들어와 생기거나, 폐와 비장의 풍열로 쌓인 노폐물 등을 원인으로 본다. 증상과 원인에 따라 소청룡탕과 형개연교탕약이 처방되며,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치료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몸의 기운을 시원하게 해주고,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사람은 몸의 기운을 덥혀주는 등의 방법으로 면역안정을 도모한다.

여 원장은 "비염 치료를 위해 아로마 훈증, 생리식염수로 비강세척 등 여러 방법이 쓰인다"며 "폐기를 북돋아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이화(목련꽃 봉오리)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고 권했다.

한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꽃가루 농도 등을 미리 확인해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립기상연구소(www.metri.re.kr)는 '꽃가루 달력'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화분연구회(www.pollen.or.kr)는 '꽃가루 지수 위젯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말 주신 분 = 손성욱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알레르기내과), 여동현 원장(소중한몸한의원)〉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가능한 외출을 삼간다**=알레르기는 유발 물질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바람이 심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도 문단속 철저히 한다**=꽃가루가 심할 때는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물걸레로 자주 실내를 청소한다.

●**부득이한 외출 때는 준비물 철저**=외출할 때 꽃가루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는 필수다. 크림, 로션을 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만드는 것도 중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목까지 오는 터틀넥의 긴팔 옷도 좋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라면 렌즈 대신 안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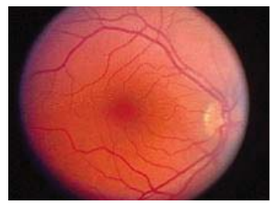
●**외출 후엔 반드시 씻는다**=외출 후에는 꼭 세안과 양치질을 한다. 여성은 클렌징에 신경쓴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더하니 보습제를 바른다. 입었던 옷을 털어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27. 당뇨와 관련된 눈 합병증

최근 생활패턴이 서구화 되면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성인 10명 중 한 명이 당뇨병에 노출돼 있고 매년 30만 명의 환자가 새로 진단받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출의 1/5이 당뇨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니 이제는 당뇨가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부담 또한 막대하다.

당뇨는 고혈당 자체에 의한 문제 보다는 당뇨와 관련된 다양한 합병증이 주로 문제가 된다. 대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 신부전 등을 떠올리지만 눈 합병증 역시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다. 당뇨로 인한 눈 합병증 중 가장 심각한 당뇨망막병증은 미국 성인의 가장 많은 실명 원인 중 하나이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전신의 미세혈관에 장애가 생긴다. 안구에서 시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인 망막의 표면에는 망막 혈관이 분포하는데 당뇨로 인해 망막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망막병증을 유발한다.

망막 허혈·신생혈관 녹내장 등 유발
적정 혈당 유지·망막 정기검사 필수

우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망막 허혈이 발생한다. 오랜 시간 망막 저산소가 지속되면 망막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혈관 외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게 된다. 이를 망막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신생혈관은 산소를 공급해 우리 눈을 보호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생혈관은 정상적인 혈관의 기능을 못하고 반복적으로 출혈을 일으킨다. 또한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와 망막에 삼출물이 쌓인다. 반복되는 망막출혈이나 삼출물은 망막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시력이 점차 감소한다. 가끔 심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날 갑자기 실명하는 것처럼 시력을 순식간에 잃기도 한다.

일단 망막신생혈관으로 인한 심한 출혈, 또는 망막부종이 발생하면 수술이나 약물로 적절히 치료해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치료 없이 방치하면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합병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당뇨망막병증을 막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당조절이다. 혈당을 약물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혈당을 아무리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한다 해도 당뇨가 오래되면 합병증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당뇨망막병증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돼도 합병증이 진행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망막검사를 받아야 한다. 눈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일단 망막병증이 발견되면 혈당 조절과는 무관하게 3~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는다. 망막병증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망막 광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레이저 치료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급격한 시력감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시기 결정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망막검사는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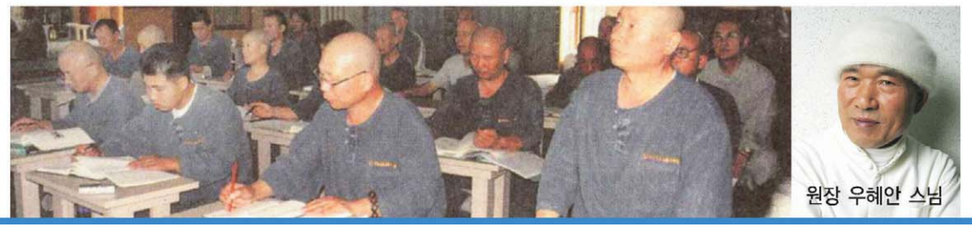
당뇨가 있을 때는 수술 후 회복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지만 혈당이 잘 조절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 수술을 미루면 백내장으로 인해 망막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혈당이 조절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고혈압이 있거나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당뇨 합병증이 더 잘 발생하므로 혈당뿐 아니라 동반된 고혈압 등을 함께 조절해야 한다.

일단 당뇨를 진단받아도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한다면 당뇨로 인한 실명을 예방할 수 있고 좋은 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02)755-0055 www.lasikeximer.com

■ 김준헌(소중한눈 안과 원장)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초보 ·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사단법인 해동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 1동 685-201 천안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옥천대성사 혜철스님
현대불교 충청(대전충남중북)지사장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사찰보안
300GB 대용량 영상기록
DVR 모니터 카메라 4대 250만원 (설치비포함)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알려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연도시스템
첨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

참선자가 고쳐야 할 '고질적 폐단' 지적

오늘의 禪語

⑯ 무자화두 참구법〈하〉

⑤눈을 깜박거리는 동작(揚眉瞬目)에서 무(無)자의 의미를 찾지도 말라(不得向揚眉瞬目處橫根).

양미순목(揚眉瞬目)이란 선문답을 할 때에 "무엇이 부처냐"고 물으면 말로 대답하는 대신 눈을 깜박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방' '침묵' 등과 같이 무언의 동작으로 상대방을 깨닫게 하거나 선의 세계를 보여주는 몸짓입니다. 이것을 전체작용(全體作用, 선의 경지를 몸짓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⑦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不得揚在無事甲裏).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심(無心) 무사(無事)를 능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가 말한 무심, 무사는 번뇌가 없는 '무심(무번뇌심)' '무사(무번뇌사)'를 말한 것인데, 이것을 착각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날이면 날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한다거나 놀러 다닌다거나 또는 좌선을 한다고 해도 화두를 들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혜 스님이 묵조선을 '삿된 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무사선(無事禪)의 병폐를 지적한 것입니다.

⑧거기처(擧起處)를 모두 알아버린 척 하지 말라(不得向擧起處承當).

'거기처(擧起處)'란 조실스님이 선법문을 하거나 또는 '방' '할' 등 활구소식을 보이는 것(擧起, 거량)을 말하고, '승당(承當)'은 '아는 척' '깨달은 척'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선법문을 하거나 활구소식을 보이면 즉시 일어나 아는 척, 깨달은 척 화답하는 것을 말하는데,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겉 넘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참고 : <서장(書狀)> '답 진소경 章'에 보면 '부득향개구처승당(不得向開口處承當)'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구처 승당'이 바로 '거기처 승당'입니다. '개구처'는 언어에 관한 것으로서 선법문 등이고 '거기처'는 동작에 관한 것으로서 '방' '할' 등입니다].

⑨ 문자 속에서 인용 고증하려고 하지도 말라(不得向文字中引證).

이것은 경전이나 논서 또는 선어록 등 책에서 '화두'와 관련된 부분을 끌어다가 해석하거나 천착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니 이 뜻이다' 또는 '어떤 선어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으니 이 뜻이다' 이런 식으로 화두를 참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헌적 지식적으로 화두를 탐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타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⑩ 미혹한 채 깨닫게 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不得將迷待悟).

'장미대오(將迷待悟)'를 '장심대오(將心待悟)'라고도 하는데 미혹한 마음(迷心) 즉 어리석은 마음을 뜻합니다. 화두를 참구하지는 않고 "언제쯤 깨닫게 될까?" 하고 기다리는 것, 또는 막연히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는 백 년이 가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 가지를 분류해 보면 첫째는 화두를 분별심이나 알음알이로 참구(탐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언어적, 학문적으로 참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화려한 문학적 수사(修辭)로 선을 표현하는 문자선을 경계한 것이고, 넷째는 멍청하게 앉아만 있는 것으로 선을 삼고자 하는 묵조선에 대한 비판이고, 다섯째는 무사선에 대한 비판이고, 여섯째는 깨달은 척 겉 넘은 행동을 하는데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모두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열 가지는 대혜 스님의 입장, 즉 간화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 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었습니다. 특히 ⑤에서 ⑩까지는 당시 참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폐단, 즉 문제점이었다고 진각국사 혜심은 말하고 있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언어, 학문적 참구·화려한 문학적 수사 표현 경계해야

빈둥대는 無心無事·겉으로만 깨달은 척 하는 행동 비판

신행게시판

●**봉인사 한길정진원 집중수행**=남양주 봉인사 한길정진원이 5월 1일~6월 3일 세 차례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5월 1~10일, 13~22일, 25일~6월 3일 진행되는 집중수행은 우 레와따 스님이 지도법사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지도한다. 매회 최대 40명 정원으로 동참금은 30만원이다. 사마타는 멈춤 그침 평온 지(止) 등으로 번역하며 사마타를 수행하면 삼매 또는 선정의 결과를 얻게 된다. 위빠사나는 우리말로 뛰어난 통찰,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봄, 직관, 여실히 앎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식별한 실제의 궁극적인 정신 물질 그리고 원인인 연기에 관해 무상 고 무아의 본성을 꿰뚫어 통찰하는 것이 위빠사나이다.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으로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제시하는 봉인사 수행에 동참해보자. 한 달간 장기수행도 가능하다. (031)574-5585, www.bonginsa.net

●**미황사 봄맞이 참선수행템플스테이 '참사람의 향기'**=해남 미황사가 4~5월 봄맞이 참선수행템플스테이 '참사람의 향기'를 준비했다. 4월 19~26일, 5월 17~24일 열리는 '참사람의 향기'에서는 매일 6시간 주지 금강 스님의 지도로 참선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집중하며 직관수행의 체계를 갖춰 나가게 된다. 묵언은 기본. 아침 죽, 점심 발우공양, 저녁은 먹지 않는 오후불식을 지킨다. 매일 저녁 하루동안의 수행을 보고하고 조언을 듣는 수행문답이 마련된다. 화두간택은 일수 스님(前 백양사 운문선원장)이, 수행론은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이, 〈좌선의〉 〈육조단경〉은 금강 스님이 지도한다. (061)533-3521

●**선운사 템플스테이**=고창 선운사가 템플스테이의 문을 활짝 열었다. 매주 주말 항시 운영되는 1박2일 표준형 프로그램과 1박2일~3박4일까지 원하는 대로 구성되는 평일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새벽예불, 저녁예불, 참선 실수, 타종체험, 포교국장스님과 차담 나누기, 선운사 부도전 석상암 녹차밭 포행, 명상 등이 준비된다. (063)561-1375

●**대흥사 초의스님 선다일여 프로그램 운영**=해남 대흥사가 5월 2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초의스님 선다일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월 28일~6월 1일, 18~22일, 7월 30일~8월 3일, 6~17일 열리는 '초의스님 선다일여' 외에도 8월 12~17일 다도 아카데미 수련회가, 7월 1일~8월 30일 수시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02)575-776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一句'에 큰 깨달음 얻다

⑯ 꾼달라께시 장로니

꾼달라께시 장로니는 왕사성의 조신한 부잣집 딸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형장에 끌려가는 도둑을 보고 바로 사랑에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의 부모가 돈을 치르고 도둑을 석방시켜 딸과 결혼시켰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 도둑은 처가집의 재산과 보석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다.

하루는 도둑이 아내에게 보석을 모두 가지고 산으로 가자고 하였다. "사형당할 뻔 할 때 그 산의 산신들이 자기를 구해주었으니, 가서 공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에 이르자, 도둑은 속셈을 드러내어 그녀를 죽이고 보석을 뺏으려 하였다. 그녀는 "보석을 모두 드릴 터이니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남편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침착하게 꾀를 낸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를 올리고 싶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도둑의 주위를 경건하게 돌다가, 그가 방심할 때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하나란 무엇인가'는 궁극적 한구절

만공 스님이 가르친 참구법과 유사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그녀는 집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나무에 가지고 온 보석을 모두 걸어놓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헤매다 보니 여성 방랑고행자들이 사는 곳에 이르러, 자신도 고행자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궤변론의 1000가지 문제를 가르쳐 주었고, 영리한 그녀는 금방 모든 것을 배웠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 그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스승으로 모시라고 일러주었다. 그녀는 논쟁 상대를 찾아서 인도 전체를 돌아다니며 실력을 겨루었다. 따라서 그녀는 '염부제(閻浮提: 인간 세계)의 여자 방랑고행자'란 뜻으로 잠부까빠립바지까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사위성에 오게 되었다. 탁발하러 시내로 들어가기 전, 모래로 두둑을 쌓아 놓고 에우게니아 나무 가지를 거기 꽂아 두었다. 이것은 도전에 응할 논변 상대를 구한다는 표시다. 사리불 장로가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천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사리불은 모두 대답했다. 이제 사리불이 질문할 차례였다. 사리불은 이것만을 질문했다.

"그 하나(1)란 것은 무엇인가?"

대답하지 못한 그녀는 가르침을 청했다. 사리불은 먼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여, 꾼달라께시라는 법명으로 비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불과 2~3일 후에 아라한이 되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구들이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 물었다.

"꾼달라께시 비구니는 법에 대해 몇 마디만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습니까?"

비구들은 또 방랑고행을 하기 전에 도둑놈 남편과 싸워 승리한 일에 대해서도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셨다.

"의미 없고 열반에 이어지지 않는 천 마디의 구절을 읊조리는 것보다, 들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 구절을 읊는 것이 더 낫다네. 전쟁터에서 백만 명을 정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정복자일세."

이상은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기록이다. 꾼달라께시 장로니는 "하나란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큰 의심을 발해 출가했으며, 마침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 구절(一句)'을 듣고 불과 3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미뤄볼 때, 간화선에서 중요시하는 화두의 중요성과 '말끝에 단박 깨침(言下大悟)'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나란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화두와 유사하다. 이 공안을 참구할 때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들기보다는, "그 하나는 무엇인가?"하고 의문을 가지라는 것이 만공 스님이 가르친 참구법이다. 이 '하나'는 일심이자 진여자성(眞如自性), 불성, 성품, 본래면목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는 불법을 체득한 스승이 지혜의 안목으로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해결한 '궁극적인 한마디(一句)'를 통해 타파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우 객원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2311-0157
경상도 : 011-327-769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행훈 합장

특허 10-0806337호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지압 · 동 깔창

조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사이즈 : 230-280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훈) 합장


◆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냥: 150×125
특허 브라켓
※ 황토흙벽돌, 내화벽돌, 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조 20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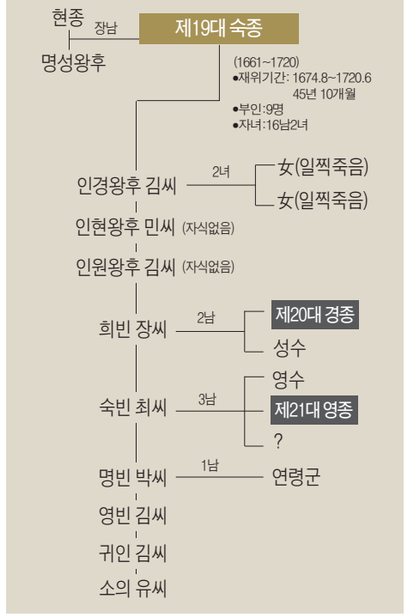
◆ 물로청소하는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 (연결 이동 사용할수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함)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조립식평상
TEL (063)323-3010~1 / FAX (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여인천하 속 외로운 왕…죽어서도 여인들 틈에



19대 숙종 – 명릉
숙종 1661~1720(60세)
재위 45년 10개월 1674.8(14세)~1720.6(60세)

제19대 숙종 가계도




2계비 인원왕후능에서 본 숙종과 1계비 인원왕후.

명릉(明陵)은

19대 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1667~1700) 민씨, 제2계비 인원왕후(1687~1757) 김씨의 능이다. 숙종과 인현왕후는 쌍릉이고, 인원왕후는 400보 떨어진 왼쪽 위에 있다. 서오능 능역 안에 있다. 매표소를 들어서면 오른쪽 외따로 떨어져 조성된 것이 명릉이다. 서오릉=사적 198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면적 182만9792㎡(55만3512평).

조선왕조 518년, 27대 역대왕 중 숙종 부자가 재위한 기간이 조선 역사의 약 1/5이다. 숙종 본인 45년10개월, 희빈 장씨 소생 아들 경종 4년2개월, 숙빈 최씨 소생 아들 영조 51년7개월, 도합 101년7개월이다. 재위 기간이 길다보니 사연도 많다.

왕들에게는 이름이 많다. 아버지가 지어주는 이름, 승하하면 행적을 기려 바치는 시호(묘호), 무덤의 이름인 능호 등이다. 능호는 모두 외글자이나 태조의 능인 건원능(건健:하늘의 도, 원元:나라와 도읍을 처음 세웠다는 뜻)만이 두 글자이다. 사도(思悼)는 영조가 세자를 서인으로 폐하여 죽이고 후회되어 슬프고 애처롭게 생각난다고 지은 시호이다. 영조는 역대왕 중 최고 장수했고 재위기간도 으뜸이라 능호를 원릉(元陵 동구릉 소재)이라 했다.

묘호는 왕이 승하한 뒤 이름을 피하여 종묘에 봉안하는 호칭이다. 백성을 두루 살피고 무력으로 난을 정벌한 치적이 뚜렷하면 조(祖)라고 하고, 덕망을 갖춰 성품이 단정하고 지혜, 용기, 너그러움을 겸비한 왕은 종(宗)을 붙였다. 그러나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숙종이 그러하다.

숙종(肅宗)=엄숙하고 정중하며 덕망을 갖춘 왕이란 뜻인데. 명릉(明陵)=밝고 깨끗한 능이란 말인데. 숙종의 이름은 순(焞)이다. 외글자 이름을 쓴 것은 세종부터다. 세종의 이름은 이름은 도(裪)이다. 외자 이름이 아닌 왕은, 단종(홍위), 철종(원범), 고종(명복) 등이다. 이성계나 이방원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름이 있었다. 숙종은 현종의 외아들이며, 어머니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인 명성왕후다.

비(妃)는 영돈녕부사 김만기의 딸인 인경왕후이고, 계비는 영돈녕부사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 제2계비는 경은부원군 김주신의 딸인 인원왕후다. 희빈 장씨, 숙빈 최씨도 역할이 만만찮았던 숙종의 여인들이다.

명릉에 들어서면 능의 배치가 이상하다. 정자각에서 바라보면, 왼쪽 위 외따로 능이 하나 있고 오른쪽 아래 정자각과 균형이 맞는 위치에 쌍릉이 있다. 왼쪽부터 제2계비 인원왕후, 숙종, 제1계비 인현왕후의 무덤이다. 이들을 통틀어 편의상 명릉이라 하는데, 법도에 맞지 않다. 동원이강 양식으로 본다면 서열이 가장 낮은 제2계비가 상석이고 왕과 제1계비가 말석인 셈이다. 유교 풍수 국가인 조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숙종 왕릉은 쌍릉에 해당되며 왼쪽에 있는 제2계비 인원왕후의 능은 단릉 양식이다. 정자각도 없는 능이다. 사연은 이렇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와글와글해도 정승이 죽으면 상가가 적막한 것이 세상인심이다. 희빈 장씨와 격투를 벌여 중전과 폐서인의 자리를 함께 오간 인현왕후는 1701년 소생 없이 3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남편 숙종이 펄펄하게 살아 있던 시절이다. 장희빈에게 농락당한 회한으로 왕은 성대히 장례를 치르고 후일 자신도 곁에 묻혔다.

제2계비 인원왕후의 무덤이 외따로 초라한 것은 그녀의 소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았다. 왕보다 먼저 죽었다면 이상한 곳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숙종이 승하하자 청상과부 인원왕후는 34세에 왕대비(경종 재위시)에 올랐고 38세 때(영조 재위시)는 자동적으로 대왕대비가 되었다. 손자뻘인 영조와는 일곱 살 연상이었다. 그들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대왕대비 인원왕후는 1757년 3월 26일 71세로 승하했다. 죽을 자리, 죽을 시기를 잘 찾는 것도 복이다. 인원왕후는 그런 복이 없었다. 영조 33년(1757) 2월 15일,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가 66세로 승하했다. 정성왕후의 국장이 진행됐다. 서오릉 내에 택지된 홍릉의 산릉공사가 거창하게 이루어졌다. 홍릉은 영조가 자신의 수릉을 겸한 곳이기에 국가적 대역사였다. 며느리의 국상 중에 할머니가 덜컥 죽은 것이다. 국장을 한 번 치르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인원왕후는 영조의 피가 섞이지 않은 계모에 불과하다.

영조는 대왕대비의 유택을 위해 경비와 인력을 들일 여력도, 의지도 없었다. 벌채경비도 아끼고 정자각 건립비용도 생략했다. 명릉 능역 한 모퉁이를 살짝 오려내어 대왕대비를 안장했다. 가장 저렴한 왕릉 공사였다. 그래서 인원왕후의 능은 능호도 없고 정자각도 없다.

숙종시대는 왕의 치적보다 여인들의 쟁투가 더 관심을 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먹고 먹히는 싸움 가운데 숙종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인물들끼리 수차례 출마해서, 1승1패니 2승1패니 하는 통계를 언론이 만들어 호기심을 돋운다. 그러나 왕의 여인들은 모 아니면 도다. 중전이 되거나 아니면 폐서인이 된다. 운이 나쁘면 사약을 받아야 한다.


벚꽃이 장관인 서오릉.

인현왕후·희빈 장씨·숙빈 최씨 등 여인간 쟁투 부각
46년 재위기간 중 대동법 실시 등 굵직한 치적 남겨

숙종은 재위기간이 긴만큼 치적이 많다. 왕권안정을 위해 진력했고 백성들을 위해 대동법을 실시했다. 대흥산성, 황룡산성 등 변경에 성을 쌓고 대대적인 도성 수리 공사를 했다. 북한산성을 총체적으로 개축하여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 수비를 견고하게 했다. 성삼문 등 사육신을 복관시키고, 노산군을 복위시켜 묘호를 단종으로 올렸다.

굵직한 치적에도 불구하고 숙종에겐 '여인에 대한 애증의 편향이 심했다'는 꼬리표가 붙는다. 왕의 여인들에겐 자식이 보물이자 권력 보험이다. 원비 인경왕후 김씨는 20세에 후사 없이 죽었다. 다행히 권력다툼에 끼어들 빌미가 없었다. 계비 인현왕후도 자식이 없었다. 예의가 바르고 덕이 높아 국모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후사를 잇지 못하니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패장꼴이다. 이 때, 소의였던 희빈 장씨가 왕자 균을 출산했다. 애정의 물꼬가 장씨에게로 쏠리고 있던 차에 경사가 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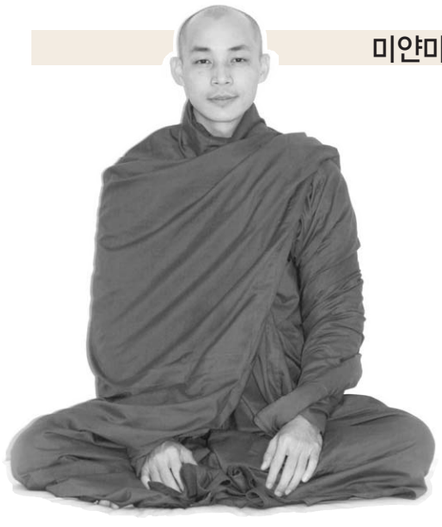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원자로 정호되었다. 대통을 잇게 하겠다는 선포인 셈이다.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중전인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얼마든지 회임할 수 있기 때문에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송시열은 화약을 안고 불에 뛰어든 셈이다. 장씨에게 흠뻑 빠져 있던 숙종은 그녀를 빈으로 승격시키고 노론계 정치인들을 대거 유배 보냈다. 상소를 올렸던 노론의 거두 송시열에게는 사약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지어 중전 민씨(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된다. 이를 기사환국이라 부른다. 1라운드는 장희빈 판정승이다. 2라운드는 희빈 장씨가 묻혀 있는 대빈묘(서오릉 능역 안)에 가서 살펴본다.

원비 인경왕후의 익릉, 장희빈의 대빈묘 그리고 명릉의 인현왕후, 인원왕후, 모두 서오릉 영역 안에 있다. 숙종은 죽어서도 여인들 틈바구니에 있다. 오손도손 정분을 나누었던 여인들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칼날을 겨눈 끝에 있던 여인들과 함께.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무인석의 어깨가 앞으로 굽어있다.

미얀마 **아신 빤딧짜** 스님의
정통 **위빠사나 수행** 강의



미얀마 스님의 유창한 한국말 강의

초보자도 알기 쉽게 위빠사나 수행강의

아신 빤딧짜 (Ashin Pandicca)

;미얀마, 샨도, 깔러 시 출생

11세 – 1982년 첫번째 출가 (따웅 부 루 또야)
17세 – 1988년 두번째 출가 (몽요아 시)
20세 – 1990년 비구계 수계 (몽요아 시)
1990~92년 수행명상 센터 (2년간 있었음)
1993~96년 강원 (비저다요 강원 몽요아 시)
1997~99년 강사 (미아와디민지 강원 만달레이 시)
2000년 토굴 생활 (핀우륀 메이묘 시)
2001~현재 싼마띠다 수행 센터 양곤 (주지)
지도자 법사 싼마띠다 수행센터
2002년 다곤 대학 졸업
2005년 삐더우 불교 센터 건립(불교/한국어)
2003~04년 해외포교대학원 졸업
2003~08년 조계사 청년회 법회 강의
2007년 광주 원각사, 제주 삼방사 법회강의

■ 일 시 : 5월 14일(수)부터 (21일간)
■ 시 간 : 오후 2시 ~ 4시
■ 대 상 : 스님 및 재가불자 모두 동참 가능
■ 동참금 : 5만원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 3번출구 바로 앞)
문의- (051) 334-8108

맑은마음, 밝은사회, 좋은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법/회/안/내
▶ 금강경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7~9시
▶ 천수경 강 의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 초발심자경문 – 매주 수, 금요일 오전10시~12시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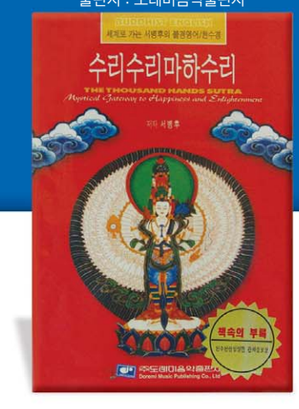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 법 인 설 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사 찰 행 사
천도재 · 49재 · 수륙재
점안식 행사에 바라무 · 나비무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장엄하게 집전 해 드립니다
영남범음범패 무형문화재 제9호 전수자
010-4870-835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 교법사, 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 종학사, 종사, 대사, 선사, 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 학인수시모집 : 범음, 범패, 바라, 나비춤
● 사찰행사 : 49재,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 혼 녀 보 호 소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복잡한 이혼문제 도와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바라 · 작법무등은 시연하지않으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무진장 합장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 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 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 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 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 : 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60세 비구가 저렴한
보시에 여법하게
의식을 해드립니다
042)272-5786
011-9429-5786

사무실에서 총무일
하실분 구합니다
(숙식가능한분, 경험자 우대)
▷ 울산 연지암
052)298-9912
010-6770-1825

조계종 내원암 보궁을
수행하며 관리 운영할 비구,
비구니, 40~50대의 은사를
의지하는 상좌를 찾고 있으며
또한 깨끗하고 조용한 후원에
불연이 깊은 40~50대의
공양주 구합니다
054)653-1180
010-6353-1180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백련 종근 분양
백련 종근 분양
(충남 금산)
011-675-12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1)836-50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 ~ 50대)
▷경북
011-336-4665

조용한 암자에서
기도하실 스님,
처사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천일기도 하실분)
노부부 환영
011-561-6644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 개원사
053)981-0664

조용한 산사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합천군 대병면
016-9506-570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
043)832-614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이상
055)333-070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지리산 천은사)
061)781-4800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
043)297-8728

비구,비구니
모십니다
(모든 제 의식 가능한 스님)
제 의식 봉행할 때만 오셔 도 됨
부산 근교 스님 환영
051)502-6569

대작불사중
사무장을
모십니다
▷서울근교
010-4540-3344

여 사무장
(비구니 스님도 가능)
구합니다
▷월 50만원
055)744-3973
010-595-3973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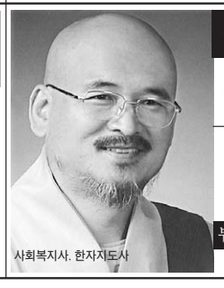
기도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1-840-435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하동
010-3138-4897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인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한민국 제3회 맥(脈.DNA)수련회
● 일 시 : 2008년 4월 26일(토) ~ 4월 27일(일) 1박 2일 (매월 마지막 토, 일요일)
● 장 소 : 충남 공주시 상신리 "자승정" 수련장
● 초청강사 : 白石 박 경진 선사님 (참선지도 25년 경력, 관련서적 40여권 집필)
● 주 제 : 나는 누구인가? ● 주 최 : 日脈太學敎
● 참 가 비 : 10만원
● 교육문의 : 043)283-2278 /H.P 010-9701-0675 ● 장소문의 : 041)881-9575
깨달음을 향하여 ... 나는 누구인가? 참선과 명상
21세기 인류는 동방의 등불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봄맞이 특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해일 합장

대 방 등 대 집 경 특 별 강 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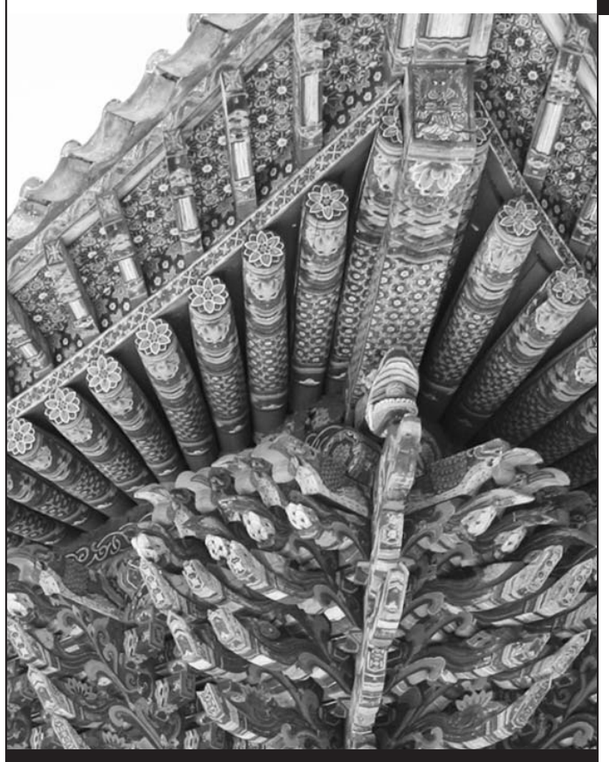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 공념 학당에서는 기초에서 백가지 비법인 백법까지 마스터 할 수있는 육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 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간안내 '육임이 보인다'
육임공부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강의록이 출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임이 어려워 공부를 망설이신 분은 새로 출간된 '육임이 보인다'로 공부 하시면 보다 간결하고 한눈에 알수 있도록 각 점단마다 국수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쓰지 않은 시간법으로 초사를 말할수 있도록 강의록에 수록 되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레이키(Reiki · 靈氣)가 왜 화제인가?
레이키(Reiki · 靈氣)는 배우기만하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있고 전세계의 수천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생명에너지(氣)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 많은 성직자와 일반인들이 배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동서양식 레이키는 세계의 여러갈래의 레이키를 융합한 것입니다.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 개인교육 : 교육시간은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에는 소리파동요법, 약식제령법이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20여년간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일본 등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와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인 터 넷 : www.Reiki.co.kr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팩 스 : 02)720-5720
핸드폰 : 010-8392-2557

정토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정토불교법사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안내
◆ 개강일자 : 2008년 5월 6일(화)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교육내용
(1)송주편 (도량석, 조.석 종성)
(2)예경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3)헌공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지장, 관음, 신중청 등)
(4)제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5)시식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교육기간 단기 속성 3개월 과정
신청방법 전화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수강신청서. 사진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식방법을 현장실습 위주로 집중 지도함.
○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정 토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403-15 (3F)
TEL 02)2208-6097, 609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350평 + 밭 550평 + 임야
● 법당 : 15평, 요사채 :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양도가 : 4억원

무릉선원
● 위치 : 마산 철서 ● 대지평수 325평
● 건물 약30평(등기필)
● 법당 20평, 요사, 방2, 다락실1 기타 창고 및 화장실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양도가 : 1억5천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법당 : 21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요사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800평 ● 부지 : 19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5억2천 ● 가액 : 7억 5천 (융자 2억 가능) ● 가액 : 15억(조정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수행과 포교의 일거양득처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중 2층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유명한 사적공원과 산이 있어 일년내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있으며 수행과 포교를 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량으로 양도하기 아쉽지만 부득이 인연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042)633-8497

사찰터 확보

● 위치 : 남해군 삼동면
● 총 평수 : 260평(실평 308평)
● 황토건물 : 31평
현재 창고 : 100평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 창고 별도 양도가능
011-844-403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9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
● 대지 : 138평
법당 20평, 요사채 10평
● 삼존불 모셔져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대구시내, 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사찰(급)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기도도량 안내

대둔산 도솔봉 약사용궁도량
● 총 560평, 대지 125평,
● 법당(조립식), 칠성(조립식), 산신(허공), 용궁, 약수, 연못 요사채, 거실, 주방, 방4, 화장실2, 다락1
● 굿당(조립식), 선낭(조립식)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
041)753-8433
011-9211-4219
꼭 보실분만 연락바람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청 앞
● 평수 : 4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6269-66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 (구미시에서 5분거리) 인근에 신도시 개발중
● 평수 : 740평
● 대웅전,삼성각, 요사채, 종무소
● 가액 : 4억 5천
● 실사용면적 1,000여평
011-9598-33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 심야 전기 보일러 있음
011-875-3513

절터 별장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근교
● 관리지역 약 500여평
● 가액 : 4천5백만원
010-4707-809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5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 임법당 1, 공양간 1, 컨테이너방 2개
● 산신불 모셔져 있음
● 스님 기도하기 최적합
● 물좋고 조용한 산사 산약초, 텃밭 있음
● 가액 : 3천만원
010-4660-5388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평수 : 1530평 법당15평, 요사채 40평
● 화장실, 샤워실 별도 지하수, 심야보일러 설치
● 법당 앞에 연못과 조경 편안하고 포근한 산자락에 위치한 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010-9690-22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1-9005-2545

제주 암자 안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 거리
● 대지 : 194평 마당에 연못 있음
● 일법당 30평(법당 15평) 공양간 25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18-590-3583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 영동역에서 3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복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평당 5만원 : 1100평 평당 15만원(대지), 200평, 300평, 500평
010-3545-9992
043)732-275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
● 평수 3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50평, 공양간 20평
● 사찰규모 완벽하고 최고의 시설
010-9080-9636

경 치 좋 은 산

● 충북 보은 시내에서 20분거리
● 바위 위에서 나오는 생수 야경 으뜸
● 대지 252평,전답 730평 법당 목조 신축 12평
● 요사채 황토집기와, 방5, 거실1, 조립식 3동
● 가액 : 2억 3천만원
018-406-3073
(평일 19시 이후)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평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5평, 시설완벽
● 즉시입주 법회가능
● 종단 주지발령으로 급 안내
● 보증금 2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평수 : 111평(법당외부단청)
● 건물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등 4채 방 5개 심야보일러 설치 마당에 5층 석탑 있음
● 가액 : 1억 5천5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20만원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조금
● 사정상 급안내
055)674-5978
011-9393-23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옥열리
● 법당 : 건평 60평(다용도실 10평)
● 요사채 : 슬라브 건물 30평
●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
● 총 건평 130평, 대지 605평
● 가액 : 2억8천만원(급 안내)
011-836-1829
010-3351-182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약 110평
● 법당 : 약 55평(삼존불,삼성단등)
● 요사 : 약 55평 (방3개,상담실,거실등)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경인 국도변)
● 평수 : 70평
● 방3, 법당, 공양간 도시가스, 샤워실, 시설완비
●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010-7112-18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덕성부락 1364번지
● 총 약280평
● ㄱ자 집 2채, 법당, 요사채
● 가액 : 8천만원(융자 4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55)747-8350
017-552-735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 총 700평
● 법당 17평 한옥 (내부 5평 임법당)
● 요사채 24평
● 마당 잔디밭 약200평 이상 신축 5년, 주차장 별도
● 가액 : 2억원
011-772-4780

포교당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동
● 20년된 단독 기와집, 법당 18평
● 삼존불, 아미타, 관세음, 지장보살
● 큰방1, 작은방1, 목욕탕, 공양간
● 전체 리모델링 됨
● 전세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비구니, 무속, 역학하시는분 적합
010-8722-412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
● 평수 : 30평.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위치 최상A급 역학하시는분 적합
010-5625-34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낙성대 전철역 5분 거리
● 평수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010-7208-95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 대지 : 600평
● 법당 : 100평(1,2층)
● 요사채 : 50평
● 산신각 8평(1,2층), 창고 1 법당 시설완벽
● 가액 : 8억원(상담 후 절충가능)
011-477-067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길2동
● 5층건물중 3층 평수 약30평
● 불단,주방 도시가스,보일러 시설
● 보증금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500만원(조정가능)
● 4월말 인도가능
02)486-1946
011-9773-6059

대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국도변
● 대지 2000평, 사과원 700평 임야 12000평, 미륵불발견 대웅전 70평, 요사채 90평
● 가액 9억
● 위치 : 경북 북부 읍소재지
● 대지 130평(대로변 중심가) 대웅전 42평, 상가건물 30평
● 가액 4억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1-538-2211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특급)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교통 : 삼랑진IC 7분, 밀양 25분 거리(2차선 도로 포장)
● 부지 : 5200평(종교용지 1050평)
● 법당 : 대웅전(목조 5포9포 단청) 25평, 지장전 20평, 관음전, 삼성각
● 요사 : 설송당(목조) 18평, 자양당 43평, 요사 52평
● 환경 :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 좌청룡 우백호 명당
● 가액 : 시세 저렴 직거래 상담 후 결정
창건주 건강문제로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55)356-6887 (야)
010-3865-34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보령시 (대천여중 사거리 대로변)
● 법당 : 5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시설A급, 즉시법회가능
● 포교활동 하시는 분 최적지
010-9288-9930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관음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2대
● 스님 서재방1, 종무실1, 대중공양실1, 방사 2칸
● 후원 5평, 시설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만
010-4802-5288

사 찰 양 도

● 위치 : 경산시 용성면
● 대지 237평, 텃밭 665평, 법당 약20평, 요사 30평, 심야보일러 동불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 양도가 : 2억2천5백만원

청도풍각암자
● 위치 : 청도 풍각면 소재지 중심
● 대지 70평, 요사 40평, 삼존불, 탱화
● 가액 : 7500만원
011-509-0124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최고의 시설(포교원)

● 위치 : 경북 대구 바로 옆 경산시 중심가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신중탱화
● 평수 : 80평(법당 40평 마루)
● 방3개(주지실, 사무실, 주방) 후원
● 시설비 3000만원, 월70만원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2051-6705

불자정보 계속

"천일기도 원력으로 미래불교 희망 싹 틔울것"

데스크초대석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500일, 제 개인적으로는 일생동안 이토록 한 곳에서 오래 머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걸망하나 짊어지고 이 산, 저 산을 떠돌았는데 봉은사와 무슨 깊은 인연이 있어 주지 소임을 맡고 천일기도까지 입재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가해 지금까지 선방에 다니면서 30년 넘게 정진해 왔지만 지금처럼 부처님 전에 기도 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루 세 번 법당에 올라가 일천배를 올리는 동안 어느 날은 발이 부어 걸음을 내 딛기도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몸살에 걸려 도무지 절을 할 수 없어 그냥 불전에 앉아 손 모으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한 날도 있었습니다. 큰 절 주지가 천일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 세 번 하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부터 말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봉은사를 바로 세우고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만드는 일이 작은 서원이 아닌데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모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천일기도에 입재한 것입니다. 내 한 몸 던져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있겠는가 싶어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잘한것 같습니다."

2006년 12월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공부가 된다' 는 신념으로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4월 17일 500일을 맞았다. 명진 스님의 기도에는 주변 스님들과 500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명진 스님은 기도 500일을 맞아 동참한 불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간의 정진을 돌아보고 나머지 시간을 더욱 알뜰하게 정진하자는 당부의 편지. 불자들에게 "작은 들꽃도 온힘을 다해 피기에 그 빛이 아름답고 그향기가 그윽하듯 저의 천일기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 명진 스님을 만났다.



종단 나쁜 관행 바꾸려면 개개인이 먼저 변화해야

신행공간 절대 부족…봉은사 법회공간 불사 추진

-500일이란 시간이 빨리 흘러 간 것 갔습니까?

빨리 흘렀어요.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 빠르고 느림도 없겠지만, 지난 시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신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기에 항상 힘이 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절반까지 온 시간을 나의 원력이 지탱해 주었다면 앞으로의 500일은 신도님들의 성원으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동경기에는 '하프타임' 이 있지만 봉은사 천일기도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있는데, 도량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 입재 동기와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새벽예불 아침공양 도량청소를 마치고 나면 좌복 위에 앉거나 책을 보고 사시예불을 하고 점심공양 후에는 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녁예불과 정진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생활입니다. 늘 이 자리(다래헌)에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고 몸도 건강합니다. 도량도 바뀌고 있지만 나 역시 많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주지 임명 받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차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대형사고였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빚 갚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하며 주지직을 맡았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20여 년 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도님들에게도 세상을 향해서도 새로운 변화로 봉은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봉은사를 새롭게 다지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새로운 봉은사는 탄생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생에 닦은 복이 있는지 천일기도 입재를 했고 잘 진행되어 중간까지 왔습니다. 신도님들과 함께 하며 진정 나를 공부하게 하는 힘은 바로 신도님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침에 도량청소를 하는데, 비질을 하는 내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우는 보살님을 통해 이 기도가 얼마나 뜻 깊은 불사인가를 느꼈고 예불 때마다 동참하는 신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봅니다. 신도님들이 바로 호법신장이라서 나는 몸이 아파도 아픈 티를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하하.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얻는 것이 있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교는 제대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한국불교는 도시화 현대화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행의 가치를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이타' 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나는 이 말이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은 것' 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수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그 주변 사람에게도 좋거든요. 수행을 통해 모두가 한 명 한 명의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종단 개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의 방향은 제도를 바꾸어서 한 사람의 독재를 막고 공의에 의한 종단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폭 중앙종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중앙종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총무원장' 이 생겼습니다. 종회의 원들이 작은 총무원장이 되는 것을 보며 더 많은 조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명의 조조' 를 살려줬던 재갈공명의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종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스님들 개개인이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바꾸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스님들의 고급 승용차 등 호화로운 생활과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분에 대한 기획물을 방영했습니다.

절 집안이나 정치판을 비롯한 세속에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이 경제논리에 묻혀버리면 그 사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 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나 허물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네 삶에 부끄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겠지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북관계가 많이 경색되는 분위기입니다.

대북관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인연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북측의 여러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절 인연이 맞으면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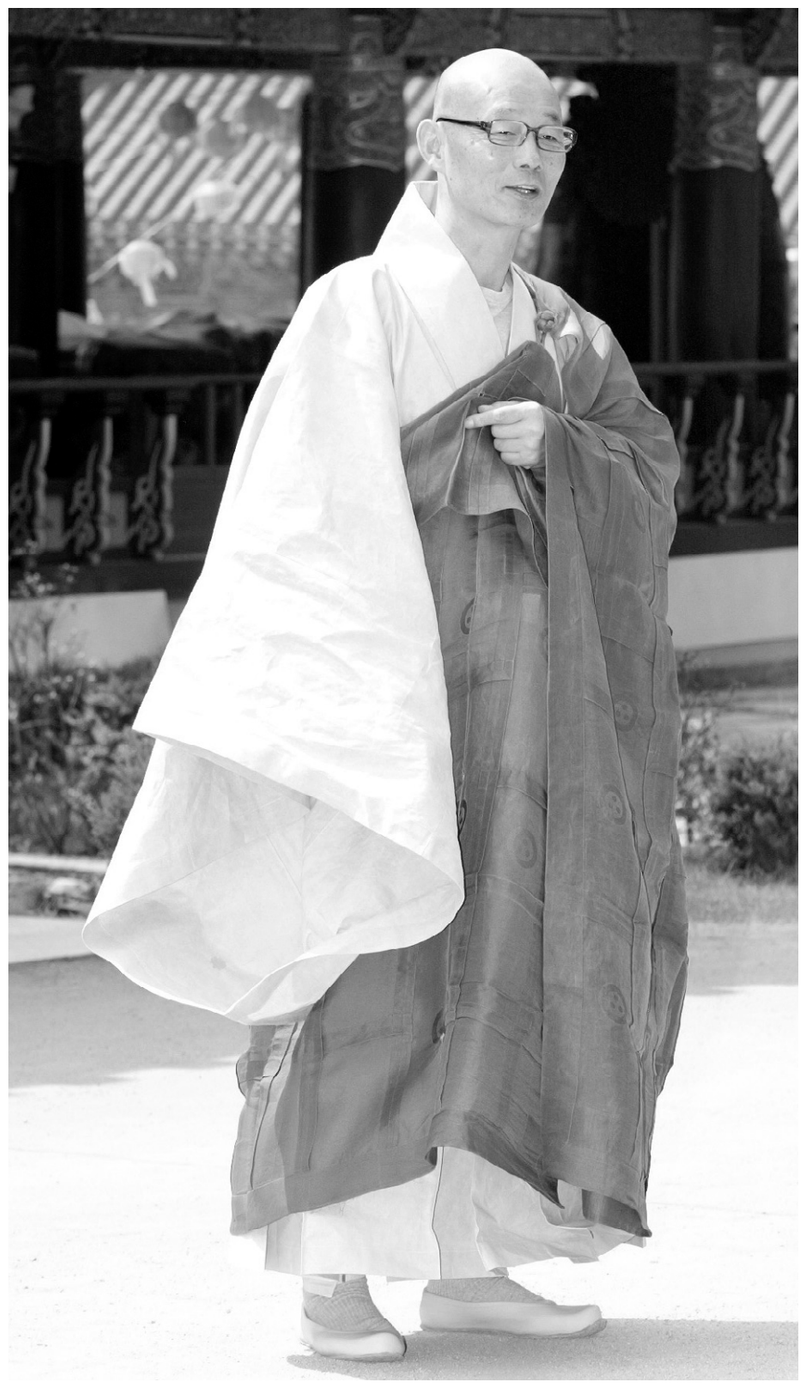
-봉은사 불사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신행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남에서 유일한 문화기반이 봉은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봉은사는 한국불교의 구심점이었거든요. 법회공간 확보를 위해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공원지역이라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어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불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사는 종단과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봉은사의 천일기도가 도심 사찰의 수행과 운영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종단이나 사찰이나 좋지 않은 관행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불교의 희망이 싹틉니다. 승가와 재가가 함께 수행하고 서로 신뢰하는 데서 불교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겁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불자정보

676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2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은 원하는 금액에 양도하고자 함

010-3553-789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방2, 40평, 삼존불 기타 시설 완비
- 지하철, 정류장 5분거리 체육공원 인접
- 가액 : 전화상담

010-6236-5557
053)961-0501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서포면 반야리
- 평수 : 3200평
- 대지 : 20평
- 가액 : 6천만원

016-9707-3108

사찰 안내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생활주거지는 포항입니다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에어컨, 심야보일러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542-0982
054)762-738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2층 건물 2층 43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협의 후 결정

010-8622-12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 전자공고 정문 앞
- 실평 : 24평 (법당 13평, 요사채11평)
- 삼존불, 공양간 도구, 기타
-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차후 결정

011-481-122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화양동
- 3층 건물중 2층, 3층(각 24평)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0-8028-0660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 무안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 20평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부산에서 20분 거리)
- 평수 : 총 54평
- 법당, 공양실, 방3
- 부처님, 탱화
- 보증금 2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없음

010-2599-6020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칠곡 (구미시에서 5분거리) 인근에 신도시 개발중
- 평수 : 740평
- 대웅전,삼성각, 요사채, 종무소
- 가액 : 4억 5천
- 실사용면적 1,000여평

011-9598-3399

포교원 운영하실분(급)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포교원 최적지이며 주택, 상가 밀집지역. 현 시설되어 있으며 운영하던 곳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양도도 가능) 시설비 협의 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1-279-353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청수장 (국립공원 주차장 내)
- 임법당 50평 주차장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전세, 시설비 포함)

010-4532-7920

(급)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자굴산(문수사)
- 총평수 : 약1700평
- 허가면적 : 약 550평
- 건물 : 요사채, 산신각 약100평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찰로서 스님의 건강악화로 급하게 안내 하오니 인연이 맺는데로 양도함
- 현재 공사비 약 4억 소요

055)572-0405
011-9850-82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내 천은당 한의원과 같이 있는 한옥 1채
- 평수 : 약 25평
- 부처님 모셔져 있음, 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2)967-4192

포교당 안내
- 위치 : 창원시 중앙동
- 평수 : 법당 15평(실 사용 평수)
- 방, 주방
- 지장보살 목불, 천수천안, 산신, 나한존자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00만원

010-5898-0408
055)266-5847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로터리 번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 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학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 평수 : 21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실내는 아파트식)
- 과실수 골고루 있음 돌탑
- 심야전기, 에어컨 완비
- 가액 : 1억3천만원

011-491-2347


산괴불주머니,


예덕나무.


진박새, <촬영=박희준>


큰멋쟁이나비.


진달래.

여천공단 공해로 자연도 사찰도 '울상'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6) 여수 영취산 흥국사

흥국사 신도·영취산 관광객 줄어 사하촌 존폐 위기
너구리·청설모·오소리 등 포유류 개체수 감소 우려도

무상(無常),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숲도 그 '법(法)'에 따라 예외 없이 천이(遷移)를 되풀이 한다. 재해나 남벌로 인한 민둥산에 먼저 초본류들이 들어와 저들의 세상을 만든다. 초지는 진달래와 같은 키 작은 관목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고, 관목들 솔씨에게 영토를 내주어 소나무숲으로 변한다. 이윽고 소나무도 참나무류에 밀려나고, 그 숲은 다시 서어나무 등의 극상림으로 바뀌게 된다. 극상림은 다시 초지로 돌아가고…. 숲은 이렇게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천이된다.

해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사이, 여수 영취산은 진달래로 불바다를 이룬다. 이 진달래숲도 영취산의 진면목이 아니라 숲 천이의 한 단계일 뿐이다. 해마다 피고 지는 사이에 진달래 전성시대도 서서히 저물어, 훗날에 사람들은 이 산에서 솔내음을 맡으며 삼림욕을 하게 되리니.

그 무상의 영취산 숲속에 흥국사(興國寺)가 자리하고 있다. 흥국사는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당대의 사회모순과 무질서에 대안이 되지 못했던 불교를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통해 개혁하고자 세워진 선찰이다.

흥국사로 가는 길은 그 어느 절보다 발걸음이 무겁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해지역 여천공단이 흥국사 들머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주민 이주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흥국사와 사하촌만 남기고 완료된 상태이다. 그 후 인근에 율촌공단을 새로 조성해 공장들이 들어와서 흥국사의 수행환경이 경각에 달린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영향으로 이 지역 거주자들의 발암 위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국사 사하촌은 공단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공단 내 마지막 남은 마을 사람들은 거의가 관광관련 식당이나 숙박업을 한다. 공해로 인해 흥국사를 찾아오는 신도나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사하촌도 흥국사와 함께 존폐위기에 이르렀다.

절 입구 호반에 서면 영취산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해발 439m인 영취산을 가운데 두고 진례산(510m)과 호랑산(481m)이 어깨를 함께하고 있다.

아름다운 홍교와 일주문을 지나면 흥국사사적비가 우뚝하고, 이어서 영취교가 나타난다. 영취교 위 아래 하상(河床)은 호박돌, 자갈,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갈수기라 수심은 평균 30cm 안팎이지만, 1m에 가까운 곳도 있다. 중흥천의 우점종인 갈겨니가 그런 곳에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은 다슬기를 비롯해 뱀잠자리애벌레, 옆새우, 하루살이, 강도래, 날도래 등의 수서곤충들이 관찰된다. 뱀잠자리애벌레는 돌 밑에 살다가 초여름에 수면 밖으로 나와서 흙을 파고 들어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한여름에 잠자리가 된다.

영취산의 양서류는 대부분 숲 가장자리의 나즐지, 중흥천 수계와 주변 습지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다. 흥국사 주변의 산개구리와 도롱뇽은 벌써 부화를 끝내고 어미들은 눈에 띄질 않는다.

영취교를 건너면 비로소 흥국사 경내이다. 천왕문-봉황루-법왕문-대웅전이 3단 석축 위에 위계에 따라 일직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가람배치에서 다른 절과 다른 점은 대웅전 뒤 영역에 팔상전, 불조전, 응진당 등 비중 있는 전각들이 자리하고, 원통전이 외곽에 마치 별당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웅전은 일찍이 하나의 반야용선(般若龍船)으로 전해온다. 대웅전 오른편 석축에 새겨진 게와 기단 끝에 새겨진 작은 거북이는 대웅전 주위가 바다임을 암시해준다. 이 반야용선을 이끄는 것이 돌계단 양쪽 소맷돌에 조각된 용들이다. 바다 한켠에 등대가 떠 있는데, 그것이 돌거북 위에 세워진 흥국사 석등이다.

경내외 여기저기 봄꽃들이 보인다. 산괴불주머니, 현호색, 냉이꽃, 꽃다지, 광대나물, 제비꽃, 봄맞이꽃, 세잎양지꽃, 개불알풀….

산괴불주머니는 두해살이풀로, 습한 곳에 잘 자란다. 키가 50cm 가량인 줄기는 속이 비어 있고, 가지가 무성하며, 잎은 깃꼴로 갈라져 있다. 이른 봄에 꽃이 피는데, 생김새가 현호색을 많이 닮아있다. 다만, 보라색인 현호색과 달리 노란색이다.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은 겨우내 굶주림에 시달려온 봄나비들에게 꿀을 제공하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다. 큰멋쟁이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cm 가량 되는 중간 크기의 나비이다. 주황색 양쪽 앞날개 가장자리에 흑색 무늬가 있어서 매우 아름답다. 보호색이 강해서 날개를 접고 앉으면 날개를 폈을 때의 색깔과 무늬가 오간 데 없이 사라진다.

흥국사는 좌우로 두 계곡을 끼고 있다. 하나는 영취산과 진례산 사이에서 내려오는 영선암 계곡이며, 다른 한 줄기는 영취산과 호랑산 사이에서 내려오는 정수암 계곡이다. 그러나 영선암과 정수암은 오래 전에 화재로 폐사되고 지금 도솔암만 산중턱에 남아있다.

도솔암 가는 길은 영선암 계곡을 끼고 40여분 거리에 있는 봉우재에서 갈라진다. 3월말, 진달래가 산 아래쪽부터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다. 꽃샘추위만 없다면 1주일이면 봉우재와 영취산 일대를 붉게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계류 건너 영선암 옛 터는 허물어진 돌담과 주위의 늙은 동백나무 군락이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영선암 동백은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서둘러 요절을 한다. 주인 떠난 영선암 터는 새들의 도솔천이다. 계절이 일러서인지, 여름철새는 노랑할미새만 중흥천에서 한 쌍이 관찰되었을 뿐, 거의가 텃새였다.

진박새는 박새보다 크기가 작다. 앞가슴에 세로줄이 없고, 꼬리가 짧아 통통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흰색 뺨과 날개의 가는 흰색 띠가 두드러져 보이고, 뒷통수에 난 검은 깃도 특징이다. 주로 활엽수숲에 살면서 여름에는 곤충을 잡아먹고, 겨울에는 씨앗이나 열매를 먹는다.

흥국사에서 봉우재까지, 전반부는 비교적 완만한 계곡길이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경사가 조금씩 급해진다. 봉우재 등산로는 등산객들이 생각 없이 등산지팡이로 찔러서 점점 넓어지고 있다. 넓어진 만큼 산이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산행로는 좁을수록 친환경적이다. 흥국사와 영선암에 이르는 사면에서 현재 숲 가꾸기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의 식생은 굴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가 중심이 된 참나무류와 서어나무 종류들이 우점하고 있다. 온대남부활엽수로는 예덕나무, 굴피나무, 푸조나무, 꾸지뽕나무, 말오줌때, 나도밤나무, 이팝나무, 무환자나무, 비목, 소사나무 등이 있다.

예덕나무는 남쪽 바닷가에 자리한 영취산의 기후특성을 대변해주는 나무이다. 봄에 나오는 붉은 순은 나물로 즐겨 먹었다. 초여름에 담황색 꽃이 피고 가을에 갈색 열매가 익는다. 추위에 약하여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을 나지 못한다. 한때 일본에서 암 특효약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난대상록수로는 영선암의 식재된 동백나무와 사스레피나무, 송악, 마삭줄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대나무도 흥국사 옆 계곡부에 좁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봉우재 안부에 이르면 왼쪽으로 진례산 도솔암으로 가는 길이 나 있고, 오른쪽으로는 영취산과 호랑산으로 가는 산행로가 이어져 있다. 봉우재에서 이어지는 정상부의 암봉들은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이나 알카리장석 화강암들이다. 능선부를 따라 독립암괴가 나타나기도 하고, 흥국사 뒤로는 작은 규모의 암괴류(너덜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도솔암으로 가는 길은 절반이 철도침목 계단길이다. 도솔암은 온통 바위인 금성대 아래 자리하고 있다. 도솔암에서 진례산 정상까지는 가파른 바윗길이다. 진례산 정상에서 말안장처럼 완만한 안부로 내려서면 드넓은 억새평원이다.

봉우재에서 헬기장을 지나 영취산 정상으로 이어진 구간은 30~40년생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여수시에서 진달래 축제를 위해 수만 본의 진달래를 심었다. 그 과정에서 진달래 이외의 종들을 모두 제거하는 생태폭력이 행사되었다. 영취산의 진달래는 고도에 따라서 키가 다르다. 바람을 많이 받는 정상과 능선부의 군락지는 키가 아래쪽에 비해 작고, 잔가지가 많다.

439봉에서 능선을 타고 흥국사로 내려오는 산행로가 있다. 흥국사-봉우재 구간에 비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호젓한 분위기이다. 흥국사 가까이 내려오면서 고라니와 너구리 배설물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야생 포유류는 대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 직접 관찰한다는 것은 다람쥐류 빼고는 어려운 일이다. 흥국사 주변을 비롯해 영취산에 서식하는 포유동물로 너구리, 대륙족제비, 오소리, 삵, 고라니 등이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흥국사 경내에 서식하는 시궁쥐, 청설모, 다람쥐가 관찰되었다. 사찰 경내에 사는 시궁쥐는 먹을 것을 찾아 논밭에서 경내로 들어온 것들이다. 시궁쥐는 다른 설치류에 비해 새끼를 많이 낳는 편이지만, 야생 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예전처럼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어쨌거나 영취산 포유류들도 앞날이 어둡기는 인간과 마찬가지다. 여천공단이 밤낮없이 뿜어대는 공해 때문에 다양성과 함께 개체수도 점차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지를 품기만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불러온다. 욕망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어당김법칙"을 공개하오니 기도 성취를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웰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경봉 큰 스님 친필
소장 하실 분



규격 ▷ 123cm × 66cm

표구 하지 않은 원본
011-808-7356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새 인연자를 찾습니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길을 묻는 이에게

항상 사계절이 닥쳐도 봄과 같이 즐겁게 웃고 살자!

(지난 호에 이어서)

스님: 이거 봐요. 댁이 적당히 너무 쉽게 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야. 그냥 주인공에다 '너만이 잘해서 잘살게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만 하면 간단할 거를 왜 그렇게 어지러운 생각을 해? 음? 그 어지러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야. 생각했던 것 그대로야. 그대론데 자꾸 달아나가려는 거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달아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맡기고 그냥 지키고 이렇게 잘 리드해 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참, 뭐? 무슨 집단의 뭐라고 그랬던가? (대중 웃음)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난 듣기 좋아요. 왜냐하면 사교의 집단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타인을 믿으라거나, 타의의 형상을 믿으라거나 그러면 그런 집단이 돼요. 그러나 개개인이 다 불성이 있고 자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감생심 이 육신이 얼마나 간다고 그 교주가 되고 싶어서 그러겠오? (대중 웃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지금 여자 관계를 얘기해 주듯이 각자가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하게끔 이렇게 인권해 주는 그 역할만 하지 내가 어떡하든지 해서 이걸 구겨넣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끔이니까, 각자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고, 이 몸뚱이 하나의 집단도 지금 이 몸뚱이 하나하나 개개인 집단이라고, 이게. 이 집단도 더불어 다 같이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집단을 만들어요? 귀찮게! 하하. 그러니까 당신의 몸뚱이도 그냥 혼자 몸뚱이가 아냐. 집단이야, 하하하. 그게 속에 들은 생명들이 전부 집단이지요. 더불어 같이 사는 집단인데도 의식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조복해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내 마음을 잘 써야 마음 잘 쓰는 대로 따라주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쓰는 대로 따라준다. 잘 명심해서 앞으로 잘 살아요.

질문자2(남):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자3(남): 본 선원 신도입니다. 제가 한마음선원에 나와서 공부한 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 2월 법형제 모임 때 스님 친견하고 이번 두 번째 친견입니다. 이 영광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공부 하면서 주인공한테 계속 관하면서 얼마 전부터 한 3개월정도 됐는데 잠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눈이 충혈이 돼야 되는데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더 활동적이고 왕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하는 건지,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리저리 일하는 데만 사실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어떤 순간에 주인공이 아, 이거 내가 끌고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 끌고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난 뒤에 그 주인공이란 생각을 잊어버렸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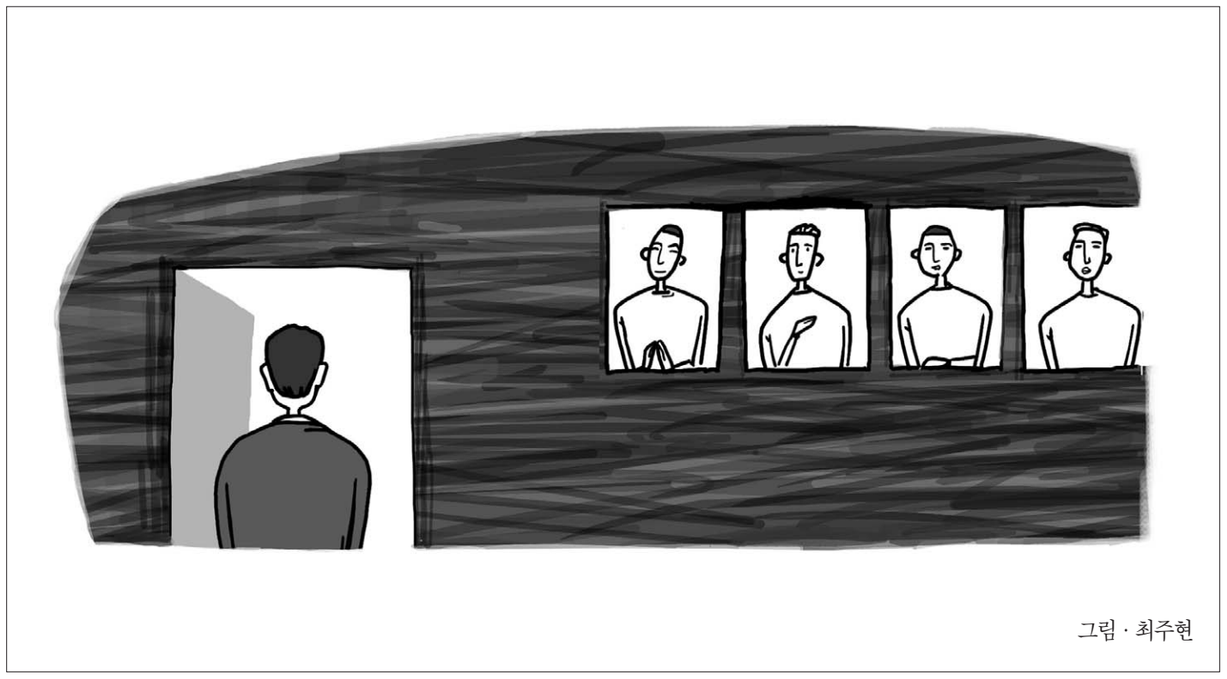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다가 아, 이게 나한테 경계가 딱 부딪치는데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 '주인공, 너 박살내버리겠다. 나오너라.'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이란 그 마음을 딱 냈을 적에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 스님한테 감사한 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그래도 주인공을 찾으면서 박살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진짜 냈을 때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마음공부하면서 좀더 정진할 수 있게끔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박살을 내봤자야, 하하, 박살을 당할 사람은 당신이지 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박살내겠다는 생각도 말고 '네 몸뚱이 네가 잘 이끌어 가야잖아. 이렇게 올팡갈팡 끌고 가서 돼?' 그렇게 좀 인자하게 했으면 더 좋잖아. 하하. (대중 웃음) 그렇게 해서 잘, 앞으로는 맑고 깨끗하게 또는 다복하게 살아요. 열심히 하면,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일체제불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 불성은,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언제나 자비하게 같이 도와주는 빈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질문자4(여): 저는 광주지원을 통해서 한마음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님을 뵙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요,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저의 언니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님한테 저의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어제 밤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언니가 강 보살인데요, 저희 시댁의 내막을 알고 천도재를 무척 권했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에 응하질 않았거든요.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지금도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왔어요. 그래서 천도재를 올초에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큰애기가, 여수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곳인데 거기를, 무척 힘든 실력인데 쾌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반 이상으로 따라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천도재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고요.

저의 남편이 공무원인데 제가 좀더 보태보자고 생활전선에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했습니다. 아동복을 했는데 처음에 빚을 많이 갖고 시작했는데 그걸 갚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누적이 돼갖고 그게 큰 빚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서 제가 속이고 속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가계수표를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또 그거를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을 지니까 제가 감당키가 어려워서 직업을 바꾸자 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바꿨습니다. 제가 김밥전문점으로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본사에 미결재 된 것을 결재하고 재투자를 했더니 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삼 개월은 장사가 잘돼서 그것을 다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니까 어떻게 된 게 이게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에요. 인건비는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자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남편한테 그걸 계속 감췄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직접 남편한테 연락이 가버렸어요. 저는 놀라가지고, 저의 남편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저는 그대로 밖을 뛰어나가서 약을 사서 먹어버렸어요, 여관에 가서요. 차라리 남편 놀라는 모습보다 제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여관을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저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친구에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금액은 더 많은데 한 삼분의 일 정도만 남편에게 알렸어요. 그래갖고 이 가게를 정리해가지고 남편이 이번에 정리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마음 같아서는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어요. 금전적인 데 대한 얘기를 남편한테 안 감추고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그게 다인지, 또 있는지를 묻는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조그마한 가게를 할 수 있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변두리에 다 얻었습니다. 변두리에다 얻었는데 저는 거기서는 꼭 일어나서 남의 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포장마차를 할까 아니면 곰탕집을 할까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하하. 곰탕집인들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하하하. 모든 게 자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자기 그릇하고 그 그릇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곰탕집은 당신하고 맞지 않아. 곰탕이 따라주질 않겠어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당신이 기독교를 다녀봤다니깐 알겠는데 주처는 당신한테 있어요.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종교를 믿는다고 믿었겠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종교를 믿는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겼고 허영의 그 눈이 당신을 망쳐놓은 거지요. 그것도 욕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인공, 너만이 가정을 다 화합하게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고서 관하고 남편한테 다 전후사 얘기를 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잖아요. 응?

질문자4(여): 남편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요, 불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755-2695,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전문 요가 지도사 과정

요가 치유사 과정

나라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 층(kosha)으로 나누어지는 의식으로 육체를 통해 작동되며, 표현된다.

다섯 개의 층 이란
물질의 층, 생명 에너지의 층, 마음의 층, 지식의 층, 행복의 층을 말한다.

총체적 치유 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육체의 물질, 에너지, 마음, 지식, 행복의 층을 요가적으로 함께 접근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내용과 수련으로 총체적 **요가 치유사**로 나아갈 수 있다. 질병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에 대한 지식과 B.K.S Iyengar 선생님에 의한 도구활용 Therapy Yoga에 의해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치유적 접근법을 배운다.

• 입 학 식 : 4월 27일(일) 오후 2시
• 교육일정 : 5월 4일 ~ 8월 24일(매주 일요일)
•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교 육 비 : 300만원
• 강 사 : 원장 **윤나영**(춘해대 요가과 외래교수)

임산부 요가 지도사 과정

임산부의 몸과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요가적인 접근으로 임산부의 건강한 몸과 마음, 태아의 바른 성장으로 안정된 출산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 요가 지도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입 학 식 : 4월 27일(일) 오후 2시
• 교육일정 : 5월 3일 ~ 7월 19일(매주 토요일)
• 교육시간 : 오전 1시 ~ 오후 6시
• 교 육 비 : 60만원
• 강 사 : 원장 **윤나영**(춘해대 요가과 외래교수)

춘해대요가과 산학협력기관
깨어있는 사람들 – Therapy Yoga
문/의/전/화 051) **231-2230**
www.therapyyoga.net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남 · 여 승려 모집]

■ **모집학과** : · **본과(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습의 후 3개월 통학 가능)
· **통신반 6개월 통신강의**(월 1회 출석)
■ **개강일시** : **제3기 2008년 5월 6일(월)**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서 나이,학력 불문
■ **특 징** : 본원은 세계불교 승가회(World Buddha Sanga)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원으로서 6개월 수료 후 수계득도(승려증 발급)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창건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수 강 료** : 기본 3개월 150만원(숙식제공,지도비 강의료포함)
■ **특강교수 및 지방 연락처**
경남지역:무송스님 011-883-7579 대구지역:법인스님 011-548-3664
경북지역:해성스님 010-9421-9364 동두천지역:법천스님 010-7700-7093
부산지역:법봉스님 011-9330-6210 용인지역:송산스님 031-262-1577
■ 접수처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앙불교대학원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세계불교승가회(World Buddha Sanga)전문강원
중 앙 불 교 대 학 원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 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 · 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야후) 연합불교방송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니 좀 넓게 살아보세요

☞25면에서 계속

이 나면 눈이 파딱거려요.

스님: 이거 봐요. 무섭잖아 천하 없어도 그래도 남편만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질러도 속으로는 그 애틋한 마음과 금창 여미는 마음, 분노와 그런 게 사무쳐도 그래도 살려야 하는 거는, 책임지는 거는 바로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리고 천도식을 했다는데 천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를 다니면 부모의 재사도 안 지낸다는데 나는 재사지내라는 거를 밥 떠놓고 물 떠놓고 반찬 해놓고 그러고 지내라는 게 아냐.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자기도 자식을 기를 때, 자기가 자식을 기른 그 은혜를 생각하게 안 해준다면 그 자식들은 길러 뭘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노릇 할 때 그 은혜를 입은 거를, 은혜를 꼭 갚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동적으로 기일을 생각해서 물이라도 떠놓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초, 향, 둥그런 떡 세 켜, 당신은 조상들이 많으니까 떡 한 여섯 일곱 켜는 해놔야 되겠구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과일 한 서너 가지 값비싼 걸로 몇 개씩 이렇게 한 그릇에 놓고 그러면 조상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 영혼이 없다고 봐요? 있다고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종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싹이 나오지 않아요. 영혼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두 생명들이 생기지. 그런 거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오게끔 되는 것도 바로 자기의 종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공, 이 모든 영령들의 조상님들이 한자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밝고 깨끗한 한자리를 하게 하소서.' 한울이니까요. 하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 한울이에요.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요. 그건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니 주님이니 했지. 주님은 당사자예요. 모두 자기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주님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관하면서 지극하게, 분란 안 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고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펄쩍 뛰지만 나중엔 다 수그러져요.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자식도 기르고 마음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수, 그거.

질문자4(여): 포장마차를 하겠습니다.

스님: 포장마차 해가지고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힘들 텐데….

질문자4(여):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안에…,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스님: 그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자4(여): 다시 저는 김밥이 하고 싶은데 그 장소가 포장마차 장소거든요.

스님: 그래. 그럼 그것쯤은 돼. 가봐요.

질문자5(남): 제가 오늘 여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제 처남이 서울대 대학원을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부 때 2학년 때부터 행정고시를 계속 쳤는데 일차는 계속 여직껏 됐는데 이차는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지 많은 고민과 번민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이겨

> 주인공!
> 모든 영령들의
> 조상님들이
> 한자리 하게
> 하소서!

내지 못하고서 지금은 정신분열 현상, 소위 남들이 말하는 약간 미쳤다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게 된 것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본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제 처한테, 누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여기 계신 스님도 만나뵙게 해가지고 상담도 시켰었고 또 저 나름대로 스님한테 배우고 제가 책에서 읽은 대로 주인공 법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항상 피해망상적으로 어떤 조직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또 항상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그랬는데 주인공 법을, 부처님 법을 이야기 해주니까 자기를 해치고 그런 게 조금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말 시키고 싶고 그러면 자기가 편하겠다고, 상태는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주인공에 저 자신도 많이 관했지만 저 자신 원력도 약하고 수행도 덜 되고 해서 오직 스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님께서 자비함 베풀어 주세요.

스님: 그거야 본인이 관할 줄 알게 리드해 줘야죠. 그거는 자기 신경에 의해서 이 속의 의식들이 발동을 한 거니까요. 속의 의식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타고 나오는 거니깐요.

질문자5(남): 지금 주인공 법을 처남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제 힘으론 좀….

스님: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해결을 해요. 자주 데리고 와요. 어디서 살아요?

질문자5(남): 예. 사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스님: 그 사람 부인은 없어요?

질문자5(남): 예.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스님: 그럼 데리고 올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러세요.

질문자5(남):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칠월달에 스님을 친견을 했습니다. 저도 두번째로 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스님께서 저를 이끄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많은 눈물도 흘려봤고, 스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면 아침 출근길에 눈물 한 방울 흘리고 퇴근길에 전철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흥동정유라고 스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수박씨라든가 콩씨, 참깨씨, 법문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걸 다루는 회사입니다. 스님께서 많은 법문을 주셨지만 제가 아직도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뜻으로써 와닿는 것보다는 말로써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말로써만 스님 말씀하신 거를 앵무새처럼 한데 떨어지게 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 뜻이 제 뜻이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스님: 난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당신의 불성이나 내 불성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자기 불성이 있는 이상, 자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불성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움죽거리지 않고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심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수레와 같아요. 그러니깐 모든 거는 심봉한테 맡겨요. 거기다가 해야지 에너지가 배출되지 그렇잖으면 배출이 될 수 없죠. 남한테다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무리 이 물질이, 물질을 가지고 부처님 형상이 계시면, 댁의 형상으로 부처님 형상만 믿고 이런다면 안 돼요. 그거는 에너지가 배출될 수도 없고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댁 형상도 부처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예요. 법당에 들어오나 나가나 항상 같이 하는 거. 같이 중심을 타고 하는 거, 그 심봉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이끌어나가요. 다스려서 이끌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의식적으로 이 생각으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거기다 맡겨버려요. 자기 주인공한테다 다 맡겨버리고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너만이 내 성질을, 댁의 성질이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 '그것 죽이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착하게 마음을 쓰게 하는 것도 너밖엔 할 수 없다.' 모든 거를 그렇게 해나가보세요. 그러면 요다음엔 또 달라질 테니까요.

질문자6(여): 스님, 가까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하고 제가 관하

> 모두가
> 한울이니까
> 밝고 깨끗한
> 한자리를 하게
> 하소서!

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새 인연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오느라고 오늘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층에 있었는데 곰탕 얘기 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실 때에 갑자기 3층에서 저를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스님.

스님: 조금 가까이 앉아서 해요.

질문자6(여):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스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선원에 나올 때부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그런지 제가 지금은 아주 걸음마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일에서 어떤 경계가 닥쳤을 때 항상 저를 위해서 먼저 관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여건이건 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혼돈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할 역할을 하루하루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걸 가장 먼저 관하는 것 같습니다.

오빠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녹내장이 와서 작년 9월부터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되고 또 한쪽 시력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대구로 발령이 나서 저희 집에 같이 있게 됐는데요, 저는 오빠가 처음 올 때 참 괴로웠습니다, 스님. 어떻게 오빠를 보면서 제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을 참 많이 관하고 있었는데….

스님: 이거 봐요. 말을 듣다 보니까 말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빠한테 책자 조그만 것 주고 관하는 거 가르쳐줘요. 대구에서 왔다 그랬나요? 음, 그럼 대구지원에 나가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의 구원을 받으면 생활의 구원도 되고 자기의 모든 전체가 구원이 되는 거지요. 눈도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금 없으면 못 살죠. 아침에는 치약으로 닦고 저녁에는 칫솔로 소금을 찍어서 닦고 그러고선 소금을 조금 물에 타가지고선 눈에다 씻으면 그렇게 눈도 여든 살이 먹도록 눈 하나 나빠진 일이 없대요. 그리고 잇몸 하나 나빠진 일이 없대요, 항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 눈 씻는 것도 따뜻한 물에다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관하는 법도 시키고, 그러면 당신한테 짐도 안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당신도 당신을 위해서 관을 하면 가정이 다 좋게 되는 거지요. 당신 하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지면 상대가 좋아지고 상대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족하면 안 돼요. 좀 넓게, 둘 아니게, 둥글게, 그렇게 여유있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인데 좀 넓게나 살아보자 하고 말이에요. 즐겁게 웃고 살자. 항상 사계절이 닥쳐도 봄과 같이 살자. 그러면 내부의 모든 생명들의 의식도 그걸 따라줘요.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그대로 봄이 와요. 봄이 와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봄이 온다고요. 당신네 불성을 그렇게 믿지들 못해요? 진짜로 믿어봐요. 진짜로 보배야. 그렇게 해보고 또 와요. 응?

질문자6(여): 스님, 지난번에 오빠하고 같이 스님을 한 번 친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야채스프랑 소금물로 닦는 걸 제가 그냥 지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뜻한 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찬물로 하고 있는데요.

스님: 좀 일러줘라. 그렇게 일러줘. 씻는 것도 일러주고.

질문자6(여):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그리고 그거 먹을 때 피로회복제도 같이 먹고요. 오늘…, 하하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갈피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는 분들이 잘 잡숫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영원히 도반이 됩시다.

※위 법문은 1997년 4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무량종
입 종 안 내

불교 정법을 수행정진 하면서 본 종단 종지종풍을 지키고 뜻을 같이할 참신한 승려나 법사 행자 입종을 바랍니다.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제반서류 총무원 비치)
· 주민등록 등본 ····· 1통
· 호 적 초 본 ····· 1통
· 승려 증빙서류
(전종단 재적등본 또는 승려증.사찰등록증.사본)
· 이 력 서 ····· 1통
· 여권용사진 ····· 4매
· 사찰전경사진 (내 외)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주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 055)883-7771.7790.7714 / 팩스 883-7796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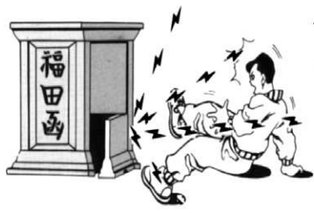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사찰 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재무부인가 제 9-205호
▣ 문의전화 : 053)426-1037
▣ 전문상담 : 서일영 전무
C.P 011-527-1037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 세상보기

김징자
칼럼니스트

찬란함에 대하여

찬란함에는 기쁨이 있을까, 슬픔이 있을까?

생명 근원을 드러내는 그 찬란함은 분명 기쁨에 속할 것이로되, 한편 '찬란한 슬픔의 봄'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감각에는 그 찬란함 속에 슬픈 가슴앓이가 보인다.

색깔의 현란함이나 화려하기로는 봄과 가을이 다르지 않으나 사람들은 '찬란함'이란 단어를 가을에 비해 봄에 많이 붙인다. 새싹과 함께 온 세상 어디에나 기적처럼 갑자기 펼쳐지는 지상의 꽃 잔치 때문일 것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아름답다"며 <시간의 이빨>이란 책을 쓴 미다스 데커스는 "사람들이 봄에 과수원 꽃구경을 하러 몰려들지만 가을 탐스런 과일을 보러 일부러 과수원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푸념을 한다. 봄과 가을이 주는 느낌의 차이라 할까.

꽃구름 속에서 사람들도 구름처럼 떠돌며 꽃구경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요즘 꽃구름 있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구름이 함께한다.

아무리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만개(滿開)의 순간 한번 파르르 떨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고양된 생명감의 절정에서 오는 환희의 떨림인지 아니면 만개를 위한 진력(盡力)의 고통에서 오는 몸부림인지, 그런 떨림이 있고야 열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떨림이 전달되는 것일까? 그래서 꽃구름 속에 파묻히고 싶어지는 것일까?

봄은 꽃의 계절이지만 계절에 걸 맞는 철새들로테이션의 계절이기도 하다. 기러기, 북방 까마귀,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의 색깔은 북방에 어울리게 어둡고 그다지 화려하지 못하다. 한편 그들은 귀로에 거대한 떼를 지어 지나가면서 지나는 길 위에 분뇨 성 비마저 뿌리고 간다.

그들이 가고나면 뒤를 이어 꽃들이 피고 꽃 색깔과 어울리는 자못 화려한 깃털을 가진 여름철새들, 꾀꼬리 뻐꾸기 소쩍새 두견이 파랑새 해오라기 물총새 노랑할미새 붉은 뺨 멧새 휘파람새 등이 신록 속을 누비며 알을 깐다. 돌아 온 여름 철새들마저 봄에 찬란함을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 찬란함에 슬픔이라고?

감정에 대해 연구하는 현대의 뇌 과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이라면 기쁨과 슬픔에 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포근한 기온 등 몸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신체 내 외부의 조화로움, 바다나 일몰 등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경관들, 아름다운 음악, 사랑 하는 것 등에서 오는 느낌이 기쁨일 것이고 여러 종류의 상실감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느낌이 슬픔이라고.

그야말로 과학적인 냉정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봄이야말로 기쁨의 계절이다.

그런데 이 기쁨의 계절에 왜 자살률이 높아질까?

사람들은 안락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삶의 의욕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살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부딪쳤을 때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고자 하는 열망은 전쟁터에서 더 높아지며 개인적으로 극복해야할 극한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 안락하면서도 찬란한 계절에 죽음의 유혹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은 지극한 기쁨이 지극한 슬픔에 맞닿아 있어서일 것이다.

과연 슬픔이 상실감에서만 느껴지는 감정일까? 꽃이 피어서 기쁘고 꽃이 져서 슬퍼진다는 그런 단순한 구도일까? 그런 슬픔에는 깊이가 없다.

찬란함은 기쁨 속에 슬픔이 더해짐으로 해서 무게와 깊이를 더하고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많은 대중들 앞에 앉으셔서 어찌하여 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미소를 지으셨을까?

불자의 눈

조계종 포교 인프라 약하다

최근 조계종이 밝힌 자료집에 따르면 조계종에 등록된 스님은 1만3576명이고 사찰은 2444곳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찰 당 거주 스님은 평균 3.7명이다. 굳이 이를 계산하는 이유는 포교인력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조계종 입장에서 보면 절대 부족한 수치다. 연령 65세 이상과 예비승 그리고 선원의 안거 대중을 포함한 수치를 빼면 1만 명이 안 된다.

'포교는 불교의 미래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구호조차 이제 힘을 잃을 정도로 포교에 대한 종단적 집중력이 약한 게 조계종의 현실이다. 물론 포교원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많은 스님들이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포교 원력 하나로 각고의 정진을 해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계종을 잘 들여다보면, 포교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도 문제고 일선 포교사찰에 대한 지원 부족도 문제다. 애써 양성해 둔 전문포교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대목에서는 좌절감마저 느끼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스님들의 수치적 분포는 포교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조계종의 미래도 어둡게 느껴지게 한다. 종단 몸집의 크기와 포교활성화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력이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계종이 포교사 활용을 위해 문을 더 넓혀야 하고 스님들도 포교 관련 교역을 의무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타종교는 북한 지역과 중국 등 공산권은 물론 아랍계에서도 선교의 깃발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

"연등축제는 우리의 전통놀이"

한국불교 최대 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축제의 연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조계종 문화부와 봉축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을 내리는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그간 제등행렬과 관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등축제가 일제 잔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학술토론회에서 연등축제는 일제잔재가 아니라는 강한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미등 스님이 '일제강점기 연등축제 고찰'이란 주제발표에서 "연등제의 제등행렬과 욕불은 일제강점기의 잔영이 아닌 전통적인 연등놀이였다"고 주장했다.

연등축제를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보는 시각의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연등축제가 우리 민족의 전통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확신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등축제는 이미 불교계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등축제에 맞춰 한국을 찾을 것이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연등축제가 보다 깊은 우리민족의 숨결을 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축제도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의 연등축제가 고려나 신라 때부터 전해 온 축제로 적극 홍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우리 민족의 전통 축제다운 면모를 담아내는 주최 측의 노력도 요구된다.

우리 모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⓪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일깨워주는 글을 한 50대 보살님이 보내주셨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인간관계 VS 이해관계

최근 선거 등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 어떤 일들에서든 성공, 성공을 강조하여 때로는 인간관계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가족, 친구 사이에서도 진실한 마음보다 이익을 따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참다운 인간다움은 자취를 감추고 껍데기인 이해관계만 남게 된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되어 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겠다. 성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필름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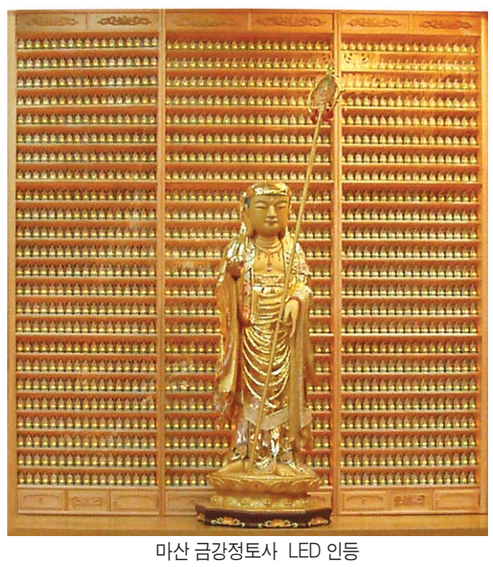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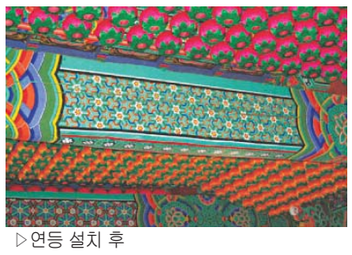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www.sungbul.co.kr

성 불 조 각 원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